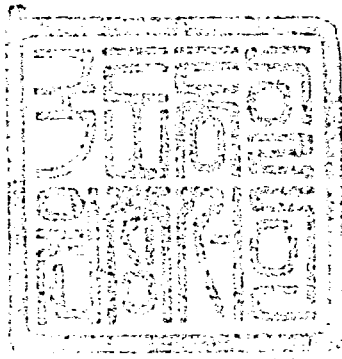


# 共產主義本質批判

(教授要綱)



國土統一院

Study Guide

THE NATURE  
OF  
COMMUNISM

A Guide for Use in Studying Communism

Institute on Communism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Vanderbilt University

## 刊 行 辭

南北對話 이후 政治思想教育 環境의 變化가 일어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즉 冷戰構造下에서의 反共教育 내지 政治思想教育에서 對話構造下의 政治思想教育으로 變化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變化가 隨伴되고 있는 環境下에서는 政治思想교육을 擔當하는 분들에게 相當한 衝擊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격을 最少化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先決되는 것이 思想教育 擔當者의 原理를 바탕으로 한 知的體系인 것이다.

이러한 뜻에 副應키 위해 採擇 翻譯發刊하게 된 것이 바로 本書로서, 이의 特徵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市中에 나도는 共產主義 批判의 一般書籍과는 달리 共產主義의 本質을 事實을 土臺로 批判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本書는 美國의 「맨다빌트」대학에서 社會科 擔當教師 訓練用으로 만든 視聽覺教材의 要約版으로서 다음에 出刊케 될 「共產主義 本質」과 함께 共產主義 批判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土臺로 北韓의 現實을 勘案하여 教授活動에 活用하게 된다면 새로운 次元의 政治思想教育 方法이 開發될 것으로 期待되는 바, 讀者 여러분의 많은 活用이 있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73. 8.

國土統一院 長官 金永善





##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目 次

## 刊 行 辭

序章 課程紹介 .....	5
第 1 章 共產主義의 基本敎理 批判 .....	7
I. 「마르크스」와 「엥겔스」 .....	7
II. 「레닌」主義 .....	19
III. 「레닌」이후의 敎理 .....	28
IV. 共產主義 敎理에 關한 反應 .....	36
第 2 章 共產政權 .....	39
I. 러시아의 共產黨史 .....	39
II. 소련의 政治, 經濟, 社會 實態 .....	51
III. 소련이외의 共產主義 .....	62
第 3 章 共產黨 .....	77
第 4 章 共產主義 批判의 準據 .....	95





## 序章 課程紹介 (No. 1)

본 과정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최근 시작된 (때늦은 감이 있으나) 거국적인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이 운동은 국가 지도자들 뿐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주(洲)에서는 공산주의를 역사나 민주주의의 문제와 같은 기존 과목의 일부로서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 과정은 거의 20萬에 달하는 미국의 사회과학 교사들이 공산주의 비판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도와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①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계속되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며 ② 공산주의는 전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어, 공산주의를 모르고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③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연구는 학생자신들의 참신한 사고를 자극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비판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교사의 훈련문제이다. 교사들이 공산주의를 가볍게 다루면 학생들은 속았다고 느끼기 쉽고 또 무언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공산주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그러나 교사는 다른 논쟁적인 정치문제를 다룰 때와 같이 공산주의도 다룰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객관적인 연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강의실에서 공산주의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산주의자로 전향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부정적이고도 남는다. 미국 사회에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공산주의의 완전한 이해인 것이다.

**강의 진행 계획** : 본 강의에서는 공산주의 운동을 그 형성 및 발전의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취급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의 근거를 이루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 부르는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에 의한 이론의 형성에서

## 6 課程紹介

부터 출발한다. 공산주의 이론은, 비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공산주의자와 공산국가간의 차이에 따라 약간 상이하기는 하나, 공산주의 운동의 이해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다.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 다음으로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의 활동을 연구하고, 소련 공산당의 1961년 강령과, 소련 공산당의 최근의 이념적인 聲明 그리고 모택동의 활동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 “공산정권”이라 표제한 章에서는 소련 공산당사(史), 역사에서 발견해온 소련연방의 제도적인 구조 및 현재의 상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공산국가에서의 공산주의 운동 등을 연구할 것이다. 또 여기서, 소련의 외교정책과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국가를 전복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단 방법 등을 토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당과 그 일반적인 조직, 공산당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의 여타 지역 특히 미국과 남미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그 방법 등을 다룬다.

“공산주의 비판”의 준거란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인 견해를 공산주의자들의 것과 대조하여, 비판하게 될 것이다.

# 第1章 共產主義의 基本敎理 批判

## I 「마르크스」와 「엥겔스」

### 1. 「칼·마르크스」: 그의 作品과 배경(No.2)

1) 「마르크스」主義는 社會主義의 일 變形이다. 「플라톤」과 初期의 基督敎徒들을 社會主義者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르크스」以前에도 社會主義는 있었던 것이다.

2) 18世紀 불란서에서는 많은 哲學者들이 私有財産 制度때문에 人間이 사악해졌으며 “德”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制度를 廢止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 同世紀에, 學者들은 歷史에 關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人間의 行爲는 全體로서의 人類의 自律의인 발전에 부가될 뿐이라고 믿고 歷史의 발전을 局面과 단계로 圖式化해서 과거뿐 아니라 未來까지도 포함하는 歷史全體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을 세웠던 것이다.

4) 또 18世紀에 이르러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불란서 뿐만 아니라 全 人類를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큰 혁명을 기대하게 되었다. 「마르크스」主義는 道德的인 측면에서의 社會主義, 그리고 文藝復興期의 歷史主義와 혁명적인 想像力을 結合하고 있다.

5) 「마르크스」主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른 社會主義 運動이 있었다.

① 「푸리에」와 「오웬」을 中心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실험이 성공한다면 世界의 改造가 可能하다고 본 空想的 社會主義者들

② 「블랑퀴」와 關連된 혁명적이고 음모적인 社會主義者

③ 「프루동」에 의하여 창도되고, 「바쿠닌」에 의하여 지도된 無政府 社會主義者

④ 英國 「웨비안」協會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 근원이 「J·S·밀」과 「헨리·조지」에 까지 이르는 非혁명적인 社會主義者 등이다.

6) 「마르크스」主義는 以上の 諸 社會主義와 다음의 세가지점에서 다르다.

## 8 共產主義의 基本敎理 批判

(1852년 3월 5일 「마르크스」가 「웨드메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① 계급사회는 발전하는 歷史의 일 局面에 불과하다는 思想

② 歷史에서 계속되는 계급투쟁은 결국에는 無產者 독재로 발전한다는 주장

③ 이 무산자 독재로부터 새롭고 계급없는 社會가 出現하리라는 예언 등이다.

7) 「마르크스」以後 다음과 같은 社會主義의 여러가지 變形을 찾아볼 수가 있다.

① 獨逸 社會民主黨을 中心으로 하여 1889년 창립된 「第2인터내쇼날」에서 그 국제적인 조직을 갖게된 社會民主主義를 指向하는 社會主義

② 주로 「라틴」諸國을 中心으로한 無政府組合主義

③ 주로 英國을 中心으로 하고 美國에도 있었던 「웨비안」 社會主義

④ 소련에서 발생하여 1919년 「第3인터내쇼날」로 조직된 「레닌」主義

⑤ 流産된 「第4인터내쇼날」의 바탕이된 「트로츠키」主義 등이다

## 2. 「마르크스」와 人間改造(No.3)

1) 「마르크스」는 혁명을 바랐다. 그 理由가 憐憫의 情에서인가 아니면 人間的인 義憤에서인가에 대한 解答을 우리는 그의 소위 初期의 저술들(1843~1848)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2) 이 初期의 저술에서 「마르크스」가 다룬 問題는 外的인 社會의 諸條件과 이의 개선보다도 人間과 生活과 社會의 本질에 關連된 基本的인 問題들인 것이다. 그의 출발점은 그가 「倒錯된 意識界」라 부르고 있는 종교의 거부에서 부터 시작된다.

3) 「마르크스」에 의하면 「倒錯된 意識」이란 모든 면에서 非人間的이고 허위인 倒錯된 世界를 반영한다.

4) 「마르크스」는 人間의 本질을 勞動에서 찾는다. 勞動을 통해서 人間은 그가 必要로하는 대상속에서 그의 生活을 創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 전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人間의 本質은 어떤 무엇보다 바로 理性이다』라고 말한 주장과 정반대의 立場에 선다.

5) 이 兩者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人間의 本질이 理性이라면 좋은 生活이란 有德한 生活을 말하며 同時に 正義와 法과 立憲政府에 기초를 둔 社會질서를 要求하게 된다. 반면 勞動이 人間의 本질이라면 眞實한 삶이란 人間이 自己의 勞動과정을 統制할 수 있는

生活이며, 이는 결국 國家를 否認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集團勞動을 要求하게 되고 私有財産 制度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6) 人間이 人間 스스로를 創造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창조자로서의 神性에 대한 信仰을 배제한다. 「마르크스」는 生命의 모든 자명한 것을 볼 때 創造의 根源으로서의 神性を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으나 그의 追從者들에게는 이 문제의 제기를 금지시켜 버렸다.

7) 「마르크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概念인 “격리의 개념”은 인간을 위와 같이 보는 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만약 人間을 자신의 노동과정과 生産物로부터 분리하면 이는 자신의 본질과 同時에 동료 人間으로부터 “격리”됨을 뜻한다. 이때 그는 어떤 外力의 統制下에 들어가며 그 “外力”에 依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는 內的으로 “격리되어 있는” 社會인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倒錯된 意識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倒錯된 世界”인 것이다.

8) 이 격리의 원인은 分業과 私有財産 制度이며 人間이 眞實로 人間다운 生活을 하기 위하여는 이 兩者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9) 이와 같은 論理的 근거에서 집을 다시 짓기 위하여 “기둥”을 남겨두기 보다는 모조리 파괴해야 한다는 “急進的인 혁명” 개념을 形成해 낸 것이다.

10) 「마르크스」는 학문적인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혁명을 이야기 한다. 실천적인 혁명은 대중의 힘을 必要로 하며 이와 같은 혁명을 할 수 있는 대중을 생각하면서 「마르크스」는 대중을 그들이 당하는 “보편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完全히 人間됨을 喪失한” 분자로 定義하고 이 때에 그는 비로소 그의 이와같은 규정이 알맞아 보이는 要素로서의 「프롤레타리아」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 3. 「마르크스」와 歷史法測(No. 4)

1) 「마르크스」가 허위이며 非人間的이라 규정한 社會를 全面的으로 거부한 것은 그의 1843年 부터 1845年 사이의 著書에서이다. 이 시기의 「마르크스」를 종종 “人道主義的인 「마르크스」”라 부른다.

2) 1846年의 獨逸觀念論은 歷史는 어떤 客觀的인 法則에 따라 前進한다는 새로운 思想을 導入했다. 이 思想은 當時로서 아주 낯설은 사상은 아니었다. 社會主義者가 아닌 「헤겔」도 이와 같은 思想을 이미 그의 哲學의 核心으로 하고 있었으며, 歷史의 3단계를 主張한 「폰트」도 社會主義者는 아니었다. 「마르크스」가 이들과 다른 점은 역사발전의 추진력을 人間の 마음속에서가 아

나라 경제생산 方式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3) 인간의 意識이 아니라 經濟的인 生産技術과 그 關係가 歷史를 變化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獨逸 觀念論에서 발전시킨 思想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歷史의 “추진력”은 혁명이라고 한다. 이 첫번째의 主張은 根本的으로 進化論的이며, 두번째의 主張은 人間의 行動과 意識과 그리고 歷史를 바꾸려고 하는 意志를 要求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의 사상은 결국 두종류의 「마르크스」主義 다시 말해서 進化論的 「마르크스」主義와 革命的인 「마르크스」主義의 발생을 가져왔다.

4) 이 두 思想의 結合이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理論이 된다. 社會의 形態는 그 社會의 生産方式과 생산수단을 所有하고 있는 지배계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처음에는 經濟分野에서 內的인 變化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지배계급에 대한 피압박자의 政治투쟁으로 되며 드디어는 지배계급의 타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5) 이와 같은 變化過程과 계속해서 바뀌는 社會形態가 歷史의 法則을 이루고 있다. 現在의 共產主義는 原始社會, 古代 奴隸社會, 中世 封建社會, 近代 「부르조아」社會 그리고 社會主義 社會의 다섯으로 社會形態를 나누고 있다.

6) 계급투쟁 理論은 그 어떤 지배계급이든 그 지배계급의 권력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나오며, 혁명의 성공은 그 지배계급의 財産을 타도(탈취)하는데 있다고 主張한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혁명은 계속되고 그 계속되는 혁명중에서 無產者 階級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이 마지막 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7)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유일한 과학으로서의 歷史”를 인정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계급투쟁 이론으로 「부르조아」社會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사회의 必然的인 到來를 豫見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未來에 올 社會가 여러 사회 形態 中에서 유일하게 좋은 社會로 생각되었다.

8) “歷史法則”은 과학적인 思想이라기 보다 과학을 가장한 豫言인 것이다.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存在에게는 歷史가 그 全體로서 파악될 수 있으나 人間에게는 未來란 단지 열려져 있는 可能性일 뿐이다.

#### 4. 「마르크스」와 「프롤레타리아」 혁명(No. 5)

1) 1848년의 <共產黨 宣言>은 소위 혁명적인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지극히 重要한 說明書이며 깊이 읽어 볼만한 것이다.

2) 그 첫부분은 가장 조직적으로된 계급투쟁 理論의 形式을 수록하고 있

다. 이 외에도 <共産黨 宣言>은 소위 “지금까지 存在했던 모든 社會의 全歷史”를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역사는 「유럽」歷史 뿐이며 그것도 最近의 「유럽」歷史인 것이다. 계급투쟁 理論을 通해서, 「마르크스」는 社會를 統一과 平和와 질서로서 보지 못하고 뒤풀이 되는 戰爭으로만 보았다.

3) 『우리 世紀에 와서의 계급투쟁은 「부르조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투쟁으로 축소되었다』고 <共産黨 宣言>은 主張한다. 「부르조아」는 現代 資本家 계급으로서 생산수단의 所有者이며 임금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 「부르조아」 계급은 前世紀의 지배계급이었던 봉건지주를 넘어뜨리고 權力을 잡았다. 「부르조아」는 數世紀를 지속한 무역의 발전과 수공업의 팽창을 통해서 封建領主들의 자리를 뺏았었던 것이다.

4) <共産黨 宣言>은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우리의 目前에서 進行中이다』라고, 다시 말해서 産業勞動者인 現代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成長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共産黨 宣言>에 說明된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주로 처음에는 經濟的이었다가 점차로 政治的이 되는 다양한 투쟁 局面을 通하여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모든 다른 계급도 점차 「프롤레타리아」로 轉化되고 드디어 絶대다수를 占하게 되어 지배자인 「부르조아」에 대항하게 된다고 한다. 모든 혁명계급 중에서 이 「프롤레타리아」의 특이성은 그 자신이 하나도 財産이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르조아」 계급을 타도하고 난 후 새로운 계급을 創造하는 것이 아니고 全人類를 解放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이 宣言에서의 “계급” 개념은 주위 여건이 비슷한 사람들을 말할 뿐 아니라, 共同理解와 共同目標를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共同意識 즉 “階級意識”을 要求하며,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이 必要한 계급意識을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에 대한 투쟁과정속에서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事實은 豫言과는 맞지 않았다.

6) <공산당 선언>은 혁명 계획표를 作成했다. 資本家로부터의 完全한 몰수가 끝나고 모든 資本이 國營化되며 그리고 資本財 生産에 모든 資本이 投資되는데 이와 같은 過程은 法과 社會制度를 “強壓의으로 침범, 파괴” 함으로서 可能하게 된다는 것이다.

7) <共産黨 宣言>은 共產主義者들을 하나의 “孤立된 集團”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서의 혁명의 大義를 대변하고 있는 “탁월한 識見”을 가진 “가장 진보되고 확고한” 「프롤레타리아」의 일부로 보고 있다.

### 5. 「마르크스」와 「프롤레타리아」 혁명(계속)(No.6)

1) 1848년의 혁명은 발발과 더불어 끝났다. 그러나 이 혁명은 「마르크스」가 바랐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은 아니었다. 問題는 그러면 다음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였다. 여기에 대한 解答을 「마르크스」는 그가 <資本論>에서 제시한 資本主義 발전의 分析으로 대신하려고 했다.

2) 반면, 1850年代 初期의 政治적인 저술 중에서 「마르크스」는 當時 불란서의 事件들을 分析하고 다음 세가지의 結論을 얻었다.

① 「프롤레타리아」는 小數였고,

② 절대다수는 農民들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③ 都市人的 절대다수인 “小「부르조아」”는 처음 순간은 혁명적이었다가 어느 정도의 民主主義가 達成되고 나면 도리어 질서를 바라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分析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不可能 하다는 결론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를 혁명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方法을 찾고 있었다.

3) 이로부터 第2의 革命概念이 나왔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혁명은 한 차례의 폭발로서 說明되었으나, 이제 「마르크스」는 혁명을 規定하기를, 방치된 상태에서는 결코 조성되지 않으므로 혁명에 적합한 어떤 상황으로 「프롤레타리아」가 교묘하게 接近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간에 걸친 戰略적인 事業으로 보게 되었다.

4) 그의 後期の 政治적인 저술(1871~1875年)에서 「마르크스」는 國家를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 특히 「엔겔스」는 더욱 더 未來의 社會主義 社會는 國家가 必要없는 社會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Anti-Duhring(1878)>에서 「엔겔스」는 「부르조아」 타도 直後부터 시작하여 國家는 몰락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1875年에 그 새로운 社會가 일정 기간동안 資本主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警告를 하고 있다.

5) 이 期間이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 넘어가는 “過渡期間”이며 이 기간동안 國家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形態로 나타난다 하였다. 이 독재의 目的은 社會의 “혁명적인 變形”에 있으며 이렇게 하여 혁명의 重要한 作業은 權力的 장악 以後 이 과도기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6) 「마르크스」는 새로운 社會를 두 局面 즉 下位局面과 上位局面으로 나누고, (後에 「레닌」은 이를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라고 불렀다) 下位局面인 社會主義의 期間동안은 착취란 없게되나 財貨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의 분배에는



법질서를 必要로 하며, 財貨가 풍요해지는 上位局面에 가셔야 分배로 인한 問題가 사라진다고 한다.

7) 「마르크스」의 政治的인 저술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今世紀의 가장 두드러진 事實이라고 主張하는데 기초를 두고있다. 그러나 실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그와 같이 現實化되지 못했다. 「마르크스」가 最初의 혁명의 例로서 박수갈채를보낸 1871年 「파리코뭉」은 혁명의 最初가 아닌 最後가 되고 말았다.

## 6. 「마르크스」의 〈資本論〉(No. 7)

1) 〈資本論〉에 대한 소개 :

① 〈資本論〉의 目的: 〈資本論〉은 當時 「마르크스」가 이미 정립한 一般的인 見解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교하게 다듬기 위하여 社會의 資本主義的인 단계를 세밀히 검토한 것이다. 「엔겔스」에게는 이 〈資本論〉이 勞動者 階級の “諸條件과 熱望”을 說明하는 가장 “적당한 표현”이었다.

② 〈資本論〉의 性格: 資本主義를 극단적인 거부의 색조로서 날카롭게 批判하고 있다.

③ 作品說明: 第 1권은 기초적인 것으로서 「마르크스」자신에 의해 1867年 발행되었고, 第 2권과 第 3권은 「마르크스」가 남긴 「노트」에 의해 「엔겔스」가 1885年과 1894年에 발간하였다. 「마르크스」가 남긴 나머지의 「노트」는 1905年과 1910年 사이에 「칼·카우츠키」에 의하여 발간되었다. 이 「노트」의 골자는 「런던」의 Lawrence & wishart社가 발간한 〈剩餘價値論〉에서 영어로 읽을 수 있다

2) 商品의 流通:

資本主義 社會는 교환을 위한 商品(財貨와 用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生産된 商品은 화폐와 교환되고 그 화폐는 그 商品을 生産한 사람이 必要로 하는 다른 商品을 購買하는데 소비된다. “商品의 流通”은 이와 같은 개별적 인 C—M—C 회로의 총화이다. (C—M—C=商品—화폐—商品) C—M은 “一次變質”이며 M—C는 “二次變質”이다.

「마르크스」적인 分析에 따르면 商品의 “가치”는 이와 같은 變質을 통해서 지속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商品의 流通을 우리가 “統制할 수 없는” 非人格的이고 간접적이며 타락된 교환 형태로 생각하고 資本主義 社會에 內在하는 격리(alienation)의 一部라고 생각한다. C—M—C 회로와 더불어 M—C—M의 회로도 있다. 이것의 총화가 資本主義의 중심과정인 “資本으

## 14 共產主義의 基本敎理 批判

로서 貨幣의 流通”인 것이다. 두번째의 貨幣의 量이 첫째번 貨幣量보다 많지 않으면 이 回路의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M-C-M$ 은  $M-C-M'$ 로 되고  $M'=M+\Delta M$ 이며 이  $\Delta M$ 는 流通過程 中에서 생기는 화폐의 증가량인 것이다. <잉여가치론>은 이  $\Delta M$ 를 說明하기 위한 것이다.

### 3) 「勞動價値論」:

商品의 가치라고 할 때는 그 상품의 “효용” 가치와 “교환”가치를 포함한다. 상품의 효용가치란 그 상품이 갖는 物理的인 속성 때문에 그 상품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성이다. 교환가치란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며, 이 교환비율은 화폐로 表示된다. 「마르크스」가 흥미를 갖고 『노동가치론』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환가치이다.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물이 「다이아몬드」보다도 人間에게는 더 重要하지만 그 교환가치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아 교환가치는 효용가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환가치는 틀림없이 모든 상품이 共通的으로 갖고 있는 그 무엇에다 기초를 두고 있을 것이다. 그 무엇을 商品의 재료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면, 재료는 이미 그 효용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상품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재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상품이 공통으로 갖고있는 유일한 要素란 바로 勞動의 産物이란 事實이다.』라고 했으며, 「마르크스」는 『상품의 교환가치란 한 상품에 投下된 “同質의” 社會的으로 必要한 단일한 노동시간의 量이 발휘하는 기능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見解는 精神勞動, 資本과 良質의 土地의 영향, 노동기술의 정도 등을 감안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 4) 「剩餘價値論」:

商品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는 노동의 投下에서 생기고 그리고 資本家は 노동자가 아니기에  $\Delta M$ 는 어디서 생기는가가 問題로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는 그가 購買하는 대신 公정한 교환가치를 支拂하고 그가 판매하는 대신 公정한 교환가치를 受領한다. (이 “공정한”이란 말은 資本主義 社會의 規則에 따른 “공정한” 것이다) 資本主義 社會에서 勞動力은 화폐를 획득하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에 불과하며 자본가가 구매하는 것은 노동력이고 그가 판매하는 것은 이 노동이 생산한 生産物인 것이다. 그러면 問題는, 그가 구매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력의 교환가치는 그 노동력의 生産에 所要되는 勞動時間數 다시 말해서, 그 노동력이 노동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기능을 지속화 시키는데 必要한 노동에 所要되는 시간을 말한다. 이는 노동자가 노동하면서 生活하고 노동자로서

의 자신의 뒤를 이을 後世의 養育에 절대필요한 衣·食·住에 所要되는 노동의 가격이 問題로 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가격 즉 교환가치란 노동계급의 生存에 必要한 노동의 가격이다. 이와 비슷하게 資本家가 판매하는 財貨의 交換가치는 그 財貨의 生産에 投下된 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하루에 自己의 生存과 再生에 必要한 이상의 商品을 생산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하여 결국 資本家가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재화의 가치는 노동자가 판매하는 노동력의 가치보다도 커지게 된다. 이 차액이 資本主義 社會의 制度 때문에 자본가에게로 돌아가는 잉여가치라는 것이다. 資本家는 이 잉여가치를 地主와 대부분 해준 사람과 상품판매를 한다든지, 장부 정리를 한다든지, 다른 그의 資本主義의인 業務를 수행해 주는 특수화된 노동자들과 나누어 가지며, 따라서 잉여가치는 대개 우리가 이윤, 이자, 지대라고 부르는 것들과 거의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 7. 「마르크스」의 〈資本論〉(No.8)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그 움직이는 힘을 확실히 동일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 未來까지도 豫見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러면 이 資本主義를 지배하고 있는 힘들은 무엇인가?

① 資本家: 「마르크스」가 보는 자본가의 성격과 동기를 理解하는 것이 基本的인 問題이다. 「마르크스」의 見解로는 資本家란 人格화된 資本 다시 말해서 人格과 意志가 부여된 자본을 말한다. 資本家の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資本을 축적하려고 하는 만족을 모르는 탐욕인 것이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의 자본가의 活動이 바로 資本主義 社會 발전의 원천이 된다.

② 固定資本과 流動資本: 資本家の 行爲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마르크스」는 먼저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을 區別하고 있다. 固定資本은 이미 다른 자본가에 의하여 生産된 製品의 形態로 投資된 것으로서 例를 들면 기계·설비·시설·원료·部分品·보충품 등이며, 이는 “죽은노동”의 形態로 된 투자로 보았다. 流動資本은 “산노동” 即 勞動者 자신의 노동력의 형태로 투자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兩者는 다같이 資本이며  $C$ 가 자본총체,  $c$ 가 고정자본,  $v$ 가 流動資本이라면  $C=c+v$ 가 된다. 잉여가치는 주로 이 유동 자본에서 생기며 어떤 製品을 고정자본과 같이 구매할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획득하는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③ 「剩餘價値率」: 잉여가치율은 잉여가치를 流動資本으로 나누어서 얻

는다고 했다. 즉  $RSV = S/V$ 라는 것이다.

이를 또한 “착취율”이라고도 부른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착취는 자본 총체에서 계산된 일반적인 “이윤율”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分明히 할려고 했다. 만약에 잉여가치가 100弗이고 流動資本이 100弗인 경우 잉여가치를 或은 착취율은 역시 100%가 된다. 그러나 자본가가 400弗의 固定資本을 사용했다면 그의 총자본인 500弗에 대한 이윤율은 20%가 된다고 했다.

#### ④ 「絶對 勞動時間과 剩餘 勞動時間」:

“절대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순수하게 自己의 생계만을 위하여 必要한 일일 노동시간 數를 말한다. “잉여 노동시간”이란 하루 중 절대 노동시간을 뺀 나머지의 노동시간이고, 이때 그가 창조한 가치가 잉여가치이며 資本家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잉여가치율을 다시 잉여노동 시간을 절대 노동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낼 수 있다. 만약에 일일 노동시간이 12時間이며 노동자의 생계에 必要한 가치의 生産에는 6時間이 必要하다면 잉여가치율은 6時間으로 나눈 100%가 된다는 것이다.

#### ⑤ 「總剩餘價値」:

“총잉여가치”란 잉여가치의 全體合計를 말한다. 물론 資本家는 이 총잉여가치와 잉여가치율에 대하여 똑같이 關心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⑥ 「絶對 剩餘價値와 相對 剩餘價値」:

“절대 잉여가치”는 일일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알수가 있고 “상대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自己의 생계에 所要되는 가치를 生産하는데 必要한 勞動時間을 줄여보면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의 生活水準의 저하나 或은 노동의 능률화를 기하며 좀 더 짧은 시간내에 똑같은 量의 財貨를 生産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보통 훨씬 더 큰 固定資本의 投資가 必要하게 된다. 이 概念을 活用해 보면, 총잉여 가치는 一部는 잉여가치율에 의하며 一部는 고용된 勞動者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資本家는 이 절대 잉여가치와 상대 잉여가치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社會的인 見地에서 보아 총잉여가치의 限界는 最高로 연장된 일일 노동시간의 길이와, 노동자에게 強要하는 노동의 노력도와 最低로 強要된 노동자의 生活水準의 限界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 8. 「마르크스」의 〈資本論〉(No.9)

이번 강의는 「마르크스」가 資本主義의 過去, 現在, 未來를 理解하는데 있어, 그의 기초적인 概念들을 어떤 方式으로 活用하고 있나를 알아보는데 있

다. (그 개요를 그대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過去 : 資本主義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資本家は 극히 小數였으며 단지 노동자들을 統制하면서 잉여가치를 축적만하고 있었다. 그러나 技術의 발전이 大量 生産을 불가피하게 하자 경쟁은 資本家로 하여금 資本축적의 必要性을 절감하게 했으며, 이는 결국 잉여가치율에 더 많은 關心을 集中하게 하였고, 可能한 限 일일 作業時間을 연장하게 하였다. 大量生産 體制下에서는 資本家は “支配力”을 갖고 있으며, 이 支配力은 絶對權力으로서 더 많은 자본축적에 동원되고, 그리하여 계급투쟁은 激化된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分業의 확대가 必要하며, 이 分業의 확대는 더 많은 資本의 축적을 要求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착취를 낳는다. 勞動者는 단지 工場의 부속물로서 轉落하고 勞動者는 착취로 인하여 自己勞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能力을 박탈당한다.

2) 現在 : 기계의 등장과 더불어 착취는 더욱 더 심하게 되고 資本主義는 그 冪鍾을 울리게 된다. 기계는 勞動者의 勞動力과 기술의 必要性을 감소시키며 婦女子와 어린이의 고용을 可能하게 한다. 人間의 노력의 必要性이 감소됨과 同時에 일일 作業時間의 연장이 가능해 진다. 勞動者를 기계의 보조에 맞도록 強要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착취를 하게한다. 기계는 失業을 낳고 勞動者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노동자를 資本家の 횡포앞에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3) 未來 : 資本主義가 발전함과 同時에 이윤은 資本에 比例해서 감소한다. 왜냐하면, 착취의 증가는 固定資本에 더 많은 投資를 必要로 하고 이 固定資本은 잉여가치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資本이 小數人에게로 集中하게 된다. 資本家は 금융제도를 利用하여 다른 자본가의 자본을 탈취하여 총잉여가치를 증대시키며 감소하는 이윤율을 部分的이나마 상쇄하려고 한다. 景氣침체는 빈번해지며 그 정도도 심해지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는 根本的으로 生産이 生産物의 使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資本의 축적을 目的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生産과 소비가 서로 적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함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資本家の 기계 사용의 확대와(이는 상대잉여가치의 확대이다) 그리고 資本主義 社會에 存在하는 발작적인 노동수요의 파동 등으로 인하여 失業은 날로 격증한다고 한다. 드디어 자본가가 최대의 착취를 위하여 必死的인 노력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궁핍이 심해져서 全社會로 확대되며 이 때에 더욱 많은 資本 축적을 원하는 극소수의 大資本家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더 비참해가

18 共產主義의 基本敎理 批判

고 있는 勞動勢力과 대치하게 되어 마침내 노동자의 봉기가 일어나 계급없는 사회를 創造하고 歷史의 새로운 紀元이 열리게 된다고 「마르크스」는 보았다. 이와 같은 未來에 對한 見解는 레닌의 〈帝國主義論〉에서 수정된다.

## II 「레닌」主義

### 1. 「마르크스」로 부터 「레닌」(No. 10)

이번 강의의 主要 目的은 19世紀 末, 20世紀 初의 獨逸과 소련에서의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形成과 「레닌」이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思想을 어떻게 받아 들였나를 托의하는데 있다. 이 강의는 아래의 일반적인 세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첫째, 19世紀 末 獨逸에서의 「마르크스」主義的 社會主義의 발전과정 둘째, 同期間 소련에서의 社會主義의 발생과정 셋째, 「레닌」의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修正主義”의 내용 등이다.

1) 獨逸 社會主義 運動은 始初에는 非「마르크스」主義的 性格에서 出發하여 점차로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基本的인 思想을 받아들이기 始作하여 1880年代에 와서는 「마르크스」主義를 公式的으로 그들의 政治指導 理念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1889年 「파리」會合에서 「第2인터내쇼날」이 창설되고, 여기서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創出한 革命思想을 그 指導강령으로 채택하였다. 다행히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그의 生前에 獨逸의 統一과 成長뿐 아니라 그들의 思想에 바탕을 둔 獨逸 勞動者 계급의 政治的인 조직과 勞動組合의 結成을 만족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에게는 急速한 獨逸의 産業化와 獨逸 資本主義와 獨逸 「프롤레타리아」의 集結은 그들의 理論的인 가정을 확증해 주는 듯이 보였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獨逸社會의 성숙한 最後의 結果로서 그들 理論의 승리를 기대했다. 即 新進 産業 社會에서 生産力이 完全히 개발되면 獨逸에서와 같이 절대 다수의 계급을 차지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政治組織은 必然的으로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불란서에서의 계급투쟁>의 序文에서, 1895年 「엔겔스」는 그 자신과 「마르크스」가 1848年 小數集團의 革命行爲가 後進 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成功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 되었다고 슬회하고 있다. 1895年代의 「엔겔스」는 말하기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바리케이드」에 의하여 達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勞動者 계급이 使用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인 보통선거권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하였다. 「엔겔스」와 그 以後의 獨逸社會主義 指導者들은 그들의 黨에 절대다수인 産

業 勞動者 계급뿐만 아니라 中産 계급, 小「부르조아」, 소농 계급까지 끌어들이므로 合法的인 議會主義의 수단으로 獨逸의 결정권을 쥔 政治勢力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비록 1914年 以前の 獨逸 社會主義의 勢力은 「엥겔스」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獨逸 社會黨은 獨逸 政黨들 중에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다른 「유럽」의 社會主義 政黨 보다도 가장 強力했고 또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獨逸 社會主義 指導者뿐만 아니라 말단 構成黨員들에게 까지도 승리의 지름길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승리에는 獨逸 資本主義와 독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完全 성숙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2) 19世紀의 마지막 20年 동안에 제국주의 「러시아」는 비록 평탄하지는 못하나 빠른 産業化를 겪고 있었다. 이의 결과로 「러시아」의 지식층에 「마르크스」主義 思想이 퍼지기 始作했다. 또한 이 産業化로 인해서 小數의 혁신적인 正수분자에 의한 革命의 성공을 믿고 있었고, 경제발전 단계에서 資本主義 과정을 「러시아」에서는 뛰어 넘을 수 있다고 主張한 소위 “人民主義者” 운동의 퇴조를 가져왔다. 반면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러시아」도 資本主義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고 믿었다. 탁월한 「마르크스」主義 思想家인 「게오르크·플레하노프」의 指導下에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은 西「유럽」 특히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에 따라가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했고 또 「러시아」 資本主義가 발달할 때에 대비한 거대하고 강력한 政黨의 건설에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러시아」에 特有한 歷史的인 상속자로 남아 버리고 말았다. 그 동안 「레닌」은 1889年 發行한 <「러시아」에서의 資本主義發達>이란 책을 쓰고 있었다. 「레닌」은 populist 經濟學者들을 반박하면서 「러시아」는 資本主義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 資本主義의 歷史的인 역할이란 「러시아」 경제의 生産力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完全히 발전한 資本主義 制度는 그 대칭물로서 歷史的으로 전이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마침내는 社會主義로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19世紀末의 「레닌」은 대체로 「마르크스」主義 見解를 표명하고 있다.

3) 「레닌」의 「마르크스」主義에 대해 가한 수정의 窺점은 1902年에 간행된 그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자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실제 이 “修正”이란 말은 처음부터 「레닌」과 결부된 말은 아니고 저명한 獨逸 社會主義 理論家인 「에드워드·베른슈타인」과 결부된 말이었다. 「베른슈타인」은 폭력적인 혁명을 거부하고 部分的인 改善과 社會主義를 達成하기 위해 合法的인 鬭爭方法을 사용하기를 主張했다. 「베른슈타인」과는 完全히 달리, 그



리고 正統的인 「마르크스」主義者의 경향과도 다른 새로운 急進的인 「마르크스」主義 概念을 「레닌」은 發展시켰다. 1902年의 그의 책에서 「레닌」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는 世界革命의 先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한 조직적인 견지에서 보다 獨逸社會黨과 같은 大衆政黨이 아닌 populist들의 골수주의 政黨에 더 가까운 새로운 形態의 革命政黨 概念을 發展시켰다. 이와 같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革命은 政治, 經濟的인 發展과 社會의 성숙의 결과라는 「마르크스」主義의 基本信條를 修正해 나갔다. 「레닌」의 思想과 그의 政治的인 完고성은 1914年 以前의 「러시아」 「마르크스」 主義者들의 分裂을 가져왔고, 특히 「레닌」과 그의 「불세비키」黨은 「러시아」 혁명운동뿐 아니라 第1次 世界大戰의 발발과 1917年 末 「러시아」의 혼란상태는 「레닌」이 指導하는 小數黨 「불세비키」로 하여금 政權을 획득하게 하였다. 「마르크스」의 基本的인 가정에 「레닌」이 가한 修正은 대단히 重大한 意味를 가지면서 또 한 아주 逆說的인 것이다. 1917年부터 지금까지의 歷史記錄으로 보아 産業 發達 정도가 낮고 同時에 엄격한 의미의 「마르크스」的인 論理에 따른 社會 主義에 적합한 사회 성숙도가 낮은 國家일수록 共產小數集團이 政權을 획득할 기회가 많은 것이다. 「레닌」은 이와 같은 逆說을 제일 먼저 간파하고 그리고 「마르크스」主義를 그의 尙古적인 경제결정론으로부터 새로운 共產主義 革命論으로 修正한 今世紀 最初의 革命指導者였다.

## 2. 「레닌」의 黨 概念(No. 11)

1) 共產主義者는 그들의 指導理念을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부른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世界觀을 自己 것으로 만들고 이를 敎條로서 神聖化시키고 그리고 그 行動原理를 정교하게 확립했다. 이들 행동원리는 물론 「러시아」에서의 行動原理였으나 後에는 全世界的인 原理로 되었다.

2) 이번 강의는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1902年의 책에 重點을 두고 記述할 것이다. 當時 「러시아」社會民主黨員이었던 「레닌」은 두가지 問題를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마르크스」主義者는 勞動者의 經濟活動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政治活動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였다. 이는 다시 「러시아」 「마르크스」主義 政黨은 理念을 같이하는 모든 大衆에게 文호를 개방하는 大衆政黨으로 조직할 것이냐 아니면 小數이며 精髓로 된 淸모적인 조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問題였다. 그러나 「레닌」은 정치 투쟁과 小數 精髓 政黨을 택했다.

3) 그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理由는 그의 결정 자체 만큼이나 重要的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① 勞動者 集團은 그 자체로 방치하면 “革命的인 意識”을 갖기보다는 “勞動組合 意識” 정도 밖에 가질 수 없다.

② 혁명의식은 「마르크스」主義 理論에서 생기고 이 「마르크스」主義 理論은 「프롤레타리아」가 外部로 부터 습득할 수 밖에 없다.

③ “自發性”이 아니라 “意識”이 黨을 指導해야 하며,

④ 黨이 大衆의 “自發性”을 따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이며

⑤ “기회주의자”는 “혁명”에 배치된다고 하였다.

4) 그래서 「레닌」은 指導理念(或은 理論)을 가장 강조하고 혁명이론으로부터의 사소한 이탈도 없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人類는 두 指導理念 即 「부르조아」 指導理念과 社會主義 指導理念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社會主義 理論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실제로는 「부르조아」를 돕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5) 黨은 “職業革命家”로 構成된 小數의 꼭짜여진 조직이어야 하고, 黨은

① 上向式보다 下向式이어야 하며,

② 엄격하게 指導理念으로 囿쳐져야 하며,

③ “民主的인 中央集權制”에 의하여 지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中央委員會 결정 以後가 아닌 以前의 결정 같은 것).

6) 小數黨은 “大衆”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黨은

① “전달장치”를 유지해야 하며 (예를 들어, 黨이 重要的인 位置에 黨員을 배치하여 統制할 수 있는, 많은 大衆이 가입하고 있는 거대한 黨外組織 같은 것)

② 여러가지 다양한 形態로 단순한 思想을 반복 설명하는 “선전”에 치중하고 모든 구체적인 불만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불만으로 확대 조성해야 하며

③ 「프롤레타리아」만이 「프롤레타리아」아닌 大衆을 相對로 해야 된다고 했다.

7) 「레닌」은 黨을 하나의 전위로서 定義하였다. 即 이 전위는 必然的인 歷史 發展過程을 理解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指導해야만 하는 가장 진보된 人間과 「프롤레타리아」의 分層들이라는 것이다.

### 3. 權力掌握의 戰略(No.12)

1) 다음 내용은 「레닌」의 <두가지 戰術(Two Tactics)> (1905年)을 다룬다. 當時 「러시아」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러시아」 諸國의 전복시기와 그 革

命 方法에 對하여 論議하고 있었다.

2) 「마르크스」는 社會主義 社會 以前에 「부르조아」 社會가 오며 「부르조아」 혁명은 社會主義 혁명을 先行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불란서에서 1789년에 「부르조아」 혁명이 발생했으나 사회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러시아」를 「부르조아」 社會로서가 아니라 “反「아시아」的 社會”로 보았다. 이 “反「아시아」的 社會”란 資本家 계급이 아닌 中央政府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社會인 것이다.

3) 長期間을 기다릴 必要가 없이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當時의 「러시아」에 끼워맞출 수 있는 可能性을 「러시아」 「마르크스」 主義者들은 생각했다. 1905年 「트로츠키」는 이를 “英國의인 革命”이라 했고, 「레닌」은 이와 같은 「트로츠키」의 思想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4) 「레닌」의 反對黨인 「멘세비키」는 「부르조아」 혁명은 「부르조아」에 의하여 指導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는 대치된 상태에 그대로 머물면서 “밑으로부터의 壓力”을 수단으로 하여 영향력만 발휘하면 된다고 主張하였다.

5) 反對로 「레닌」은 「부르조아」 혁명도 그 성공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뒤따라 오는 社會主義 혁명을 위해서도 「프롤레타리아」가 指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부르조아」 혁명을 지도함에 있어 「프롤레타리아」는 절대 多數인 農民과 연합해야 한다고 했다. 「프롤레타리아」는 “아래로부터의 壓力”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農民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民主主義 독재체제라고 「레닌」이 말한 혁명적인 政府에 의하여 수행되는 “위로부터의 行動”에 依存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6) 이리하여 「레닌」은, 「마르크스」 자신에 의하면 「러시아」에는 맞을 수 없는, 「마르크스」의 歷史發展 圖表를 「러시아」에 적용시키려 하였다. 「마르크스」의 農民에 대한 見解와는 달리 「레닌」은 農民을 「부르조아」로 定義했기 때문에 그 政治體制를 “民主的”인 것으로 表現하였고 이는 어떤 歷史的인 일정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때에 혁명적 독재체제를 “民主的”이라는 말로 定義하고 있는 것이다.

7) 실제의 결과는 共產主義者들이 共產主義者의 구호가 아닌 農民의 구호를 들고 權力을 장악하기 바랐다. 그들은 農民의 土地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 주어야만 했으며, 同時에 그들은 後에 다시 農民에게 돌아와 土地를 몰수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궁극적인 共產主義 要求에 위배될 지라도 그들의 최저강령인 現在의 要求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小數의 최저강령을 수단으로 최고강령의 성취를 기도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8)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共產主義者들은 農民이 강력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취약한 地區에서도 共產革命을 기도할 수가 있었다.

#### 4. 未來의 共產主義 政權(No. 13)

1) 「레닌」은 1917年 여름 그의 黨의 執權이 거의 확실해지자 <國家와 革命>이라는 저서를 썼다. 當時 상황하에서 共產主義者들의 當面問題는 民主主義 政府의 樹立 여부라든지 全體大衆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勞働者 만이라도 政治權力에 참여 시켜야 하느냐 하는 問題보다도 어떤 形態의 政權을 樹立하고 그리고 舊政府의 기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 重要한 課題였다.

2) 「마르크스」는 未來의 社會主義 社會에 적용될 政治理論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國家를 계급 억압수단으로 定義하고 결국에는 枯死하고 없어질 과도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1871年 「파리콤문」을 最初의 「프롤레타리아」 政權의 例로 간주했다. 「엔겔스」는 이 「파리콤문」을 실제로는 直接 民主主義의 아주 急進的인 한 形態에 불과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한 표본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問題들이 「레닌」으로 하여금 1917年 「마르크스」의 國家理論에 대한 改造를 하게 한 것이다.

3) 「레닌」은 국가를 自由의 對立物이라 부르고 국가가 없는 곳에 自由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革命的인 「프롤레타리아」는 “國家를 必要로 하며” 이 국가는 “파괴”시켜야 할 것이 「부르조아」 국가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國家인 것이다.

4) 「프롤레타리아」 國家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체이며 이를 「레닌」은 계급투쟁의 수행에 必要한 폭력조직으로 定義하고 있다. “계급투쟁은 必然的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도달한다는 信念을 가진 階級만이 眞正한 「마르크스」主義者”라고 하며, 이 독재체제는 「부르조아」 民主主義 보다도 “훨씬 더 民主的”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思考과정을 통해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 “過渡期間”의 無限定한 연장을 주장하였다. 그는 執權 以後 이 과도기간 동안에 “계속된 투쟁”을 主張한다. 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以前의 일정기간동안 과도기적인 性格을 인정한 것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執權 以後의 과도기에 도 모든 生活은 과도기적인 性格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이 과도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例外的이며 투쟁이 그 全部이고 이 투쟁은 “연장기간”동안 계속된다 하였다.

6) 「레닌」은 과도기간은 人間과 社會의 發展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 기간은 人民이 國家機構 없이도 會計와 生産統制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연장되게 될 것이며, 人間은 集團勞動과 同時에 “때때로 생기는 잉여 生産物”의 公正한 처분이 可能하도록 人間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는 데까지 연장되게 된다. 그 後에는 이 잉여 生産物도 사라지게 되며 “法”도 不必要한 것이 될 것이라 하였다.

7) 그러나 「레닌」은 투쟁기간 동안의 強權政治論은 發展 시켰으나 항구적인 질서를 위한 政治理論은 發展시키지 못했다.

## 5. 世界政治 (No. 14)

1) 1916년의 <帝國主義論>은 「레닌」의 著書 中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책이다. 이 책은 英國人 「홉슨」의 저서 (1902年)와 「오스트리아」人 「힐퍼딩」의 저서(1910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레닌」은 이 책을 「第2인터내셔널」이 1次大戰의 발발을 방지하려다 실패하고 난 以後의 그 충격속에서 저술되었다.

2) 「레닌」은 이 단계를 “獨占 資本主義”라 부르며 그 性格을 아래와 같이 說明하고 있다.

① 獨占이 경쟁을 대치하며,

② 經濟는 小數 금융가의 손에 지배되고,

③ 資本의 輸出, 投資와 市場의 지배, 높은 이윤율로 노동착취를 하기 위해서는 獨占 資本主義는 海外領土의 지배를 必要로 하고 獨占이 公共生活의 모든 面을 지배하기 때문에 帝國主義的인 정부정책을 선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3) 「帝國主義는 資本主義가 最高度로 發達한 상태이며, 資本主義는 모든 국가를 그의 체제속으로 삼켜 버린다.」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① 많은 帝國主義 國家에 의한 世界의 분화와 재분화가 이루어지고 그 原因은 戰爭이며,

② 資本家가 勞動者를 착취하듯이 帝國主義 國家는 그 國家 全體가 다른 국가를 착취하는 하나의 “集團 資本家”化하며,

③ 全世界는 한편으로는 帝國主義 國家와 다른 한편으로는 착취당하는 被植民 國家의 양진영으로 나누어지며, 이 양진영간의 투쟁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간의 투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4) 「레닌」은 여기서 「베른슈타인」으로 하여금 「마르크스」의 思想에 修正을 가하게 하였다. 即 産業勞動者 계급의 富의 증가를 說明케 하였다. 「레닌」은 이 산업노동자 계급의 富의 증가를 獨占家들에 의한 “뇌물”의 공여로 규정

하였다. 「레닌」은 이 뇌물을 받은 勞動者를 “勞動貴族”(社會貴族)이라 부르고 그들이 資本主義 國家의 帝國主義 정책에 편승하는 限 “社會國粹主義者”들로 전락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5) 「레닌」은 <帝國主義論>을 다시 다음과 같이 定義내리고 있다.

① 歷史的 時代란 최고조에 달한 資本主義가 終末을 고하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박두한 때이며,

② 資本主義란 국가의 성질상 他國家와의 關係에서 보아 獨占 資本主義이며 제국주의이고

③ 國際政治란 帝國主義 國家 相互間,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와 그 植民 國家間的 적대의식 그리고 獨占 資本主義가 必要로 하는 海外植民地 支配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④ 그리고 社會主義 혁명은 이미 全世界化되어 있으며 계급과 계급간의 투쟁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투쟁으로 발전한다 하였다.

6)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事實과는 부합되지 않지만 상당한 影響력을 갖고 있으며, 特히 後進地域 人民들에게는 더욱 큰 影響을 주고 있다.

## 6. 戰 術 (No. 15)

1) 「레닌」의 <左派 共產主義>는 「第 3 인터내셔널」의 第2次 世界大會에 대비하여 쓴 것이다. 이 책은 特히 「레닌」이 “革命的인 外樣”이라 부른 하나의 새로운 偏向인 左派 共產主義를 淸급하고 있다.

2) 이 책의 中心 概念은 「프롤레타리아」執權 以後에 계속되는 투쟁에 대한 것이다. 그 內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급은 그 때까지 殘存하며 相當期間 계속될 것이고

② 가장 어려운 課題는 資本家와 地主의 除去 問題가 아니라 群小 生産業者의 除去 問題이며

③ 이 群小 生産業者의 強制的인 제거는 힘든 일이며, 이들과의 투쟁은 外形的인 “조화”를 지속하면서 長期間에 걸쳐 수행 되어야 하고

④ 이 群小 生産業者의 힘은 「레닌」이 “가공할만한 힘”이라 부른 “慣習의 威力”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3) 이와 같은 分析을 通해서 「레닌」은 아래와 같은 概念을 도출했다.

① 資本主義의 힘의 根原은 私有財産이 아니라 人民이 벗어나지 못하는 感情과 관습이다.

②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群小 生産業者가 資本主義의 가장 強力한

뿌리가 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단지 資本主義를 賃金勞動者에 기초를 두고 있는 大量生産 체제로 보았을 뿐이다.

③ 敵을 全面攻撃으로 파괴할 수 없을 때 共產主義는 敵과 共存하면서 長期間에 걸친 투쟁으로 이 적을 괴멸시키려 한다. 여기서 「레닌」의 共存 概念의 根原이 나오는 것이다.

4) 左派 共產主義를 비난하면서 「레닌」은 아래와 같은 共產主義의 實踐原理를 확립했다.

① 共產主義者는 「부르조아」機構에 참여하고 協同한다. 그러나 善意에서가 아니고 「부르조아」를 不信하게 하고 파괴하기 위해서이다.

② 共產主義는 항상 신축성을 갖고 協商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平和精神에 입각한 것이든지 또는 혁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③ 공산주의자는 모든 武器와 方法을 다 使用하며, 合法的인 수단과 非合法的인 수단을 共用해야 하고, 항상 合法에서 非合法으로 非合法에서 合法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5) 「第 3인터네쇼날」의 第 2次 世界大會에서 이 「레닌」의 實踐原理를 토의 채택하고 世界 모든 共產主義者들이 수행해야 할 義務事項으로 확정시켰으며, 이 때에야 비로서 共產黨의 단일한 世界戰略이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6) 1920年の 한 연설에서 「레닌」은 共產主義者의 道德律은 계급투쟁과 黨의 理解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規定하였다.

### Ⅲ 「레닌」 이후의 敎理

#### 1. 「스탈린」의 理念的 功獻(No. 16)

1) 비록 「스탈린」이 「소비에트·러시아」에서 格下되고 그의 著書들을 公式的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긴 하였으나 그의 理論은 「트로츠키」와는 달리 「트로츠키」의 理論은 破門과 同時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많은 공헌을 하였다.

「스탈린」의 主要한 理念的인 作品으로 「레닌」主義에 대한 그의 강의 <辨證法的이고 歷史的인 唯物論에 대한 그의 技術>, <소련 社會主義의 經濟的인 問題와 言語學>에 대한 소책자 등이 있다.

2) 1924年の <「레닌」主義의 기초>와 1926年の <「레닌」主義의 諸問題>는 「레닌」이 「마르크스」의 理論을 敎理로서 神聖化시켰듯이 「스탈린」이 「레닌」의 敎理를 神聖化시킨 것이다. 또한 「스탈린」은 자신이 몇개의 새로운 概念을 發展시켰다. 예를 들어 “밀물과 썰물”의 概念, 帝國主義의 敎理中 “가장 취약한 고리”의 概念 및 戰略과 “戰術의 概念” 등이다.

3) 共產黨史의 正式敎材 第4章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說明은 지금까지의 어떤 다른 說明 보다도 변증법적이고 歷史的인 唯物論을 가장 간명하게 理解시켜 준다. 그는 네개의 概念으로 변증법을 설명한다. 即

- ① 相關關係(모든 事物과 현상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 ② 進化(萬物은 流動하며 더 좋은 것을 지향한다)
- ③ 跳躍(發展은 급작한 大變動이나 跳躍에 의해 이루어 진다)

④ 矛盾(發展을 뒷받침하는 추진력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스탈린」은 即時 政治的인 結論을 도출하였다. 即 “정책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는 過去보다 未來를 指向해야 하며, 凱旋家가 아니라 革命家가 되어야 하며, 凱旋政策이나 조화정책이 아니라 확고 부동한 계급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스탈린」은 唯物論을 세가지 概念으로 說明한다.

① 世界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物質的이다. 即 “보편정신”은 存在하지 않는다.

② 存在하는 것은 人間의 精神과 無關하고 정신과 獨立된 객관적인 실



체가 있을 뿐이다.

③ 世界와 그 질서는 인간에게 충분히 理解 可能한 것이다.

다시 이로부터 꼬집어낸 결론은 政策的인 過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共產黨은 그 行動의 근거를 “抽象的인 人間의 理性論”에다 두지를 않고 生活의 구체적인 物質條件 위에도 두어야만 한다 하였다.

6) 1950年の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學>은 當時 黨에서 일어났던 言語에 대한 論爭을 유권적으로 終結시킨 것이다. 이 결과로 당시 소련의 指導的인 言語學者였던 「N.Y. · Marr」의 권위가 하루 아침에 몰락해 버렸다. 「스탈린」은 지금까지의 언어를 社會의 지배계급에 따라 변화하는 “上部構造”의 一部로 보지를 않고, 계급의 선을 넘어선 모든 人民의 共同所有物로서 보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스탈린」은 여기서 “世界言語”라는 말로 未來의 세계질서에 대한 그의 關心을 보여줌으로서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려고 했다.

7) <소련 社會主義의 諸 經濟問題>(1952年)는 「스탈린」이 소련 社會에 알맞는 經濟理論을 도식화시키려고 쓴 것이다. 「마르크스」와는 달리 「스탈린」은 價値와 商品生産의 法則은 비록 社會主義 사회라고 할지라도 長期間 유지될 것이라 主張하면서 “基本的인 社會主義의 經濟法則은 계속 증가하는 전체 社會의 物質的이고 本質的인 要求를 만족 시키는데 있다” 라고 公式化시켰다.

## 2. 「후르시초프」와 非「스탈린」化 (No. 17)

이번 강의는 歷史的인 증거를 토대로, 왜 「스탈린」의 後繼者들 특히 「니키타 · 후르시초프」가 非「스탈린」化 運動을 발단 시켰으며, 이를 계속하는가 하는 理由를 分析하는 데 있다. 아래의 세가지 主題에 重點을 두고 있다.

첫째, 「스탈린」主義의 여러 현상과 1953年 3月 「스탈린」의 死亡 후 걸어나타나지 않은 非「스탈린」化의 諸양상 둘째, 1956年 2月 소련 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행한 비밀연설로서 시작된 公式的인 非「스탈린」化 運動 셋째, 그 以後의 「러시아」國內과 국제적인 면에서 非「스탈린」化가 걸어온 길 등이다.

1) 「스탈린」 지배체제의 두드러진 特性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찰 기구를 국가내의 「국가」로 만든 극도의 독재와 공포 체제였다. 이 공포정책은 分明히 反 유대인적인 색채를 띠고 「스탈린」 末年에 準備되었던 새로운 流血 숙청의 時期에 특히 더 처참한 양상을 띠우고 있다. 둘째로, 조직적으로 이

루어진 「스탈린」개인숭배였으며, 이는 소련 社會를 歷史上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強力하게 응결된 社會로 만든 原因이었다. 세계의 性格은 「스탈린」이 本來부터 갖고 있는 실로 病的인 不信感 때문에 黨과 行政官僚로된 두개의 경쟁적인 執行組織이 發生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 要因 때문에, 「스탈린」의 末年에 가서, 소련 社會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정도로 얼어붙게 된 것이다. 「스탈린」은 國內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以前의 獨立 國家들인 中歐와 東歐의 국가들에게도 폭력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艱 目的인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고 이 국가들을 소련에서와 같이 社會的으로 政治的으로 硬化시켜 버렸다. 著名한 歷史家인 「보리스·니콜라예프스키」가 말한 바와 같이 「스탈린」의 “편집광적인 독재”는 「러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위성국에서 까지도 발생할 可能性이 있는 잠재적인 폭발의 씨앗을 그 속에 內 包하고 있었다. 「스탈린」의 이와 같은 支配性格을 잘 아는 그의 후 계자들은 「스탈린」의 死後 即時 새로운 國內外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소위 “集團指導制”가 새로운 「엔티테제」로 제기되었다. 과도한 경찰의 횡포는 줄어들고, 행정관료에 대한 黨의 우위가 強化되고, 文化生活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보가 이루어졌다. 위성국 「헝가리」같은 데서도 이 “새로운 과정”이 허용되었으며, 韓國動亂은 休戰이 成立 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事實들은 죽은 독재자 「스탈린」을 비판하지도 않고 조용한 가운데 進行되었다.

2)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個人支配를 비난하기 始作한 것이 「스탈린」 비난의 결정적인 第一歩가 되었다. 1956年 2月 24日 밤을 기해서 과도한 경찰의 횡포는 중지되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공격하였다. 「후르시초프」에 의하면, 이 個人 숭배는 革命의 合法性, 黨의 指導原理를 뒤집어 엮는 중대하고 심각한 과오의 원천이 되었다고 主張한다. 당료에 대한 폭력을 비판하면서 소련내에 살고 있는 모든 人民의 大量 학살 행위를 비난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스탈린」은 너무 경직되었다고 공박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에 대한 비난은 「스탈린」이 共產黨에 대해 저지른 과오에 비해 그 限界가 있다. (1934年 以前의 非共產主義者에 대한 「스탈린」의 숙청은 혁명적인 必要性에 의한 것으로서 사멸되었다) 이와 같이 「스탈린」과 그의 惡毒성을 공격함으로써 이를 利用하여 「후르시초프」는 共產黨이 集團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중앞에서 이를 용서하려고 획책했던 것이다. 「스탈린」主義에 대한 해독제는 순수한 「레닌」主義에로의 복귀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罪惡으로부터 자신을 빼돌리고 共產主義 規律에 호소하면서 「후르시초프」는 그의 位置를 더욱 公고히 하

였다.

3) 「후르시초프」의 非「스탈린」化는 即時 소련의 國內外에서 각각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國內에서는 비록 단기간이었으나 「후르시초프」가 기대한 결과를 얻었다. 반대로 中歐와 東歐의 위성국에서의 반항은 파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이 非「스탈린」化의 비난이 대중봉기, 좀 덜한 경우에는 대중봉기에 가까운 形態로 發展해 갔으며, 마침내 「후르시초프」는 軍事力에 의해 「헝가리」 혁명을 분쇄하여야만 했었다. 다른 共產主義者들 특히 中共과 「이태리」 共產黨은 「후르시초프」의 非「스탈린」化 연설을 극히 비판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1956年の 참패는 다음 해인 1957年 소련의 새로운 승리로서 상쇄되고 말았다. 이 새로운 승리는 「후르시초프」의 영향력과 權力을 그 最高頂上에 올려 놓았다. 이해 6月 「후르시초프」는 그의 가장 強力한 경쟁자를 除去하는데 성공했으며 가을에는 最初의 소련 大陸間 탄도탄의 실험을 성공리에 끝마쳤고, 人類最初의 人工 위성 「스푸트니크」가 궤도에 올려졌다. 11月에는 「볼셰비키」 革命 40주년을 記念하고 새로운 소련의 軍事的이고 技術的인 業績을 축하하는 世界 共產主義者 頂上會談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다음 2年間に 새로운 난관이 國內外에서 발생하기 始作하여 「후르시초프」의 非「스탈린」化 운동의 근본적인 애매성을 입증하기 始作했다. 一面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비난함으로써 어떤 形態의 것이든 安全변을 얻 셈이며 또한 「스탈린」主義의 不合理한 面을 除去했고, 이는 소련에서 共產支配의 本質을 유지하는데 必要한 유일한 方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同時에 그는 교묘한 對外政策으로 中東과 「유럽」에서 민중봉기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련의 영향권을 확대 시켰다. 반면 오랫동안 소련뿐 아니라 全世界 共產主義者들로부터 명실공히 神格化되어 있던 「스탈린」을 病的인 살인자로 낙인 찍음으로서 소련 共產黨의 理想的인 권위를 弱化시키고 공산 진영의 단결력을 해이하게 하였으며 소련 社會 內部에 구심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그의 主觀的인 의도야 어디 있었든간에 그 결과로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歷史的인 과정이 그로 하여금 始作 되었던 것이다.

### 3. 新綱令(1) (No. 18)

1) 1961年 소련 共產黨은 新綱令을 채택하였다. 이는 黨史에서 세번째의 綱令이다. 첫번째는 1902年이며, 두번째는 1919年 이었다. 黨은 한 歷史的인 紀元이 끝나고 새로운 紀元이 始作된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綱令을 채택하는 것이다. 소련 共產黨의 綱令은 全世界 共產主義者들에게 重要한 意味

를 갖게 하는 것이다.

2) 하나의 간명한 世界情勢의 分析이 이 새로운 綱畧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資本主義는 그 “最高 發展段階”中的 “第3局面”에 돌입했으며, 이 “第3局面”은 「팻시스트」政權, 軍國主義, 새로운 形態의 “新聖同盟” 世界警察로서의 美國의 역할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反面 世界革命 運動에는 “民族解放 運動”이 附加 되었으며, 世界의 勢力均衡은 資本主義에게 불리해 졌고, 資本主義의 몰락과 共產主義의 승리는 바로 目前에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 新綱畧의 계획을 세부분으로 묶어 볼 수가 있다. 即 執權方法과 共產主義者의 權力機構 그리고 世界 社會主義者의 組織등인 것이다.

### ○ 執權方法

3) 綱畧은 現在 共產主義者의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執權이 可能할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는 「레닌」의 이른바 武裝봉기의 必要性을 修正하는 것이다. 即“平和的인 競爭”을 통해서 “몇 億의 人類”는 共產主義가 最高의 制度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핵무기의 폐지라든지 “확대 民主主義”같은 大衆에 영합되는 目標을 主張함으로써 議會主義的인 方法으로 執權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일단 執權에 성공한 후에는 共產主義는 “議會밖에서 광범위한 集團투쟁을 벌여” 적의 “저항을 분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4) 두번째의 戰略的인 계획은 “民族解放 運動”과 同盟하는 것이다. 「레닌」은 農民과의 同盟을 가르쳤으나 農民은 “浮動 하기 때문에 마치 敵과 같이 감시 해야만 한다”고 警告를 하고 있다. “民族解放 運動”과의 同盟에도 이와 똑같은 論理가 적용된다. 綱畧은 “民族解放” 鬭爭은 民族의 獨立을 爭취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民族의 民主主義” “經濟的인 自主權” “政治的인 獨立” 이 達成될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세번째의 계획은 左派「부르조아」分子 (社會主義者, 平和主義者, 急進的인 民主主義者 等)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서「구라파」에서의 共產主義者들은 이 左派「부르조아」分子들로부터 數的인 힘을 기대했다. 共產主義者들은 “勞働계급의 단결” “軍備축소” “平和” “民主主義的인 權利” 等의 표어를 통해 左派「부르조아」에 영합하려고 했다.

6) 네번째의 戰略的인 原理는 “急進的인 改善”인 것이다. 「레닌」은 戰略的인 目的이 아닌 경우에는 결코 共產主義者는 「부르조아」社會의 改善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一般的인 改善”을 넘어서는 “急進的인 改善”은 黨의 훌륭한 目標가 된다고 主張한다. 이 “急進

的인 改善”에는 戰爭準備의 포기, “광범위한 産業의 國有化” “急進의인 土地改革” 등이 포함되어 있다. 綱令은 이와 같은 方法으로 共產主義의 最後 승리 以前에도 “戰爭을 追放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 4. 新綱令 (2) (No. 19)

##### ○ 共產主義者의 權力機構

1) 綱令은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는 이미 끝났다고 宣言했다. 실제로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다음 事項을 意味하고 있다.

- ① 共產黨의 權力獨占
- ② 黨目的을 위한 共產黨의 機能
- ③ 立法과 司法의 黨의 戰略的 要求에의 종속
- ④ 執權 수단으로서의 暴力

그러나 陽性的인 暴力이 陰性的인 暴力으로 되었다는 것 以外에는 變化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2) 綱令은 새로운 國家概念으로 “社會民主主義”를 주장했다. 처음 共產主義 理論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以後의 國家形態에 대하여는 說明한 적이 없다. 실제 “社會民主主義”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政府 指導體系의 週期的인 교체
- ② 公職의 3年 任期制度
- ③ 月給制의 감소와 時間制 給料의 권장
- ④ 直接的인 政府의 強制에 대신하는 “大衆의 영향”

이와 같은 革新은 中央集權者群에 적용이 된다면 民主主義의 기초가 될 수도 있으나 만약 下位組織에만 적용된다면 이는 中央支配者들이 그들의 하부 官로 組織을 統制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인 것이다.

3) 綱令은 “社會組織”들이 이미 政府의 機能들을 떠맡기 始作했으며 이로 보아 “국가의 몰락”이 始作 되었다고 선언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국가기능의 移越뿐 아니라 위와 같은 국가기능의 退化도 생각했던 것이다. 綱令은 국가의 機能을 社會組織에 移越시키고 국가가 黨의 統制下에 들어감과 같이 이 사회조직도 黨의 統制下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4) 綱令은 共產黨의 公式的인 문헌 중 最初로 “基本的인 人間的 道德基準”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共產主義에서 항상 그러하듯이 어떤 특정한 공산주의자의 道德基準를 정하고 이 가운데 제일 重要的 것은 공산主義의 大義에 헌신을 要求하는 것이었다.

## ○ 世界的 社會主義 組織

5) 이는 “社會主義者의 故鄉(소련)”을 대신하는 概念이다. 모든 社會主義 國家는 “獨立의이며 서로 對等하다”. 그러나 社會主義 發展의 “客觀的인 法則”에 구속된다. 이 때문에 소련 연방은 항상 “最先進國”이며, “人民民主主義”는 약간 後進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 變形인 것이라 하였다.

6) 모든 構成國家는 社會主義的인 經濟體制를 가지며, 政治的으로는 “勞動者 階級의 支配” 體制이며 共同理念, “革命의 收穫”을 嚮위 하는데 있어서의 共同理解 關係 그리고 共同目標(即 共產主義)를 갖게된다. 이것은 “孤立된 狀態”에서의 社會主義 建設은 반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 綱令은 이 社會主義 체제가 가져야 할 共同政策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內외의 敵에 대한 警戒, 高度의 經濟成長率, 적진의 통일을 파괴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 5. 毛澤東의 理念的인 貢獻(No. 20)

共產主義의 哲學的이고 戰略的인 面에 대한 毛澤東의 公헌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共產主義者들 뿐 아니라 非共產主義者들까지도 神話와 같이 모택동에게 그 공헌을 돌리고 있는 약간의 잘못된 點들을 除去해야만 할 것이다. 變證법적인 唯物論에 관한 얼마 안되는 모택동의 著書 中에는, 소련인의 著書를 中國語로 번역한 內容과 部分的으로는 剽竊한 것이 많다. 그의 哲學作品의 背景을 이루고 있는 소련의 影響과 作品의 內容을 엄밀히 分析해보면 모택동이 이 分野에 공헌한 것은 거의 全無한 狀態인 것이다. 또한 모택동은 共產主義의 戰略的인 面에 대한 實제적인 公헌도 한 것이 없다. “社會主義下에서의 非敵對的 모순의 概念”을 도출한 것도 모택동이 아니라 「레닌」이었으며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할 때 이 問題에 關하여 「후르시초프」가 행한 說明을 모택동은 약간 正밀하게 概念化시켰다) “革命的인 民族 「부르조아」와 共產主義者의 잠정적인 同盟” 그리고 共產主義者의 執權鬭爭 中 農民의 이용은 「레닌」의 思想이었지 모택동의 思想은 아니었다. (以上의 두 경우에서 中國 共產黨 特別히 모택동은 이 기초적인 「레닌」主義의 原理를 적용했으며 正교하게 다듬었다. 이 原理는 처음에는 약간 난관에 부딪혔으나 1922年 부터 無條件으로 받아 들여졌다.)

中國과 같은 나라에서 「레닌」의 戰略的인 思想을 적용하는 데에는 구체화시킬 수도 없었던 많은 戰術的인 問題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戰術分野에서 모택동은 中國 共產黨과 함께 과감히 이의 시험에 뛰어 들었다. 여기에서 그

는 이 새로운 모험을 체계화하고 概念化 시켰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의 공포분위기 조성 形態, 民族主義 운동에의 침투와 그 기만방법 등) 모택동의 가장 重要的 思想은 長期間 계속되는 내란을 수행하는 특이한 方法으로서, 理念的이고, 經濟的이며, 社會的, 政治的, 軍事的인 모든 복합수단을 사용하는 「게릴라」 戰法의 구상이었다. 이 戰法은 특별한 대중에의 接近方法을 必要로 하며 특히 신축성있는 機動戰 形態를 취하게 된다. 世界 各國語로 번역된 모택동의, 〈村落에서의 공포조성〉, 〈民族主義 指導者에 대한 기만방법〉, 〈「게릴라」 戰法의 思想〉 등은 世界도처의 共產主義者와 親共產主義者, 革命 行動家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왔고 또 주고 있다. 이와 같은 思想들이 人間을 集團 노예화 시키는 처참한 공헌인 것이다.

## IV 共產主義 敎理에 關한 反應

○ 共產主義에서의 理念의 역할 (No. 21)

1) 共產主義의 原動力은 理念인가? 아니면 理念은 단지 걸치레에 불과한 것인가? 따라서 이번 강의는 共產主義의 眞正한 動機는 理念에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또 다른 見解도 있다.

2) 위의 가정과 다른 여섯 가지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① 過去의 共產主義者들은 理念에 의지하고 理念을 신봉했으나 現在는 이미 그렇지 않게 되었다. “革命的인 熱意”를 상실하고 말았다.

② 理念은 수시로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빙성있는 說明이 되지 못하고 있다.

③ 理念은 단지 權力수단에 不過하다.

④ 共產主義者의 실제 關心事는 理念的인 것이 아니라 産業社會의 問題들이다.

⑤ 共產主義者의 精神을 說明하는 것은 「소비에트·러시아」의 理念이 아니라 그 계급 구조인 것이다.

⑥ 共產主義者의 참된 동기는 理念이 아니라 「러시아」의 民族主義이다.

3)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여러가지 問題들을 하나하나 理念化 시키는데 많은 努力을 해온 것이 事實이며, 그들은 이를 說敎하고 理念的인 用語를 사용하고 그 眞理性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을 무시하는 사람은 理念的인 동기가 아닌 다른 事實에 더 가까운 무엇이 있다는 先入觀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4) 理念은 구체적인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世界觀으로서 共產主義者들에게 活動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世界觀으로서의 主要한 성격은 아래와 같다.

① 歷史에서의 現時代는 잘못된 時代이며 부패된 時代이고 곧 파멸할 運命에 처해진 時代라는 생각

② 歷史에서 앞으로 닥쳐올 時代만이 眞實하며, 옳고 完全히 善하며 그리고 同時에 그 到來가 불가피 하다는 생각.

③ 이 두 時代 사이의 變化는 未來의 힘이 現在의 힘에 대한 계속적이



고 和解不能인 투쟁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며 終局에는 未來의 힘이 승리한다는 생각

이와 같이 볼 때 共産主義者들의 世界觀은 本質的으로 歷史觀인 것이다.

5) 共産主義者들에게 黨은 지대한 理念的인 意味를 갖는다. 즉 :

① 政治的인 組織으로서만이 아니고 人類의 전위대로서의 意味를 가지며,

② 그대로 두면 혼돈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世界에서 유일한 眞理의 根源이며,

③ 모든 행동의 범위 뿐 아니라 精神的인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6) 理念만이 典形的인 共産主義者의 生活 態度를 說明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의 생활 태도는 무엇인가?

① 모든 것에 대한 의심

② 非共産主義的인 人間과 事物에 대한 敵對意識.

③ 어떤 패배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성.

④ 순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축성과 目的追求에의 부단성(불굴성) 등이다.

7) 理念的 本質은 :

① 理念的인 政策(宗教政策, 農民政策, 經濟政策, 對美政策 등)과

② 理念이 共産主義者들에게 책임을 부과 하는 方法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 第2章 共產政權

### I 「러시아」의 共產黨史

#### 1. 1917年 以前の 「러시아」 革命(No. 22)

##### 1) 知識人들의 革命運動 :

「러시아」 革命思想의 根源인 知識人들의 革命運動은 100年 以上の 歷史를 가지고 있다. 現代의인 意味의 知識人의 革命運動은 18世紀 말엽 「알렉산더 · 래디셰프」에 이르러서이다. 「래디셰프」의 생애는 군주와 지식계급 간의 새로운 關係를 說明해 주고 있으며 當時 知識階級의 指導者들은 君主의 후견으로부터 상당히 獨立되어 있었고 王權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었다. 「래디셰프」의 急進論은 例外的인 것이었으며 一般的인 온건한 改革派들은 專制君主로부터 적당한 양보만 획득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이와 같은 희망은 「카사린 · 파울」(Paul) 統治末期에 「알렉산더」 1世에 의하여 完全히 절망적인 것으로 되고 말았다. 12月黨(Decembrist)의 반란은 君主에 대한 知識階級의 最初의 革命적인 努力이었다. 이 반란의 실패 이후 知識階級 사이에 많은 論爭이 발생하고 이 論爭의 바닥에는 불란서의 合理主義보다 獨逸 觀念哲學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變化로부터 1830年과 1840年代의 西歐化主義者 對 「슬라브」 愛鄉主義者의 論爭이 발생하였고, 이 논쟁은 19世紀 후반의 모든 政治思想의 흐름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슬라브」 愛鄉主義者는 宗教, 政治, 社會制度 等に 表現된 「러시아」 文化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未來의 發展을 向해 「러시아」가 걸어야할 특별한 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西歐化主義者는 「러시아」의 길을 거부하고 「유럽」의 例를 따라 모든걸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40年과 1850年代의 이 西歐化主義者들은 哲學的으로는 唯物論者들이었으며 政治的으로는 社會主義者들이었다,

##### 2) 1850年 以後의 急進論 :

西歐化主義者와 「슬라브」 愛鄉主義者간의 論爭 다음에는 「러시아」 社會思想의 新紀元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新紀元은 「알렉산더」 2世의 統治에서 始作

된다. 西歐化主義者나 「슬라브」愛鄉主義者나 모두 「皇帝」가 그들이 主張하는 改革論을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1850年 후반과 1860年 초반에 온건한 政治思想을 가진 사람들은 「알렉산더」 治下에서의 改革의 步調에 실망하게 되었다. 當時의 경향은 改革問題에 대해서 훨씬 더 急進的인 思想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으며 君主와 온건 知識人 改革家들을 분리시키는 政治思想들이 계속 極化되고 있었다. 自由主義的인 목소리는 힘을 잃어가고 대다수의 自由主義者들은 政治的으로 保守民族主義者로 進향했으며 朝廷에서의 保守民族主義者들의 견해는 계속 강화되고 있었다. 반면, 革命思想은 몇 단계의 열광적인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人民主義(populism)에 이르렀으며 이 人民主義는 當時 「러시아」 急進思想의 主流中 가장 오래 지속된 思想이었다. 人民主義는 많은 다른 思想에서 그 내용을 빌려오고 있었으며 知識人들의 人民에 대한 義務, 「러시아」의 특수한 運命과 社會發展단계 그리고 「유럽」과 世界의 표본이 될 새로운 社會건설에 있어서 특별한 農民協同機構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1870年代의 이 人民主義者 運動은 두가지 상태와 直面하게 되었다. 最初의 그리고 非組織化된 “人民에로의 복귀” 운동은 경찰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두번째의 그리고 1876년에 조직된 土地와 自由人民主義者의 黨 以後의 운동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들의 실패 이후 1879年 人民主義는 분열하여 1881年 「알렉산더」 2世의 암살을 주도한 폭력集團(人民的 意志派)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단기간이었으며, 그 指導者는 「마르크스」主義者로 進향한 흑색 재분할파(Black Repartition)가 되었다.

### 3) 「마르크스」主義의 登場：革命反對派의 成長

人民主義의 실패 이후 1880年代는 걸으로는 아주 조용한 시기였었다. 그러나 그 심부에서는 「러시아」 急進主義의 主流에 「마르크스」主義의 強力한 影響력을 심어준 새로운 「마르크스」主義者 集團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1898년에는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이 最初로 창설되었다. 「社會民主主義者」들은 비록 急進的인 革命主義를 강조하고 1903年 이후 그 急進的인 革命思想에다 「레닌」主義라는 특수한 이름을 붙이기는 하였지만 當時는 구라파의 社會民主黨들의 指導에 따르고 있었다. 이 社會革命主義者들은 以前의 人民主義者들이 강조하던 農民의 역할, 政治的인 聯邦主義, 政治的인 恐怖主義 등을 계승하고 있었다. 최초로 노동자와 農民과 그리고 당시의 政治制度를 전복시키는데 協力할 수 있는 社會集團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거대하고 조직화된 혁명정당의 출현을 보게된 것이다. 同時에 1890年代 후반부터 專制

君主制에 도전하는 急進的인 自由主義도 출현하게 되었다. 自由主義는 1860年代 후반에 그 勢力을 상실 했었으나 19世紀 후반에 와서 地方自治制와 새로운 職業계급의 출현으로 재건되었던 것이다. 온건한 地方議會 指導者들에 대한 政府의 조치는 오히려 地方議會運動의 경험적인 自由主義를 약화시켰고 1890年代 후반과 20世紀初의 急進的인 自由主義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파울·밀유코프」(Paul Miliukov)가 이 自由主義의 指導者였었다.

#### 4) 1905年 革命에서 世界大戰까지 :

1905년의 혁명은 人民主義者가 「마르크스」的인 社會主義者들과 自由主義者들을 융화시켜 政府에 反對하는 共同戰線을 形成하게 했으며, 또한 1905年 10月 30日 「10月宣言」으로 나타나게 했던 것이다. 「10月宣言」은 反對黨을 분열시켰다. 即 急進的인 自由主義者들(Kadets)과 「멘세비키」들은 의회에 참여하고 「볼셰비키」와 社會革命主義者들은 계속 혁명을 追求하게 되었던 것이다.

1906年 봄의 新議會에서 「카데트」들이 政府와의 協商을 거절하고 急進的인 民主主義 制度를 主張하자 議會는 해산되었다. 그 동안 혁명적인 暴力主義者들과 極右 民族主義者들로 因하여 政情은 몹시 혼란하였으며 安定된 立憲 君主國의 수립은 좌절되고 말았다. 1907年 以後부터 始作하여 政府는 農地 改革을 실시하고 革命을 진압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기 始作했다. 「러시아」혁명운동은 警察活動과, 革命勢力 自體內의 批判과 論爭으로 因하여 퇴보하는 것 같았다. 1907年부터 世界大戰時까지 自由主義者들이나, 社會革命主義者들이나 社會民主黨員들 모두가 자체내의 黨派的인 논쟁과 세력감퇴로 因하여 失意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政府는 그 때까지도 혁명운동이 번성할 수 있는 풍토를 제공해주는 社會的 政治的 諸問題를 해결하지 못했을뿐더러 「스톨리핀」(Stolypin)과 같은 政府指導者까지도 혁명적인 暴力主義者들에게 除去되는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 露日戰爭에서 발생한 전국가적인 혼란은 혁명의 水門을 열게 되었다.

## 2. 1917年 以前の 黨史(No. 23)

### 1) 「러시아」의이고 「유럽」的인 急進主義 :

「러시아의」知識계급은 「마르크스」主義 출현 훨씬 以前부터 하나의 전통으로서 「유럽」으로부터 急進思想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르크스」思想은 1880年代와 1890年代에 그 思想自體의 性格과 當時의 人民主義者(Populists)들이 가져다 준 실망감 때문에 그 영향이 커지기 始作했던 것이다.

## 2) 初期의 「러시아」 「마르크스」主義 歷史 :

最初의 「러시아」 「마르크스」主義 思想은 「스위스」에서 「게오르그·플레하노프」(George Plekhanov)에 의하여 始作 되었다. 그는 <社會主義와 政治鬭爭(Socialism and Political Struggle)>(1883)에서 政治權力의 획득을 가장 重要한 目的으로 主張했다. 그의 <우리들의 차이점(Our Difference)>(1883)은 人民主義와 「마르크스」主義를 구별하고 있다. 「러시아」産業의 發達과 「유럽」社會黨의 發展은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 運動을 강화시켰고 나아가서 1890年代에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의 창당을 보게 하였다.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의 창당大會 直後 편집부의 체포가 뒤따랐고 組織과 理論 面에서 黨運動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正統的인 「마르크스」主義, 經濟主義, 그리고 혁명적인 「마르크스」主義의 3대 주류가 1898년부터 1903年間に 黨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 3)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블라디미르·울리아노프」(Vladimir I. Ulianov) 즉 (레닌)은 革命的인 「마르크스」主義者 集團이 주도권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中心的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03年 「부투스」와 「런던」에서 열린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 제 2차 총회에서 혁명적 「마르크스」主義者는 승리하게 되었다. 이때 「RSDLP」黨은 黨의 組織과, 理念과, 戰術的인 問題들에 대한 意見差異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리되었다. 「레닌」은 黨의 선전기관의 장악에 실패하고 드디어(1904年 12月)獨立된 「볼셰비키」集團인 「Union of Committees of the majority」를 組織하였다. 1904年末 「레닌」은 黨의 조직과 黨의 理論에 대한 概念을 확정 公式化시켰으며, 이는 「볼셰비키」를 「멘셰비키」로부터 永遠히 분리시키는 기초를 제공한 것이었다. 「레닌」은 「러시아」 계급 구조와 계급투쟁의 성격을 특수하게 定義하고 「부르조아」와 自由主義者에 대한 지금까지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역할을 부인하고 農民에게 특수한 任務을 부여했다. 그는 資本主義 단계를 社會主義에 의하여 곧 대체될 짧은 過渡期間으로 다시 定義하였다.

## 4) 黨의 再統合을 爲한 努力 :

1905年의 革命은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를 분리시켰다. 「볼셰비키」는 (10月 宣言)以後 社會革命主義者들과 연합하여 혁명투쟁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러나 「멘셰비키」는 新議會를 準備하는 中 自由主義者들과 연합하였다.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를 再統合 할려던 努力은 「RSDLP」 第3次 大會(스톡홀름, 1906年)와 第4次 大會(런던, 1907年)에서 모두 실패로 끝났다. 理論的

이고 戰術的인 상이점들로 因하여 再統合이 不可能했던 것이다. 「레닌」은 드디어 1912年 1月, 黨을 분리하고 「볼셰비키」의 참여도 없는 대회를 열고 이를 第6次 「RSDLP」大會라 부르게 되었다.

#### 5) 「레닌」과 世界大戰 :

大戰의 임박과 더불어 혁명의 기회는 거의 무망한 상태에 있었다. 戰爭의 발발과 더불어 「볼셰비키」는 社會民主主義 運動에서 동조자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볼셰비키」는 戰爭을 지지하지 않았다. 「레닌」은 「스위스」에서 反戰 社會主義 世界機構를 조직하기 위하여 活動하고 있었으며 資本主義의 最高 發展단계로서의 <帝國主義論>을 발간하고 동시에 帝國主義 戰爭은 市民戰爭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 6) 「볼셰비키」黨의 性格 :

「볼셰비키」는 1917年 革命前夜까지 完全한 意味의 「黨」이라 할 수는 없었다. 「레닌」은 黨全體가 自己의 主張을 따르기를 바라면서 最終的인 分黨을 연기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2年の 그의 行動은 黨의 동료로서 그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켰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레닌」 이외에 다른 탁월한 指導者가 없었다. 「레닌」은 복종과 이론의 획일성을 主張하였으며 「볼셰비키」黨은 그가 혁명행위의 수단으로 구상한대로 中央集權化되고, 혼란된 集團인 黨의 모형태로 조직되었다. 드디어 1917年 혁명의 기회가 왔다.

### 3. 1917年 「러시아」 혁명(No. 24)

#### 1) 두차례의 革命活動 :

1917年에 두차례의 혁명활동이 있었다. 即 2月의 帝國의 전복과 10月の 임시政府에 대한 「볼셰비키」의 「쿠타타」였다. 이 2月과 10月간의 복잡한 事件들은 「러시아」 혁명의 本質을 보여주고 있다.

#### 2) 臨時政府 :

3월에 조직된 임시정부는 세가지의 重要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即 첫째로, 효율적인 指導力의 확립과 民主主義 체제의 준비였으며 둘째로, 帝國의 전복과 더불어 強化되기 시작한 政治的이고 社會的인 여러 갈래의 革命主流를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로는, 戰爭問題를 다루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와 양립해야 했으며 有能한 官吏, 경찰, 軍隊가 不足했다. 地方政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했다. 軍隊는 1917年 늦여름부터 가을까지에 급속히 붕괴하기 始作했다. 臨時政府의 戰爭政策의 수

#### 44 共產政權

행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 戰爭政策은 自由主義者와 社會主義者로 因하여 많은 대중에게서 불만을 사게되었다. 1917年 가을 임시정부는 국방정책의 유지에 실패하였고 軍隊는 붕괴되고 있었으며 戰爭政策은 不信을 받게 되었다. 이 軍隊의 붕괴는 9月 「코르닐로프」(Kornilov)가 지도한 반혁명 「쿠데타」의 실패로 因하여 더욱 加速化되었으며 村落에서의 農地改革으로 軍隊의 해산始作이 急速化 되었다.

##### 3) 戰爭과 土地問題 :

임시정부는 社會的, 政治的 여러혁명 분파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 지도자들의 이 問題에 대한 연관과 戰爭에의 몰두로 因하여 많은 방해를 받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農民問題에 있어서 임시정부내의 社會主義者와 自由主義 指導者들은 立憲國會의 개최시까지 연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農民들의 自發的인 토지몰수 행위에 부딪치자 自由主義者들은 토지 수탈행위의 연기를 생각했고 社會主義者들은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채로 「소비에트」의 統制下에 두기를 願했던 것이다. 이 두가지 方法 모두 실패했으며 土地改革이 최고조에 달한 10月에는 한달만에 전체 토지의 42%를 農民들이 몰수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불세비키」혁명시에는 거의 個人 所有地는 사라지고 없었다.

##### 4) 勞動問題 :

都市 勞動者들의 不安定性은 「인플레」와 격심한 실질임금의 감소로 더욱 악화 되었으며, 「인플레」는 2月革命 以後 계속 악화되고, 2月과 10月간에 물가는 100%나 등기되므로써 노동자들은 反政府 선전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工場에 대한 勞動者 支配運動은 「불세비키」와 無政府主義者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광범위한 工場 接受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工場의 폐쇄와 실업의 증가를 일으켰다.

##### 5) 小數民族 問題 :

임시정부의 社會主義者와 自由主義者들은 「폴란드」의 獨立에는 意見이 일치되었으나 「핀란드」와 「우크라이나」의 獨立要求에 대하여는 임시정부의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이었으며 차라리 聯合, 聯邦國家를 構成하여 그 속에서 小數民族의 獨立을 허용하는 方法을 바라고 있었다. 이와 같은 政策때문에 임시정부는 小數民族 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상실했던 것이다.

##### 6) 臨時政府의 沒落 :

모든 면에서 임시정부는 실패작이라 할 수가 있다. 효율적인 政府의 構成에도 실패했고, 자체의 권위를 확립하는데도 실패했으며, 「러시아」가 當面한 重要한 問題를 해결하는데도 실패하였다. 노동자와 농민과 小數民族 集



團間에 革命勢力이 強化되기 始作하자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에 길을 열어줄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 7) 「볼셰비키」 革命 :

「레닌」은 4月 3日 「러시아」로 돌아와서 <4月 論文(April thesis)>을 發表하고 戰爭政策의 거부, 즉각적인 平和의 要求, 그리고 「소비에트」에 귀속된 權力을 主張함으로써 「볼셰비키」를 다른 社會主義 政黨과 完全히 구분하였다. 7월에 있는 약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는 3월에서 10월까지 계속 強化되었다. 10月初에 가서 「볼셰비키」의 平和와 土地와 民族自決의 구호들은 광범위한 同情을 얻게 되었으며 「페트로그라드」와 「모스코바」의 「소비에트」뿐만 아니라 다른 組織의 支配도 可能하게 되었다. 10月 10日 革命 수행 결정이 이루어지고 24일 혁명이 발단되었다. 임시정부는 그 前의 帝政 政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방어하는데 無力함을 입증했을 뿐이다.

### 4. 革命後의 黨의 支配(No.25)

#### 1) 發展 3段階 :

「소비에트·러시아」는 1917년부터 1932년까지 3단계를 거쳐 發展하여 왔다. 即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의 政治權力 強化와 內亂期間, 1921년부터 1928까지의 新經濟 政策期間 그리고 그 以後의 第1次 5個年 계획기간인 것이다.

#### 2) 權力的 強化 :

權力 強化期間 동안의 「볼셰비키」는 소수의 軍事力과 소규모의 黨勢였었다. 「볼셰비키」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立法을 실시하였다. 土地를 國有化 시키고, 工場을 勞動者들이 支配하게 했으며, 小數民族에게는 民族自決을 선언했고, 즉각적인 平和를 約束했던 것이다. 「레닌」은 政府權力 기관에 非「볼셰비키」 社會主義者의 참여를 거부하고 初期부터 비밀경찰조직(Cheka)內에서 대규모의 검열을 실시했다.

#### 3) 公約 履行의 失敗 :

1918年 봄, 勞動者, 農民 및 小數民族에 대한 公約의 취소와 「보레스트·리토프스키」條約에서의 과대한 양보는 많은 集團으로 하여금 「볼셰비키」에 대한 組織的인 反對로 나타났다. 즉 1918年 1月부터 始作하여 南에서는 「우랄」, 北에서는 「시베리아」에서 발생하였고, 同年 여름에는 西北地方에서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問題들은 연합국의 介入과 「러시아」에 대한 獨逸의 계속적인 도발행위로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 4) 內亂에서의 勝利 :

비록 단기간에 사라져 버리긴 했으나 1918年 11月 獨逸의 革命은 「유럽」에서 새로운 혁명적인 전망을 갖게끔 하였다. 연합국의 개입 포기 결정은 1919年 봄부터 始作된 소위 白軍의 반격을 약화시켰으며, 20年末에 이 白軍의 반격은 完全히 붕괴되었다. 1922년에 가서야 戰前 帝國時代의 모든 地域에 걸쳐서 「볼셰비키」의 勢力이 다시 회복되었다.

#### 5) 新經濟 政策의 導入 :

성급한 社會主義化 계획과 내란의 영향으로 1921年代의 소련 경제는 말할 수 없는 혼란상태에 빠졌다. 1921年 3月 第10次 黨大會에서 「레닌」의 新經濟政策을 승인하고 農民에의 양보부터 始作하여, 차차 그 범위를 넓혀 갔려고 했다. 「레닌」은 이 新經濟政策을 黨이 經濟의 最高 統制權을 장악하는 반면 農業과 工業에서 個人企業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生産性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方法이라고 생각했다. 이 新經濟政策의 도입은 黨内外에서 광범위한 政治的인 반발을 동반했던 것이다.

#### 6) 經濟發展과 그 論爭 :

戰前 수준의 農業生産은 1926년에야 達成되었고, 工業生産은 1927년에 達成되었다. 그러나 農業에서의 單位當 生産高는 여전히 낮은 상태였으며 곡물은 不足했음에도 수출하고 있었다. 農業生産은 소규모의 영농과 자극(Incentive)의 不足, 工業生産品의 가격양등 등에 의하여 지지 부진 하였다. 工業은 광범위한 실업, 저능률, 높은 生産原價, 저수준의 成長率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農業問題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은 共產主義 理論의 限界性 때문에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限界性에도 불구하고 1925年과 1926년에는 이 努力의 일환으로 農民의 個人所有에 좀 더 많은 양보를 허용하게 되었다. 1927年 12月 第15次 黨大會에서 合意한 農業과 工業政策은 重工業과 輕工業을 同時에 다같이 重要視하는 均衡된 産業發展政策이었으며 또한 서서히 自發적으로 農業의 集團化를 확대시키는 政策이었다.

이 政策은 28年과 29年 새로운 「스탈린」 路線에 의하여 代替되고 말았다. 「스탈린」은 1920年代에 論議된 主要한 經濟政策 路線에 끝까지 집착하지 않았다. 그가 「트로츠키」에 대항할 때는 左派 指導者 「지노비예프(Zinoviev), 카메네프(Kamenev) 등과 제휴했으나 1925年 「트로츠키」를 權力의 자리에서 축출하고 난 後는 左派에 反對해서 右派 指導者 「부카린」(Bukharin), 「톰스키」(Tomsky), 「뤼코프」(Rykov)들과 제휴하였다. 1927年末 黨에서 左派를 除去하고난 후 그는 다시 右派 指導者들에게로 화살을 돌리

면서 新政策을 準備했던 것이다.

#### 8) 소련 社會에서의 黨 :

1920年代의 黨은 소련 社會生活의 모든면 특히 宗教, 教育, 文化, 小數民族等의 면에서 그 세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었다. 回教, 正教, 回教 및 유대教 等의 宗教의인 集團의 運命은, 그들 종교적인 기구가 국가에 예속 되었으며, 教育에서의 영향력이 박탈당했으며, 聖職者는 감소하고 소련 社會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教育에서의 主題(Main themes)는 세속화와 실험과 政治權力에의 종속이었다. 教育機關의 形態는 高等教育을 위한 것으로 發展하였다. 文化面에서는 광범위한 實驗作業과 상당한 관용이 허락되었다. 단지 노골적인 反共產主義 主流들만이 순수文學에서 除去되었으며, 1920年代에는 이 純粹文學 分野에서 발달한 씨앗을 보게 되었다. 學問의 分野에서는 「마르크스」主義的인 사조가 中心이 되었으나 非 「마르크스」主義 學者들에게도 發表權은 허용 되었다. 1924年の 憲法은 연방정부적인 것이 아니라 中央集權的인 헌법이었다. 이 결과로 小數民族은 엄격한 意味의 自治權을 박탈당하고 中央集權的인 政體를 갖게 되었다. 소수민족 自治의 실패는 黨의 中央集權的인 性格과 「스탈린」의 思想때문이었다. 단지 限定된 文化分野 即 純粹文學에서만 小數民族들의 獨立精神이 表現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純粹文學에서의 表現도 1920年代 後半에 가서는 급격히 제한되었던 것이다.

#### 9) 黨에서의 「스탈린」의 승리 :

新經濟政策 期間동안 성공적인 경제문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탈린」의 黨機構 장악과 함께 그 시도도 終末을 告하고 말았다. 黨員이 150萬을 초과하고 1921년에 비해 그 영향력이 소련사회에서 광대하게 強化된 黨을 「스탈린」은 完全히 장악하게 되었다. 宗教組織은 국가에 예속되었으며, 教育機關은 국가의 統制下에 들어가고, 小數民族은 中央集權的인 憲法下에서 조직화되고 말았다.

#### 10) 第一次 5個年 計劃 :

「스탈린」은 1927년부터 1929년까지 그의 새로운 經濟政策을 실시할 準備를 始作하여 29年 12月부터 과감히 실천하기 始作하였다. 農業의 集團化는 전체적으로 農民生活를 變形시켰으며 2千 5百萬이나 되는 農場을 20萬의 「콜호즈」로 줄여 버렸다. 工業化는 公業생산을 倍加 시켰고 전체적인 산업 경제의 사회화를 가져왔다. 이 1차계획의 성취는 農業人口와 工業人口의 대규모적인 조직화와 많은 人命을 앗아간 무서운 기근의 代價를 치르고서야 達成되었다. 農民의 所得은 1920年代 이하로 떨어졌으며 産業 勞動者들은

「인플레이」와 소비재, 주택의 부족 등으로 막심한 실질 임금의 저하를 겪게 되었다. 대중의 저항에 대해 政府는 더 심한 조직화로 응답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1차계획 기간 동안의 특성이 아직도 소련 사회생활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발생케 하였던 것이다.

#### 4. 「러시아」에서의 黨의 支配(1932~1961) (No. 26)

##### 1) 「스탈린」의 指導力 확립책 :

1次 5個年 계획이 끝나는 1932년부터 2次大戰 발발시까지 소련은 전체주의 체제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農民과 勞動者들에게 주어졌던 自由의 범위는 거의 전무상태로 되었으며, 強制勞動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소련경제의 특성을 이루게 되었다. 경제 계획의 결함은 「스탈린」의 指導力에 대한 반항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숙청을 불러 일으켰다. 소련 全體主義는 完全한 성숙단계에 도달했으며, 1920年代의 양보는 거부되고 말았다. 都市人口는 倍加 되었으며, 政府官吏는 五倍以上으로 증가되고, 1920年代의 共產主義 實驗作業은 끝나고 말았다.

##### 2) 世界 第2次大戰의 위협 :

2次大戰은 共產黨에서의 가장 큰 하나의 도전이었다. 戰爭으로 因해서 나타난 도전은 軍事的인 것뿐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 戰爭은 黨으로 하여금 強力한 軍事力의 再組織化를 기하게 하였고, 産業시설을 「우랄」地方과 東部로 이전하게 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民族主義를 포함해서 선전기관을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小數民族들을 영합시키고 宗教的인 면에서 양보를 하므로서 대중들로 하여금 政府가 하고 있던 戰爭 수행을 後方에서 도울수 있도록 하였다. 戰爭은 소련 政府가 위기에 처하여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력, 조직력 및 강제와 훈련能力 등을 보여 주었다. 戰爭의 終末과 더불어 未來에 대한 광범위한 낙관론이 대두되었다.

##### 3) 戰後時期 :

政府의 新政策路線에 대한 희망은 戰爭末期에 와서 실망으로 남게 되었다. 이 新政策路線의 그 重要한 것들을 들여보면, 知識人의 組織化, 初期經濟계획 기간의 方法에 의한 경제의 재건과 확대, 小數民族에 대한 박해와 숙청 그리고 당기구의 확대와 強化 등이었다.

##### 4) 知識人의 組織化 :

知的, 文化的 政策에는 귀환 노동자와 戰爭포로의 고립과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共產主義 당파성의 확립과 문학, 영화, 사회과학 및 自然科學 分

野에서 강력한 反西歐的인 주제의 확립에 目標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政策으로 많은 文化界의 지도자들이 大衆의 모멸을 받고 地位와 수입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追放되기도 하였다.

#### 5) 經濟의 재건과 팽창 :

産業政策은 第1次의으로 재건에다 目標을 두고 重工業生産의 倍加와 産業工場의 現代化에 주력하였다. 勞動政策은 低賃金, 長時間의 勞動, 勞動者 福祉의 外面 등으로 나타났다. 農業政策에서는 生産性的 복구가 지연되었으며, 勞動意慾을 자극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기구를 활용하고 農場을 超集團化된 農場으로 統合 시키는데 努力하였다.

#### 6) 小數民族 問題 :

小數民族들은 그들의 民族主義에 反對하고 西方側과의 關係를 이간시키는 대규모적인 선전활동을 감내하여야만 했다. 「발틱」諸國과 西部「우크라이나」地方에서는 終戰 以後 상당기간 동안 「게릴라」活動이 지속되고 있었다.

#### 7) 黨內的 變化 :

黨의 指導體系는 「스탈린」을 頂點으로 高位層에서는 安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6년부터 1948年 사이에 제 2계층의 간부급에서 내분이 발생하였고 第19次 黨大會에서 극적으로 고위간부층의 내분이 表面化 되었으며 이로 인해 후에 「스탈린」은 고위지도층의 鞏固를 위한 대규모적인 음모를 準備하게 되었다. 이 음모는 「스탈린」의 死亡으로 끝나버렸다.

#### 8) 스탈린 後期 :

「스탈린」後期の 가장 重要한 것들은 黨의 指導力 問題, 소련과 東歐 위성국과의 關係, 中共과의 問題, 知識人과 産業과 農業의 發展問題 등이었다.

#### 9) 指導體制의 方向 :

1953年 7月 「베리아」의 숙청과 1955年 2月 「말렌코프」의 除去와 함께 「후르시초프」의 黨政策 代辯者로의 進出로 集團指導制에 대한 열망이 뒤따라 일어났으며, 1957年 6月 黨最高會議에서의 그의 숙청과 그 후의 일련의 事態로 보아 비록 「스탈린」과 같은 權力和 전횡은 不可能 할지라도 1人의 手中에 權力을 集中시키는 것 같아 보였다.

#### 10) 東구라파와 中共 :

1953年 「체코」와 東獨에서의 붕기는 東구라파의 共產지도자들과 人民에게 광범한 양보를 하게 하였으며, 이는 第20次 黨大會에서 행한 「후르시초프」의 연설로 더욱 악화되어 1956年 「항가리」 의거와 「폴란드」에서의 붕기를 일으키게 한 발효제가 되었다. 「항가리」혁명의 鎮壓 以後 東구라파에서의 소련의

統制力이 조용히 침식을 당하고 소련의 支配로부터 좀 더 많은 獨立을 바라는 共產 指導者들의 努力이 증가하게 되었다. 中共과의 關係에서는 1958年과, 60年 中共의 國內政策을 둘러싼 論爭에서 그 두드러진 성격을 볼 수 있으며 60年 以後부터는 理念的이고 戰術的인 問題에 대한 意見의 차이가 더욱 심해져 62년에 가서는 關係 단절로 發展할 것 같은 징후까지 보이게 되었다.

#### 11) 知的 生活 :

知的 生活에서 그 선두는 文學이 담당하고 있었다. 文學作品的 복구 및 가능한 범위의 확대와 그리고 文學에 關心을 갖는 주제(Theme)의 증가 등은 상당하였다. 知識人의 조직화에 대한 비판이 自然科學과 社會科學 分野에서 나타나므로써 不合理한 統制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1956年の 事件으로 다시 많은 압박을 받았으나 일반적인 추세는 自由의 폭이 조금씩 넓어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黨에서 조심스럽게 統制를 하였으며, 항상 政治的인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 12) 農 業 :

農業政策에서는 重大한 失策을 솔직히 인정하고 곡물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처녀지 개발과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集團農場으로의 統合化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63년 가을에 이르러 「스탈린」死後 거의 한 世代 以上 農業政策에 실패했음을 자인하였다.

#### 13) 工 業 :

53년부터 60년까지 약간의 消費材 生産을 포함하여 工業은 急速度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60年代 初에 와서 成長率은 감소하기 始作하였고 勞動力의 不足, 現代的인 産業分野 特히 化學分野와 「플라스틱」分野의 낙후성과 같은 問題에 直面하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生産工場의 더욱 큰 現代化가 必要하게 되었다. 계속적인 西歐의 技術的인 우위는 소련 産業 指導者들이 실제로 느끼는 事實이었다. 일반적인 經濟政策에서는 工業力이 계속 팽창하는 징후를 보였다. 그러나 이 팽창은 제도적인 구조를 共產主義 理論에 좀 더 일치시키면서 능률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 불리는 努力과 農業生産性의 증대와 고도성장률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14) 現今의 추세 :

60年代의 初半期에 이르러서는 黨의 統制가 줄어들고 강제수단(特히 法的인 수단)의 사용이 완화된되었으며, 西方側과의 接觸이 많아지고 생활수준이 약간 향상 되었으며, 政府의 重要한 問題들 뿐만 아니라 市民들에게도 많은 變化가 있었다.

## II. 소련의 政治, 經濟, 社會 實態

### 1. 소련의 權力機構(No. 27)

소련 共產黨은 소련 市民이면 누구나 다 入黨할 수 있는 그런 組織이 아니다. 소련 共產黨은 아주 엄격히 정선된 市民만이 그 加入이 허용되는 정수 분자의 조직이다. 그 전체 黨員은 소련 市民의 약 4%에 해당한다. 소련에는 다른 정치조직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共產黨만이 權力을 獨占하고 있다. 이 獨占의인 共產黨은 세 部分으로 構成된다. 첫째, 下部의 平黨員으로, 이들은 黨의 政策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그들 상급 黨員의 命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장교와 같은 職業黨僚들의 지휘를 받는 政治的인 兵士들이인 것이다. 이들 직업당료들은 最高司令部와 같은 高位 指導者들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당료들은 政策의 수행을 담당하는 반면, 政策의 立案은 엄격하게 黨지도층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이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은 그 결정이 어떤 것이든간에 당원과 전체 소련 人民에 의하여 無條件 수행되는 것이다. 셋째, 高位 指導者들은 黨「中央委員會」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委員會의 構成員이나 혹은 書記職을 맡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중 극소수(바로 이 극소수의 지도자들이 最高의 지도자들이다)는 最高會議의 委員으로서의 기능과 中央委員會의 書記로서의 양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위 지도자들의 전체적인 숫자는 25名내지 26名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 25~6名의 人員이 소련연방을 지배하는 과두체제를 形成하는 것이다. 이 高位 指導者들의 權力에 대한 合法的인 도전이란 不可能하다. 그 理由는 黨內에서의 反對派의 組織은 黨憲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여기는 경우는 추방되며, 동시에 소련사회에서는 共產黨 以外的 黨은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黨의 政策에 대한 비판은 反「소비에트」적으로 간주되며, 이는 憲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소련에서의 선거제도는 「소비에트」立法機構內에서 反對黨이 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職責이 어떤 職責이든 그 職責에 선임될 후보자는 단 한사람만 지명하는 것이다. 黨이 지원하는 이 후보자는 反對派가 없는 선거에서 결코 낙선할리 없는 것이다. 소련에서의 선거 통계는 지난 수세대 동안 이를 이와 같이 똑같은 결과를 단조롭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卽, 99%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99% 이상이 입후보자에

찬성투표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기관은 항상 黨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것이다. 行政府도 이와 똑같이 엄격하게 黨의 統制를 받으며 黨은 또한 餘他的 소련 市民의 회합들도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10월혁명 이후 서서히 구축되기 始作하여 「스탈린」 治下에서 강화된 이와 같은 支配체제는 아직도 강력히 그대로 있다. 그러나 「스탈린」 이후 새로운 方法을 고안해 내었다. 즉 이전에 사용하던 무차별한 대중 폭력을 없애고, 정보와 선전 수단을 통한 대중설득의 方法과, 기대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方法으로서 黨에서 지도하는 社會壓力的 活用方法을 택하고 있다. 지금의 소련 시민들은 경찰압력의 공포때문에서가 아니라 黨에서 지시하는 행위 規準과 이웃이나 동료 노동자들이 집회에서 퍼붓는 대중 징벌의 두려움 때문에 복종 하는 것이다. 「스탈린」의 공포도, 「스탈린」後期の 社會壓力度, 소련 시민들(社會의 이상적인 공산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形의 人間으로 改造시킬 수가 없었다. 소련의 신문들은 소련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단점의 실례를 가득 싣고 있다. 「소비에트」의 統治가 47年이나 된 지금에도 소련 인민은 다른 나라의 人民들과는 달리 불변전한 성격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2. 소련 경제의 背景(No. 28)

소련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소련이 標準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에(항상 分明히 表現은 하지 않지만) 가능한 범위까지 소련 經濟의 구조와 그 業積을 理解함이 重要하다.

### 1) 歷史的인 背景 :

1913年 以前, 소련은 일면 상당한 産業化를 이룩하였으며 急速한 經濟發展의 準備가 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當時를 휩쓸던 經濟的, 社會的, 革命的 풍토가 可能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가 적용될 수 있고 支配力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今世紀까지 「러시아」는 “「아시아」적인 國家”로서 「짜르」는 모든 權力的 根源이었으며 組織의 中心이었었다. 全國土의 農를 「짜르」가 所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의 2%만이 貴族들의 所有로 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짜르」를 中心으로한 귀족계급과 농민계급으로된 두개의 계급사회였으며, 농민계급은 전체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대와, 관료와, 교회는 모두다 「짜르」의 손발 노릇을 하였다. 1860年頃 주로 小商人과 匠人으로 「부르조아」가 구성되었으며 農奴制度는 그때까지도 原始的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8世紀末의 「러시아」는 당시의 다른 어떤 外國과도 같은 정도의 産業化는 되어있었다. 그러나 「러시



아]의 사회主義로 因하여 19世紀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정도의 發展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農奴解放 以後 貴族勢力은 弱化되고 「부르조아」勢力은 強化 되었다. 70年代와 80年代부터 一次大戰 直前까지 産業化는 急速度로 進전되었다. 20世紀初에 土地의 합병과 더불어 「有福한 農民」의 強力한 集團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혁명 前까지 「러시아」는 世界에서 優秀한 工業國家였다. 그러나 그 勞動力의 80%는 農業에 투하되는 상태에 있었다.

2) 理念的인 배경 :

「마르크스」와 「레닌」의 經濟學은 社會主義를 건설적인 면에서 전개시킨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를 주로 파괴적인 면에서 分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 경제조직과 그 政策은 全 權力을 장악하려는 黨의 必要性和 國力의 기초인 生産을 증대하려는 黨의 욕망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黨은 社會에서 봉건적이고 「부르조아」적인 要素를 파괴하고, 人間을 재창조하려는 理念的인 目的 때문에 활동한다. 最後로 黨은 「마르크스」主義의인 分析, 특히 「勞動價値論」, 「地代論」, 그리고 「부르조아」로부터 생산수단을 탈취하면 “착취”가 사라진다는 主張 等에 의하여 精神的인 감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

3) 地理的인 배경 :

소련은 광대하고 美國 大陸의 거의 3배나 되며, 農業의 不適性을 제외하고는 훌륭한 自然資源의 근거지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領土는 너무 춥고 산이 많으며 건조하여 農業의 發達에는 부적당하다. 營農은 그 넓이가 약 100萬平方「마일」 정도의 三角地帶에서만 可能하며 이는 全國土의  $\frac{1}{8}$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삼각지대안에 人口의 90%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삼각지대에도 土質이 나쁜 곳이 많으며 기후는 한랭하고 작물 재배 기간이 짧아 美國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3. 소련의 經濟構造(No. 29)

소련 經濟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에 의하여 계획, 지도되며 또 그 활동의 대부분이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企業에 의하여 수행되는 극단적인 社會主義 경제체제의 한 實例이다. 여기서 共產主義와 社會主義는 同一하지 않다는 事實을 알아두어야 한다. 共產主義는 社會主義를 必要로 하지만 사회주의는 꼭 共產主義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即 社會主義 經濟는 그 뜻하는 바로 보아 共產主義 理念에 집착하지 않는 集團이라도 그 수립이 가능한 것이다. 社會主義 運動과 共產主義 運動은 각각 서로를 거부해 오고 있다. 「마르크스」主義 經濟思想은 소련의 經濟政策을 形成하는데 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소련에서 資本은 無利子로 국가 所有 企業에 제공되며, 土地 또한 政府가 所有하며 地代없이 사용된다. 個人은 自己가 판매할 生産品의 生産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으며 싼가격에 물건을 사서 좀 더 비싼 값으로 팔 수도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價値論에 따라, 소련에서는 평범한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기초로 하고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이 기초에 比例하여 정하려고 한다. 소련 經濟活動의 組織形態에는 세가지가 있다. 卽 국영기업과 協同企業 그리고 극소수의 1人企業이 그것이다.

形式的인 意味에서, 協同企業이란 공동투자자와 또한 이윤과 결손에 대하여 공동 부담하는 노동자 연합체에 의해서 所有되고, 운영되는 企業體인 것이다. 이 協同企業은 形式으로 보아 協同農場과 같은 것으로, 農村 小賣組合과 지방 방제산업 및 農業分野에서 특히 발달되어 있다. 이는 産業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經工業 生産에서는 50%를 상회하며, 特定用役産業 分野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한 용역이나 補修分野에서 發見되는 1人企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企業活動은 國家所有 企業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협동기업 역시 국가통제를 받으며 국가가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을 결정하며, 협동기업의 성과를 전국가 계획에 포함 시킨다. 中共을 제외하고(中共은 한 經營方式에 의하여 조직된 集團 中 歷史上 그 규모가 제일 크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組織은 각료회의가 指導하고 있으며, 각료회의는 基本政策 결정에 重要한 역할을 하는 最高會議을 갖고 있다. 이 각료회의 밑에는 活動 執行部署와 計劃監督部署로 나누어져 있다. 활동 집행부서는 각료에서부터 출발하여 중간기구를 거쳐 하위 실제집행기구에 이르는 중직조직으로 될 수도 있고 하위로 내려가면서 각료회의를 본단 協同조직으로 될 수도 있다. 最終 生産 單位인 企業은 法人體로서 政府로부터 土地와 資本을 받아 自己 名義의 生産業務를 수행한다. 실제의 모든 기본적인 결정은 계획부서의 관리들이 내린다. 계획과 감독부서는 거대한 조직을 갖고 회계의 집계와 분석통계와 예산자료, 협동활동, 업적평가, 최고회의의 광범위한 政策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등의 基本的인 기능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마치 美國에서 예산절차를 따라 會社를 經營하는 방식과 같아 보인다. 다른 점은 범위가 훨씬 크며 重點을 두고 있는 분야에는 금융적 통제가 아닌 물자의 유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절차는 복잡하고 성가신 것이지만 그런대로 움직이고 또 개선될 것이다. 소련에서는 政府가 투자를 하며 이 財源을 租稅로서 확보한다. 가장 중심이 되는 稅金은 移轉稅로서(판

매나 소비제와 같은것) 生産에서 分配에 이르는 과정 중 여러 곳에서 부과된다. 소비제화에 대부분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주로 農業 生産品으로 부터이다. 이는 퇴보현상으로서 농민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되어 오고 있다. 노동만이 국유화되지 않은 유일한 生産要素이다. 노동자의 最終的인 고용자도 국가이며 노동자의 生活水準을 결정하는 것도 국가이지만, 보통은 自己職業을 自己가 求하고, 企業은 必要勞動力을 자기 스스로 확보한다. 노동자는 임금의 차이 혹은 임금 이외의 자극제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더 必要한 곳을 선택한다.

#### 4. 農業과 農民(No. 30)

共産主義가 執權하는 곳에서는 항상 農民이 “最大의 敵”이었다(레닌의 말) 그렇기 때문에 農業은 항상 共産政權에서는 “最大의 弱點”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도 교묘하고 비극적인 發展의 後期에 가서야 그렇게 된다. 이 교묘하고 비극적인 발전은 3단계를 거친다 即;

1) 共産主義者들은 권력투쟁 중에는 貧農에게 무상으로 土地를 제공하겠다고 約束한다. 이와같이 하여 그들은 村落에서 革命目的을 위한 大衆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權力을 장악하고 난 後는 그들의 政權을 強化하기 위하여 土地를 分配한다.

3) 政權이 完全히 強化되고 난 後가 되면 農民들의 소규모 경제단위를 長期間 지속 하겠다던 公約을 파기하고 강제로 새로운 形態의 大農場인 集團農場으로 土地를 이양시키고 공산관료가 그 支配權을 차지하며 중전보다 훨씬 많은 農村의 生産物을 전체주의 국가가 빼앗아 간다.

드디어 共産主義者들은 第4단계 作業(即「콤포」의 設立)을 착수하려고 한다. 이 「콤포」에서 農民들은 私有經濟의 마지막 殘存物인 극소량의 땅과 가축까지도 박탈 당하고 단지 거대한 國營農場에서 노동하는 農業勞動者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레닌」이 소련에 「콤포」를 設立하려고 몇번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으며 「스탈린」에 이르러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다. 全國的인 규모로 「콤포」를 설립하려 했던 中共의 계획은 심한 위기를 조성하고 엄청난 集團農場의 부활을 가져오고 끝나 버렸다. 非共産國家의 貧農들은 共産主義者들의 토지제공 약속을 다른 각도에서 받아 들인다. 일부 농민들은 이 土地 分配를 不安하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받아 들인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보통 “土地改革”으로 시

골 貧農運動을 선동한다. 集團化 以後 農民은 사유재산에 기초를 둔 耕作意慾이 없어지므로 심한 반발을 하게된다. 이와 같은 農業의 特性 때문에 農村經濟는 심한 위기를 겪게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時間的으로 지속적인 工業과는 달리 農業은 공간적으로는 확산되어 있으며 時間的으로는 주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集團農場의 共產支配者들이 農民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農民의 無誠意로 인하여 소련과 동구라파에서와 같은 조방농업을 하는 국가에서도 그 생산성은 극히 저조하며, 또한 中共과 越盟과 같이 水利시설이 되어있고 高度의 集約農業을 하는 국가에서도 그 生産性은 부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속되는 토지위기는 상당히 큰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갖게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心理的, 政治的, 軍事的, 부정효과는 국제적으로 重要的 政治 및 軍事的인 위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重要性을 갖는 것이다.

### 5. 소련 經濟의 業積(No. 31)

우리가 解答해야 할 問題는 소련의 經濟的인 業積이 소련의 經濟組織 形態의 우수성을 실제로 인정하리만큼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對答을 이번 講義에서 다루고 있다. 그 結果는 否定的인 것이다. 지금까지 소련이 이루어 놓은 성과는 50이나 걸린 것이며, 이는 急速히 變化하는 오늘에 있어 상당히 긴 期間에 해당한다, 소련의 業積은 괄목할만한 것이긴 하지만, 같은 期間에 美國과 其他 다른 국가도 역시 괄목할만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소련이 이루어 놓은 業積中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高度의 工業 成長率(특히 重工業 分野에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가장 弱點이 되고 있는 것은 同一한 期間中 美國民의 生活水準은 거의 3倍나 向上 되었으나 소련인의 生活水準은 거의 變化가 없다는 것이다. 소련 經濟의 急速한 成長은 고도의 투자율과 勞動力의 큰 팽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소련의 業積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部分的으로는 共產主義 制度 때문이라는 事實을 알고 있어야 한다. 戰爭期間 동안에 共產주의는 經濟를 거의 황폐화시켰으나 新經濟政策 期間에는 경제의 팽창과 회복으로 거의 戰前水準에 가깝게 도달 하였다. 初期의 양차에 걸친 5개년계획 기간의 經濟成長은 소련에서 가장 눈부신 것이었다. 처음 1次 5個年계획 기간은 거의 戰爭 동원에 비유될 만큼 대규모적인 變化와 혼란이 있었던 기간으로 많은 勞働者의 이동과 생산품의 질의 저하, 배급화를 가졌왔고 生産性의 向上도 없었다. 소비자의 生活水準은 1913년에 비하여 반으로 떨어졌다. 2次 5個年計劃期間

중에서야 勞動 生産性的의 상당한 向上을 보게 되었다. 양차의 계획기간 중 年間 平均 工業生産量 증가율은 12~16%였다. 우리가 이를 戰爭動員 기간으로 볼때 美國에서 戰爭動員期間인 39년부터 44년까지 이룩한 年間 工業生産 증가율을 보면 16~17%임을 알 수 있다. 第3次 5個年 計劃期間(이때는 대속청기간이었으며, 2次 大戰의 공포가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다)에는 發展이 거의 없는 실패기간이었다. 2次 世界大戰은 소련 經濟에 치명타를 가했다. 4次 5個年 計劃으로 經濟는 회복되고 49년에 가서야 戰前水準에 도달 하였으며 이는 일본, 불란서, 서독의 부흥과 비교할만한 業積인 것이다. 5次 5個年 計劃은 그 成長 속도로 보아 2차계획 다음 간다. 이 期間동안 生産性的의 증가는 소련 사상 最高를 기록했다. 55年 이후부터 계획에 난관이 생기기 始作하여 近年에도 生産高와 成長率이 問題가 되어왔다. 56年の 6次 5個年 計劃은 2年後 포기되고 말았으며, 이를 계속한 7個年 計劃은 以後 연장되어 일반적이고 단순한 계획효과만 남기게 되었다. 最近 소련 指導者들은 經濟成長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계속 크게 갖고 있지는 않다. 28년부터 55년에 이르는 全期間동안, 소련의 年平均 工業成長率은 美國의 거의 두배나 되었다. 이는 소련의 큰 業積이긴 하지만 약간의 分析과 說明이 없이는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 統計的으로 보아 經濟發展에는 發展하는 “段階”가 있다. 소련에서의 急速한 産業發展도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이 發展 “段階”에서 일어났다. 例를 들어 美國은 이 단계를(重工業 分野의 急速한 成長) 19世紀 後半에 겪었다. 그러나 30年代의 소련의 發展速度와 같지는 않았다.

2) 소련이 急速한 經濟發展을 하기 위하여는 그 技術水準이 상당히 落後되어 있었다는 유리한 利點이 있었다.

3) 2次大戰 以後 다른 나라들(일본, 대만, 서독, 회랍, 불란서, 「이태리」 등)도 소련의 成長率을 능가할 정도로 혹은 비슷한 정도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이점에서는, 50年代 후반과 60年代 初期 美國의 發展은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다시 소련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로 돌아가면 먼저 그와 같이 거대한 企業을 指導·管理하는 問題가 제기된다. 美國에서는 이와같이 큰 企業을 관리하는데는 “統制機構”(통계와 회계자료의 적합한 사용)를 활용하고 行政業務를 分權化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소련에서도 이 처음의 方法은 可能하며 상당히 개선되어 활용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곤란이 있다. 그러나 두번째의 方法은 소련 共產黨이 소련 經濟의 모든 局面을 完全統制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불가능한 것이다. 분권화는 경영관리인이 업적을 평

가할 수 있는 적당한 測定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소련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소련에서의 가격은 꼭 그대로의 실제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投入의 효과적인 선택이 어렵게 된다. 더구나 이 문제는 자본과 토지는 그 가격이 없다는 敎理的인 주장 때문에 더 힘들게 된다. 공산주의 이론상에도 “사회주의” 단계에서 노동과 관리를 고무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자극제의 활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자극제(관린인에 대한 “이윤” 같은 걸 포함하는)를 활용 한다고 해서, 소련이 “자본주의”화 한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경제제도로서의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은 토지와 자본을 국유화하고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중앙에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별다른 반대 없이 당이 공산주의의 목적을 향해서 경제를 지도할 수 있는데 있다. 최근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하등의 변화도 찾아 볼 수가 없다.

## 6. 소련에서의 법과 범죄와 그 처벌(No. 32)

이번 강의는 첫째로, 一般的인 法概念 둘째로, 「마르크스」주의 法理論 셋째로, 이 法理論이 소련에서 適用되고 있는 實例를 研究하는데 있다.

1) 法の 概念: 法은 規範의 實體, 強制制度, 司法節次 등으로 規定된다. 이와 같이 定義를 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은 세가지 問題가 提起된다. 即, 法の 根源은 무엇이며, 法の 性格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法の 目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法哲學에서는 이와 같은 問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選擇的 解答을 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問題視하는 것은 소련의 法理論이 提供하는 解答인 것이다. 이 解答을 우리는 一般的인 소련의 法理論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2) 소련에서의 法概念: 法에 關한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特點은 法은 倫理나 宗教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觀念體系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法은 社會의 下部構造를 이루는 생산관계, 계급투쟁, 소유관계 그리고 技術의 內在論理 등과 같은 物質界의 秩序를 반영하고 있는 上部構造의 一部分인 것이다. 持히 重要的한 것은, 歷史란 「마르크스」主義者에 依하면, 『物質界의 질서에 內在하는 論理에 의하여 強制되는 動的인 運動』이라는 것이다. 結果的으로, 歷史란 物質界의 秩序가 계속 변화하고 이에 따라 그 上部構造도 변화하는 계기의 連續인 것이다. 法도 이와 같은 上部構造의 一部分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소련의 法理論은 恒久的인 正義의 觀念 같은 것

을 否認하고 있다.

3) 實例 : 電線도난의 경우로, 여기서 그의 行動이 비록 經濟的인 効用性에 입각하고 있지만 전체계획의 要求事項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항상 그 관련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소련에서의 文化(No. 33)

소련 공산당은 제나라대로의 美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고 이를 一方的으로 문필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들에게 強要한다. 공산당은 理念의 선전과 政策의 促進을 위해 예술인들의 能力을 利用하려고 한다. 「후르시초프」는 『소련의 文學과 미술은 공산주의 敎育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산당에서 말하는 美의 표준을 사회주의적인 寫實主義라고 부른다. 모든 예술작품의 내용은 사회주의적이어야만 한다. 即, 當의 理想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소련대중으로 하여금 黨政策에 대해 열광적인 지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小說에서 主人公은 讀者들에게 無限한 感動을 주는 標本的인 人物로 그리고 相對는 不道德하고 反「소비에트」的인 惡黨으로 對照함으로써 讀者들에게 해야할 行爲와 해서는 안될 行爲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藝術作品도 역시 寫實的이어야 한다. 이 寫實的이어야 한다는 意味는 「소비에트」 生活의 밝은 면을 그려야 하며, 이 밝은 면을 末來의 더욱 더 밝은 幻影과 結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魅力的인 面이 없는 現在 事實을 다루어서는 안되며, 너무 眞實에 치중하면 퇴폐적인 自然主義라고 비난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소련의 文學과 美術作品은 根本的으로 樂觀主義的이어야 하며, 共產主義思想과 政策이 항상 최후의 勝利를 한다는 의미의 「해피—엔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寫實主義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미술, 문학, 음악 작품들은 모두 대중에게 쉽게 이해가 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 共產黨의 선전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作品의 傳達方式은 분명히 이해 가능한 形式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대중이 이해하기 곤란한 추상화나 비선율적인 음악같은 현대적인 形式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예술형식을 비난할 때의 통칭인, 형식주의로서 한데 묶어 비난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옹호하고 형식주의를 비난하는 이와 같은 당 노선

은 「스탈린」 치하에서 형성 실시 되어 왔으나 「스탈린」 후기의 全期間 동안에도 그대로 持續되어 오고 있다. 變化된 것이란 문필가, 화가, 음악가들에게 強要하고 있는 黨路線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스탈린」의 死後에는 黨의 감시가 완화되기 시작 하였다. 이 점에서 黨은 하나의 불분명한 過程을 걸어오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로 黨의 감시가 완화될적마다 문필가들은 그 기회를 최대한로 이용하여 형식주의(例를 들어 추상화 같은)의 罪과에 빠져 들며, 아니면 실제 소련 생활을 더 眞實에 가깝게 理想化 시키지 않고 표현하는(그렇게 重大한 罪과는 아니지만) 罪과를 범하곤 했던 것이다. 그때마다 당은, 1962년 이래로 항상 해오던 바와같이, 查적을 휘두르고 통제를 다시 강화하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死後에 작가들은 서방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해 보고싶고 당지도자에 복종하는 도구가 되기보다 자신의 영감을 더 추구해 보고 싶어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립적인 소련의 예술인들 사이에는 끝날줄 모르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8. 소련에서의 宗教(No. 34)

宗教에 대한 共產主義者の 態度는 分明하고 確固하다. 먼저, 神의 存在는 公산주의의 最後據點인 哲學的인 唯物論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神의 存在를 否認한다. 거기다 인간의 최후적인 승리를 표방하기 때문에 성급히 神을 否認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또한 “宗教는 有害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쟁적인 無神論이다. 공산주의에서는 말하기를, 『종교는 인간의 視野를 흐리게 하여 眞理의 發見을 방해하고, 유순하고 복종적으로 만들어 계급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보상책임을 神에게 돌리므로서 人間이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다』한다. 투쟁적인 무신론은 공산주의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만약 공산주의에서 무신론을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知的인 根據를 잃고 마는 셈이 된다.

宗教에 대한 共產主義者の 政策은 궁극적으로는 이 宗教의 除去에 있으나 때때로 이 궁극적인 목표를 부인이나 하는것처럼 애매하게 나타날 때도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社會改造와 더불어 宗教의 필요성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 虛偽性이 입증되고 드디어는 “소멸”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용하려고 한다. 또 종교에 대한 심한 박해는 도리어 종교를 강화 시킨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더구나 공산당의 일차적 목표는 權力의 強化이며 이 권력의 강화 이전에 미리 종교에 손을 대어 권



력강화 목표에 차질을 가져오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자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것처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 할려고 하는 희망 때문인 것이다. 權力掌握 이전에는 종교를 허용할 것 같은 印象을 준다. 「소비에트·유니온」의 일차 憲法은 “宗教宣傳과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 1929년에는 “宗教的인 儀式의 자유와 反宗教的인 宣傳의 자유”로 修正되었다. 이는 宗教集團은 공식적으로 그 견해표명이 불가능 하며 단지 無神論者의 集團만이 表現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공산당은 소련에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철저한 反宗教的인 수단을 취하기 시작 하였다. 이와같은 수단들은, 前 聖職者의 殺害, 地域集會를 제외한 修道院과 教會機構의 폐지, 僧侶들에게의 世俗的인 시민이나 사회상태의 강요 또는 조직적인 종교활동의 금지 등으로 되어 있었다. 1920년대 초기에 종교지도자들을 모의제판(Mock-Trial)의 형식으로 제거하고 대신 공산당에 야부하는 聖職官僚를 임명하려고 했다. 대중의 항거와 외국의 항의로 이 직접적인 박해는 1923년경 종식되고 대신으로 모든 다른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위협 모욕하고 철저한 無神論的 선전을 감행 하였다. 1929년부터 시작하여 「스탈린」은 공공연히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종사자들과 승려들을 대량으로 처단 투옥 하였던 것이다. 교회는 公式的 儀式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인 어구를 사용 못하게 되었으며, 모든 학교에서 反宗教的인 宣傳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박해가 완화되는 것 같더니 1937년의 시작과 더불어 다시 무섭게 강화되었다.

1939년에 가서야 공산당의 태도가 변화 되었고, 그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공산당은 상상할 수 없이 강한 집착력을 갖고 있는 종교를 파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의 종교정책은 가능한 한 당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면서, 계속되는 교육과 선전의 압력으로 결국 종교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기대속에 宗教와 共生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소련정권은 회람정교를 지원했으며, 회람정교는 반대로 소련정권을 지지하고 그의 국제 선전목적에 봉사 했던 것이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종교문제도 그 방법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소련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인 것이다.

### Ⅲ 소련 이외의 共產主義

#### 1. 共產主義者들의 執權 方式(1)(No. 35)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 이래 政治權力의 장악이 모든 共產당들의 목적이 되어왔다. 이번 강의에서는 2차대전 이후 中東구라파에서 소련과 국내 共產당들이 정권을 장악 독점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연구하려고 한다.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主題는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戰爭末期의 中東구라파에서의 狀況과 당시의 共產主義 活動 둘째, 決定的인 時期인 1947년의 사건들과 그 意味 셋째, 「스탈린」 治下에서의 中東歐의 加速화된 「소비에트」化 過程 등이다.

1) 1945년 2월 11일, 「알타」에서 미·소·영에 의하여 調印된 〈解放유럽에 대한 宣言〉에 의하면, 유럽에서의 「나치」로 부터 해방된 국가들과 前主軸國의 위성국들은 모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憲法을 制定하고 모든 국민을 민주적으로 고루 대변하는 過渡政府를 수립할 권리를 갖게 되어 있었다. 가능한 한 빨리 전체 국민의 意思에 부응하는 정부를 自由選舉를 통해 組織하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소련이 「알타」협정에 따를 것 같은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自由獨立國이었던 이전의 「발틱」 3國이 소련에 併合하고, 「유고」와 「알바니아」 共產당이 政權을 잡았다 하더라도, 中東歐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戰後 2年間 여러 정당들로 구성된 순수한 聯立政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연립정부 내에서 共產당들은 아주 중요한,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절대적인 위치는 차지하고 있지 못했었다. 新政權은 대개가 진보적인 「부르조아」 의회주의자들과 순수하고 강인한 사회주의 개혁가들로 복합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지역의 국민들은 이 지역이 동서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당시 「스탈린」이 이 지방에 대해 조심스런 질제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西方을 敵對視하지 않으려는 意圖와 또 한편으로는 이 지방의 共產黨들이 單獨執權 하기에는 너무 劣勢였다는 사실을 감안한 때문일 것이다. (1945년 11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서 共產黨은 選舉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組織적으로 그러나 非暴力的인 방법에 의하여

政府와 社會, 經濟界의 중요한 위치를 占據하는 것이 당시의 公산주의들의 목표였었다.

2) 1947年은 世界 全般에 걸쳐 증대한 變化를 가져 왔고 中東歐 國家들에게는 특히 重大한 變化를 가져왔다. 1946년 내내 惡化一路를 걷던 소련과 西方側과의 關係가 더욱 惡化되었다. 「터키」와 회담을 援助하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소련과 公산주의자들로부터 防衛 하겠다는 「트루먼」 大統領의 公約과, 「유럽」에 대한 美 國務長官 「마—샬」의 經濟援助 提議, 이에 대한 소련의 拒否, 독일경제의 公同관리를 위한 協商의 完全 失敗, 西歐의 聯立政府들로부터 共產閣僚들의 退進 등의 사태가 연속되고 이 사태들이 초기 冷戰現象의 두드러진 모습들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中東歐에 준 반응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것이었다. 이때까지 견지해오던 절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公산당들은 전반적이고 무차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政敵을 괴멸시키고 政權의 장악 목적을 표면화 시켰다.

3) 1947년 共產黨 執權에는 아래의 4가지 要因이 특히 두드러진 役割을 하고 있다.

① 소련의 介入이 눈에 띄게 壯大해졌다. 赤軍이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국가에서 다른 政黨은 差別을 하고 公산당만 소련 당국이 적극 후원하고 있었다. 고위 소련 幹部가 각국의 內政에 干涉하여 직접 公산당의 이익을 조장하였다.

② 公산당들은 소련의 사주에 의하여 정치, 경제분야에서 소련군의 주둔을 최대로 활용하여 그들의 “최고사령부”로 삼고, 소련의 지령대로 이미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大衆組織”(노동조합, 청년, 부인조직 및 체육조직 등)의 통제를 완료하고 강화 시켰던 것이다. 다음 단계는 非共產政黨에의 침투작업이며, “民族戰線”을 형성하여 비공산정당들의 정치적인 특색을 상실시켜 그 정당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요한 위치는 公산당들이 장악하는 것이다. 최후의 단계에는 비공산주의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헝가리」 公산지도자 「마티아스·라코시(Matias Rokosi)는 “사라미 전술”(Tactics of Salami) 이라 불렀다. 즉 정치적인 반대파를 하나 하나 차례로 제거 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우익 분자는 이미 「나치스」와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숙청 하였으며 다음 차례로 비공산주의 중도파와 좌파를 숙청했다. 쫓겨나자는 농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던 토지개혁주의자들인 것이다. 다음은 선택의 여지가 허용되는 사

회주의자들로서 그들은 공산당에의 합류를 받아 들이든지 아니면 정치활동을 중지 하든지 해야 했다.

드디어 1947년 공산주의자들은, 잔인하고 교묘한 압력수단과, 노골적인 폭력의 위협이나 유혹적인 공약을 이용하여 「스탈린」의 사주와 소련의 지지하에, 서방측으로부터의 항의를 외면하고, 그들의 오랜 숙원을 (권력정취) 성취시켰다.

## 2. 共產主義者들의 執權 方式 (2) (No. 36)

共產主義 執權에 대한 이번 두번째의 강의에서는 아래의 세가지 問題를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中東歐에서의 共產黨 執權이 주는 全體의인 重要性, 둘째, 「카스트로」에 의한 「쿠바」 共產化 過程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局面들, 셋째, 世界餘他 地域에서의 共產侵略과 그 可憐할 樣相 등이다.

1)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中東歐에서 소련과 공산당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력적인 방법은 분명히 民族自決의 原則을 파괴하는 것이며, 「알타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冷戰”을 발생시킨 根源의인 要因인 것이다.

中東歐에서의 共產執權은 西方으로 共產執權의 팽창을 가져 왔으며, 공산주의의 世界的 宣傳에 강한 힘을 불어 넣었다. 그러나 반면에 이와 같은 東歐의 公산화는 강력한 방위기구인 「NATO」의 창설을 보게 하였다. 소련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한 서방측의 이와같은 강력한 방위적인 機構는 1947년 「케난」의 유명한 封鎖政策에 因박하여 形成된 것이다. 「케난」의 말을 빌리면, 『이는 美國 外交政策의 기초가 되어왔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성향을 장기간에 걸쳐 참을성 있게 그러나 확고하고 주의깊게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本質上 이 封鎖理論과 政策은 靜의이며 단순히 防衛의인 것으로서 西歐의 自由를 效果의으로 防衛할 수는 있었으나 中東歐에서의 소련의 帝國主義의인 強權化를 中止시킬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이 봉쇄정책은 소련의 軍事의인 介入에 의한 政權掌握이 아닌 다른 方法에 의한 共產黨 執權을 막을 도리는 없었던 것이다.

2) 「쿠바」가 그 代表的인 事例이다. 「카스트로」의 극적인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티스타」 政權의 政治的, 道德的인 타락과 「카스트로」가 내건 진정한 의미의 民族的이고 民主的인 解放公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바

티스타]와 싸울 당시에서는 민주적인 「쿠바」의 부활을 위해 모든 獻身을 할 것이라고 「카스트로」는 수없이 그리고 명확히 公言 했던 것이다. 「카스트로」는 1958년 2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진정한 代議 政府를 찬양하고 12개월 이내에 “진실로 정직한” 보통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1940년의 憲法에 규정된 모든 個人的이고 政治的인 權利를 復活시키고, 言論과 通信手段의 “完全하고 妨害받지 않는 自由”를 約束했던 것이다. 또한 「카스트로」는 溫健한 社會改革을 약속하고, 國有化 觀念을 批判했으며, 外國資本의 「쿠바」 投資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쿠바」 共產黨의 政策은 분명히 「카스트로」의 정책과는 달랐다. 「쿠바」 공산당은 「바티스타」에 대한 투쟁에서 「카스트로」식의 반란행위보다도 「장기간에 걸친 政治工作을 계산하고 있었다. 「카스트로」의 승리 이후 일정기간 그는 공산당과의 관계가 긴장되어 1959년 5월에 가서는 공공연히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카스트로」와 공산당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집권 2년후부터 「카스트로」는 공산화 운동의 일환으로 非共產主義的 要素의 除去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大規模인 國有化 作業을 시작했으며, 소련과의 經濟協力關係를 매듭지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처음의 革命公約을 배반했던 것이다. 유명한 미국의 歷史家이며 政治評論家인 「테오도르·드레이퍼(Theodore Draper)」는 「카스트로」의 革命이 大衆的인 面에서 共產主義的인 面으로 轉換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카스트로」는 『理想主義者 못지않게 煽動家이며, 革命家 못지않게 冒險家이며, 共產主義者 못지않게 無政府主義者이다. 또한 그는 진정한 黨도, 진정한 軍隊도, 진정한 計劃도 없이 너무 급격히 그리고 예기치도 않은채 權力의 座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革命公約을 배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쿠바」의 特殊事情과 소련 共產黨의 지원으로 「카스트로」의 權力掌握이 可能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지지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같은 決定을 一段 내리어 「카스트로」는 자신을 공산주의자와 組織的으로 結合시키고 「쿠바」의 全體主義化의 形成過程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3) 「쿠바」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일면은 남미대륙에서의 革命的 先頭走者로서 그리고 革命的 模範으로서의 「이미지」이다. 「쿠바」 정권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알려진 「체·게바라」(Che Guevara)는 1960년 7월에 저술한 그의 有名한 <게릴라 戰法>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共產主義執權을 위한 效果的인 手段으로 「게릴라」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적당한 作戰地域과 農民의 土地에 대한

熱望과, 敵의 不正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南美 國家에서도 30명 내지 50명의 核心人員으로 武裝革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쿠바」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를 서로 連結시키고 있다』고 선언 하였다.

게릴라전과 政治革命에 대한 訓練을 받은 小數의 집단이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도에서 생긴 1964년 1월의 사건은 「게바라」의 技술을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實例를 보여 주었다.

쿠바, 소련, 특히 中共에서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職業革命家의 養成으로 共產主義가 必然的인 勝利를 하게 될 것이라는 悲觀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의 潜在的인 重要性을 또한 過小評價하는 過誤를 犯해서도 또한 안될 것이다. 앞으로의 共產主義의 勝利는 (단약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이는 “소련의 팽창성향”의 結果나 中共의 直接的인 侵略에 따른 팽창의 結果가 아니라 이미 共產黨이 支配하고 있는 世界의 많은 中心地로부터의 多元的인 援助를 받는 「게바라」 式을 택하는 地域 職業革命家의 活動의 結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3. 中國에서의 共產主義 執權鬭爭(No. 37)

中共의 執權鬭爭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中國의 背景에 關聯된 다음의 몇가지 事實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傳統的인 中國은 “東洋的인 專制主義”의 支配를 받던 一元화된 「아시아적」 社會로서 共產主義者들의 努力으로 多元화된(균형된) 社會로 變化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西歐나 美國에서와 같은 政治的인 經驗이 있는 강력한 中間階級도 없었으며, 民主的으로 訓練된 勞動運動도 없었다.

2) 傳統的인 中國 社會는 그 自體의 特殊한 農民問題를 안고 있었다. 土地의 私有化는 灌溉施設과 더불어 高度의 集約農法을 이루게 했으나 週期的인 地主制度의 발생과 土地不足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傾向은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듯이 그렇게 광범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런 傾向으로 말미암아 共產主義者들의 宣傳이 大多數의 農民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게 되었다.

3) 또한 中共은 특수한 民族主義의 問題를 안고 있었다. 19세기 이후부터 많은 外國勢力이 中國을 侵犯하여 「레닌」이 말한 소위 “半殖民地化”되어 갔다. 中國 民族主義의 創始者인 孫文은 中國을 “Hypo-colony” 즉 殖民地 狀態보다 못한 國家라고 했다. 그 이유는 孫文에 의하면, 모든 외국세력은

중국에서 利得만 취하고 中國을 위해서 有益한 일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世界 共產主義 最初의 指導者였던 「레닌」은 위에 말한 特異性 특히 두번째와 세번째를 強調하고 中國과 其他의 “植民地” 農業國家에 알맞는 特殊戰略을 생각해냈는 바, 이 特殊戰略을 中國 共產黨은(1921년 창당) 1922년부터 採擇 實行하였으며, 그후 이를 「스탈린」이 계속 발전시켰다.

執權鬭爭 중 中國 共產黨은 몇 차례나 聯合戰線에서 그 政策을 바꾸었으며 이 過程中에는 세번의 “民族主義的”인 聯合戰線과 두차례의 市民戰爭(Civil War)이 있었다.

#### ① 제1차 연합전선(1922~1927).

1차 聯合戰線은 흡수에 의한 것으로 共產主義者들은 個別的으로 民族主義政黨인 國民黨에 入黨이 許容 되었으며, 또한 入黨을 권장 받았다.

그 結果 共產主義의 영향력이 增加함에 따라 갈등도 증가하였으나 國民黨에 의한 共產主義者의 참패로 끝났다.

#### ② 제 2차 聯合戰線(1936~이차대전 후반까지)

이는 동맹에 의한 연합전선으로 당시 중국대륙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南京政府와 북서부에 位置하던 共產黨의 “延安政府” 間의 同盟이었다.

그 結果 共產主義의 成長과 더불어 갈등이 증가하므로써 마침내는 同盟이 깨어지고 말았다.

#### ③ 제 3차 聯合戰線(1944~1946)

이는 協商을 目的으로한 聯立體制에 의한 聯合戰線이다. 共產主義者들은 民族主義者들과 聯立政府를 構成하여 權力의 分割을 目的으로 하였다. 모스크바와 西方과의 관계가 變하게 되자 協商은 全國的인 內亂으로 化하고 말았다.

#### ④ 第 1次 人民戰爭

第 1次 人民戰爭은 第 1次 聯合戰線의 와해 이후에 일어났다.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農村 勢力基地인 「소비에트」에 根據를 둔 赤軍으로 民族主義者들과 戰爭을 벌였다. 이와 같은 투쟁에서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소련으로부터 指令을 받았으나 地理的인 原因으로 인하여 實質的인 經濟援助나 軍事援助는 받지를 못했었다.

結果는 몇차례의 攻擊이 失敗로 끝났고 國民黨은 드디어 1934年, 中國 共產主義者들을 中部로부터 「소비에트」로 축출하는데 成功했다. 강행군(Long March) 이후(1934~35) 西北地方에 도착한 赤軍의 數는 극히 小

數였으며, 여기서 農村勢力基地를 다시 구축하고, 이것이 “延安政府”가 되었다.

第 2次 人民戰爭 : 2次大戰의 후반기에 잠잠하던 敵對行爲가 다시 나타나 1946년에는 全面戰으로 擴大 되었다. 共產主義者들은 소련과의 接境 接觸을 增加시키고, 1945年 여름부터 만주지방에서 소련군과 相面하게 되었다. 소련의 도움을 얻어 遊擊隊를 正規軍으로 改編하고 國內외의 好條件의 造成으로 (國際의인 면에서의 中國事態에 대한 列強의 理解不足과 國內의인 면에서의 國民黨의 기진맥진된 상태) 共產黨은 全中國大陸을 征服할 수 있었다. (1948~49) 이와 같은 過程을 겪으면서 民族主義者들은 많은 經驗을 하였으나 大勢를 돌이키기에는 不足했다. 中國 共產黨은 소련의 外交政策의 變化에 따라 그들의 政策도 여러차례 바꾸었다. 日本이 中國大陸의 北東部인 만주를 侵攻했을 때, 이 때 소련은 日本과의 接近이 必要했으며, 이에 맞추어 中國 共產黨은 民族主義者들과 人民戰爭을 계속하였다.

日本과 獨逸의 同盟이 소련을 威脅하게 되자 中國 共產黨은 聯合戰線을 形成하여 對日戰으로 方向을 바꾸었던 것이다.

잠시나마 「모스크바」 政權을 강력하게 했던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한 獨蘇條約 期間동안 共產主義者들은 組織의으로 國民黨 地域을 침투해 들어갔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이 勝利하고난 후 國民黨과의 合作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次大戰이 끝난 후, 1945년 8월의 條約에서 國民黨政府에게만 全的으로 精神的, 軍事的 支援을 約束했던 소련의 指導者들은 즉시 이 約束을 파기해 버렸다. 中國 共產黨이 發展하고 그리고 最終의인 勝利를 爭취할 수 있었던 가장 決定的인 要因은 소련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援助가 있었기 때문이다.

#### 4. 中國의 共產主義 : 中共政權(No. 38)

中共의 執權鬭爭에서 그 社會的인 背景을 制度面에서 살펴보면, 中國社會는 “東洋的인 專制” 政府의 支配를 받는 單一中心 社會인 “[아시아]적인 社會” 였다.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中國의 “[아시아]적인 社會”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서서히 統制된(代議 除外) 政府는 均衡되고 多中心的인 秩序로 發展되어 갔다. 中國의 經濟的인 基礎는 灌溉施設과 私有財產에 토대를 둔 농업이었으며, 이 농업은 高度로 勞動集約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農民들이 그들의 오래된 土地制度에 內在하는 營農意慾을 刺戟하는 促進濟가 감



소됨으로써 營農에 극히 소홀해지는 결과를 招來하였다.

中共은 몇 단계를 거쳐 社會的이고 經濟的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49~1953年間的 期間은 政治的으로는 團合의 期間이었고 經濟的으로는 農業뿐 아니라 工業과 商業의 復舊期間으로서 주로 私有財産制度和 私有企業에 依存하고 있었다. 中共은 外形上으로는 “聯立政府”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다. 東歐 衛星國들과 같이 中國大陸의 政府는 國民的인 組織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몇개의 비공산주의 정당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중앙과 지방정부를 통제하며, 행정뿐 아니라 군대와 경찰까지도 통제하고 있었다.

「스탈린」의 死後에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的인 秩序” 즉 共產主義的인 形式으로 발전하여 갔다. 工業과 商業에서 “民族「부르조아」”를 除去하고, 1953년과 1954年 겨울에 시작하여 1955년 말에 完成된 集團農場化로 小農經濟를 없애버렸다. 2年後 “대약진운동”과 「콤문」으로 集團化를 補強하고, 이 政策을 통해 致命的이었던 “勞動力 不足”(농민의 저항때문)을 克服하여 産業化를 促進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企圖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1959년 이후부터, 中共政權은 여러가지 수단을 다 사용하여 集團化와 「콤문」으로 인한 危機를 다소 減少시킬 수는 있었으나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中共의 業績은 두 가지 그 重要한 形態가 있다. 첫째는, 一般的(非共產主義的)인 것이며, 둘째는 共產主義的인 原因으로 因한 것이다. 일반적인 것 중에는 民族主權의 確立을 들 수 있다. (2次大戰 期間동안 國民黨이 획득한 것이다). 民族의 自主性과 實質的인 統一은 一般的으로 經濟發展을 刺戟한다. 中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産業化는 知的水準을 높이고 女性의 社會的 地位를 向上 시키며 公衆의 健康問題를 解決한다. (일본, 대만, 중국에서의 DDT를 使用한 모기와 「말라리아」 박멸운동 같은 것).

특히 共產主義的인 形態 中에는 大規模의 勞動力을 동원한 거대한 公共事業을 착수한 것과 같은 國家經濟에 대단히 有利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形態는 迅速하고 바람직한 結果를 남기도 하지만, 그 形態는 強壓의이며 大衆에 주는 惠擇이 自由로운 大衆의 批判 속에서 이루어지는 事業보다 는 적은 것이다.

巨大한 共產主義 機構는 權力指向型(Power-Oriented)이지 人間과 市場指向型(People and Market-Oriented)은 아닌 것이다. 中共은 戰略的인 철도부설을 위해 地方의 쓸모있는 通信施設들마저도 등한히 하였다. 많은 灌

漑事業은 조속히 그리고 官僚의인 計劃에 의거 추진하므로써 도리어 쓸모가 없거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事例를 많이 볼 수 있는 실정이다. (土地를 「알칼리」化 시킨다) 敎育에 대한 統制로 세계의 各國文學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文學을 人間의 자유로운 발전수단으로가 아니라 奴隸化手段으로 만들어 버렸다.

共產主義者들은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 대한 적당한 代案도 없이 부녀자들에게 重勞動을 강요하고 집안일을 포기시켜 주는 것 보다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 계속되는 농업위기는 전국민의 영양과 건강상태를 저하시키고 있다.

분명히 中共은 産業化 以前의 國家들이 바라는 그러한 模範國이 될 수도 없고 더구나 그 政治的 經濟的 奴隸化의 함정을 잘 알고 있는 일반 大衆들에게는 바람직한 政府로 될 수도 없다. 특히 그 指導者들까지도 北京政權의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인 弱點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中·蘇紛爭의 寫實的인 評價와 現在의 世界 權力鬭爭에서 中共이 차지하는 實際位置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狀況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 5. 東歐 위성국에서의 共產主義(No. 39)

오늘날의 世界 모든 다른 地域과 마찬가지로 中東歐도 그 속에서 급속한 內的變化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變化를 세가지 면으로 나누어 토의해 볼려고 한다. 첫째, 2次 大戰 후기의 變化와 그 複合的인 面 둘째, 中東歐 지방에서의 共產政權의 變化 셋째, 中東歐가 겪는 變化의 배후에 있는 意味와 그 社會勢力 등이다.

1) 2次大戰이 끝난 후 두 世代도 못되는 기간동안, 公式的인 用語로는 “人民民主主義”國家이며 西方測에서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취급되는 중동구라파의 국가들은 각각 다른 6段階의 時期를 거쳐 왔다. 短期間의 제1차 기간은 1945년부터 1947년까지로, 비록 「유고」와 「알바니아」와 같은 例外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多數黨과 議會制度和 온건한 經濟改革이 이 기간의 특징이었다. 1947년에는 조심스런 態度를 포기하고 완전한 共產政權을 樹立하였다. 제2次 期間은 정확히 말해서 “「스탈린」主義時期”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947년과 1948년부터 1953년 「스탈린」의 死亡時까지이다. 이 時期의 두가지 特徵은 政治的인 暴力主義와 經濟的인 集團化로서 소련에의 完全한 從屬을 目的으로 하였다.

衛星國에서의 「스탈린」式 統治制度는 「스탈린」의 死亡과 더불어 끝났다.

「스탈린」의 사후, 各國에 따라 그 程度는 다르겠지만, 소위 “새로운 進路”가 內的變化的 제3段階로서 始作되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계속된 期間의 特性으로, 農民에 대한 讓步와 너무 강조되었던 重工業과 經視되었던 消費財產業과의 再調整 그리고 강압적인 소련화와 粗惡한 폭력적인 面의 除去 등을 들 수 있다.

“新進路(New Course)”는 一慣性을 갖지도 못했고 能率的이 될 수도 없었다. 소련 共產黨 20次 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行한 「스탈린」의 “個人崇拜”에 대한 攻擊은 中東구라파에 심한 충격을 주었다. 같은해 가을, 거의 반란에 가까운 봉기가 「폴란드」에서 일어 났으며, 「스탈린」支配의 殘存物의 除去를 위한 全面的인 民중봉기가 「헝가리」에서 발생 하였다. 이 第4次 기간 동안, 전소련(帝國)은 와해 직전에 놓인것 처럼 보였다. 赤軍의 投入으로 「헝가리」革命은 진압되고 全地域에 걸쳐 “秩序”가 回復 되었다. 다음 제5차 기간은 57년부터 63년 중엽까지로 이 기간의 特性은 소련과 中東歐 國家간의 형식(Pattern)을 「스탈린」식의 間인성과 공공연한 약탈방식에서 다른방식으로 바꾸어 서로를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統合시킬려고 하는 「후르시초프」의 企圖에서 찾을 수 있다. 「후르시초프」의 中心概念은 “社會主義者의 勞動分業”이며 超長期의 超國家的인 計劃으로써 소련陣營 全體의 經濟的인 統合을 成就할려는 것이다. 「마살계획」에 대응하여 1949년 創設된 經濟協力機構인 「코메콘(COMECON)」은 「스탈린」에 의하여 무시되어 오다 「후르시초프」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전 소련진영의 經濟活動 中心體가 되었다.

「후르시초프」의 “雄大한 計劃(Grand design)”에 대해 특히 「루마니아」 共產政權이 1963년 예기치도 않던 抵抗을 하게되자 이와 같은 소련의 統合計劃은 一時 妨害를 받게 되었다. 「루마니아」가 反對하는 理由의 焦點은, 勞動分業과 經濟的 專門化는 産業化가 미숙한 共產主義 國家로 하여금 産業化 될 수 있는 길을 막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1963년은 새로운 제6차 기간이 시작되는 해이며, 이 제6차 기간은 “밀물기”라고도 불리우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共產主義者들의 變化 現象은 앞에 말한 소련 진영의 流動的인 過程과 一致하며, 아래에서 말하는 두가지 面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첫째, 共產支配者들이 소련으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地方自治權을 획득 할려고 하면서 國內에서는 政治權力을 獨占하고 大衆의 支持를 계속 擴大시킬려고 하는 경향 둘째, 外部에서의 소련의 영향력과 國內에서의 共產支配를 威脅하는 圓心力의 壓力 등이다. 이와같은 두가지 현상이 그 發展過程에 存在하는 한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不可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중동구라파의 생활은 基本的인 共產主義의 弱點을 克服할 수 있는 要素와 共產支配의 瓦解를 가져올 발효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實驗的이고 過渡期的인 것으로 規定하는 것이 正確할 것이다.

3) 1964년 前半期の 「폴란드」 知識層, 「체코」의 學生들, 「불가리아」의 회담교도들 사이의 不安 그리고 「루마니아」 共產黨의 異端的인 態度 등은 동구라파에 새로운 潛在的인 폭풍의 형성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구라파에 존재하는 파괴적인 세력은 첫째, 民族主義 精神으로 이는 中共의 攻擊에 따른 소련의 위신이 실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 했으며 둘째, 個人의 권리와 市民의 自由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熱望이며 셋째, 「후르시초프」의 非「스탈린」化와 중소분쟁으로 자극된 公산 정권 자체내의 理念的인 부식현상인 것이다.

中東歐의 共產政權은 山積된 國內問題와 그 矛盾으로 인하여 붕괴될 정도로 악화 되었다고 結論을 내릴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의 生存과 非共產主義 政治勢力의 抑壓을 赤軍의 주둔에 의존하고 있다는 根源的인 사실에서 脫皮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變化하는 세계에서, 중동구라파의 共產支配는 一種의 時代 錯誤的인 것이다. 평화롭고 발전적인 歷史的 未來를 위해서는 東西구라파가 統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제2차 大戰은 民族白決主義의 名分을 걸고 싸웠는 바, 이제는 이 名分의 영광을 찾을 시기이며, 동시에 「스탈린」주의의 산물인 冷戰을 除去할 때인 것이다.

## 6. 「유고슬라비아」의 共產主義(No. 40)

世界 共產主義 運動史上 「유고」 共產黨은 그 중 가장 복잡하며 特異한 경우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유고」 공산당의 특이한 점들을 세가지로 나누어 說明코자 한다. 첫째, 1945年 以前의 黨史에서 급진화된 「유고」 共產黨의 獨創性和 急進性 둘째,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이며 소위 “「유고」식 「비스탈린化」”라 불리우는 「티토이즘」의 출현 셋째, 「티토이즘」의 애매성 등이다.

1) 「유고」 共產黨의 急進主義와 進路에서의 급진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1919년~1920年の 創黨 直後의 「유고」 공산당은 나약했던 제3 「인터내쇼날」(코민테른)에서 가장 훌륭한 구성분자로 취급되었으나 1930年代 중엽에 가서는 「모스크바」로부터 公式的으로 그 解散을 위협 받

을 정도로 「코민테른」 중 가장 劣等分子視 되었다. 그때까지의 指導者는 속칭을 당하고 「티토」의 지도하에서(「티토」는 1937년 「유고」공산당의 總書記職에 임명 되었다) 새로운 투지를 회복 하였다.

「티토」하에서 완전히 「스탈린」화된 「유고」 공산당은, 平時에는 政治的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1941년 주축국의 「유고」 침공에 따라 既存의 國家와 社會秩序가 붕괴되고 外國軍이 주둔하는 혼란상태 하에서는 아주 有能한 活動을 할 수 있는 職業革命家로 構成된 엄격하고 짜여진 組織體였다.

戰爭期間 동안 「유고」 공산당은 占領軍에 대한 유격활동과 「드라자·미카일로비치(Draza Mihhalovich)」장군이 指導하던 親西方的인 「레지스탕스」운동과의 人民戰爭을 통해서 浮上하기 시작하였다. 戰爭末期, 國內외의 政治的인 상황은 「유고」 공산당으로 하여금 政權을 장악하게 하였다. 「유고」 공산당은 戰爭前의 無力한 政治集團에서 1945년에는 全國의 支配政黨이 되었으며, 全國가를 소련의 意圖대로 개조하려고 급하게 서둘렀다. 勝利에 도취된 「유고」 공산당은 수년간 國際共產主義 運動에서 性急한 急進派로 活動하였다.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급진주의가 「스탈린」과의 충돌을 가져 왔으며, 「스탈린」은 1948년 6월 「유고」 공산당을 공산진영에서 축출하게 되었다.

2) 「스탈린」은 처음 計劃했던 대로 「티토」를 除去하지는 못했으나, 生前 「유고」 지도자에 대한 적의를 그대로 「스탈린」은 품고 있었다. 「스탈린」에 대한 회유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소련과 그 위성국으로부터의 政治的, 經濟的인 敵對行爲가 增加하기 시작하자 「티토」政權은 서방측으로 돌아, 經濟援助와 政治的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스탈린」과의 화해불능을 깨닫게 되자 「티토」는 「스탈린」式으로 되어있던 그의 政權內部에서 몇가지 面, 특히 經濟的인 面에서의 改造를 단행하게 되었다. 「티토리즘」의 基本原則으로 分權化의 概念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自營概念이 나타났으며, 세밀한 中央集權的인 計劃制度는 포기 되었고, 社會화된 企業은 어느정도 자유로운 需要供給의 原則에 의하여 價格이 결정되는 市場에서의 競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經濟分野에 적용된 「비스탈린」화와 實用性에 입각한 실험들은 공산당이 권력독점을 하고 있는 政治領域에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유고」의 유명한 공산주의자 「밀로반·질라스」같은 사람의 “반란”이 생기게 되었다. 「질라스」는 몇개의 작품을 통해 공산주의자의 “新階級”支配를 맹렬히 비판하고 政權의 진정한 民主化를 요구하였다. 그는 異端的인 思想과 저서의 해외출판으로 투옥되어 현재도 복역중이다.

## 7. 소련의 外交政策(No. 41)

「볼셰비키」의 外交政策은 共産政權 樹立 爲선 이전부터 시작된다. 1915년 독일 外務省 官吏가 「베른」에서 「레닌」을 만났다. 그 官吏는 「러시아」에 대한 勝利는 軍대의 격파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독일 官리는 政治戰 및 軍事戰의 併用的 必要性을 느끼고 「짜르」政權에 反對하는 後方集團들과의 접촉을 희망했던 것이다. 전쟁에서 그들의 조국이 敗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패배주의자라 불렀고, 그 중에 「레닌」과 그의 追從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은 「러시아」를 패배시키는데 소련내의 革命行爲가 필요했으며, 「레닌」은 또한 독일의 財政支援과 병참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레닌」은 理念과 作戰技術과 그리고 權力에의 意志를 갖고 있었다. 혁명 말기에 「볼셰비키」는 反共産主義 勢力 打倒에 성공하고 過去の 「짜르」정권에 속했던 領土를 다시 회복하였다. 「짜르」시대의 「러시아」 영토중 「핀란드」와 「발틱」諸國, 그리고 「폴란드」만이 이 新 「소비에트」帝國에서 제외되었다.

「소비에트·유니온」은 1922년 聯邦體制 혹은 準聯邦體制로 構成되었다. 실제로는 多數 民族으로 된 中央集權化 된 國家였으며 現在도 그러하다. 1919년 창설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당시 소련정부의 革命手段으로 사용되었고 해외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소련은 독일과의 關係 正常化를 기하고 독일이 「베르사이유」條約國을 침범하는데 협조했다. 그러한 代價로 독일로부터 필요한 軍事的인 知識과 技術的인 方法을 배웠다. 國內에서 「볼셰비키」는 “一國社會主義”建設을 시작하였으며 1928년 제6차 「코민테른」大會에서는 世界革命의 最終目標을 再確認 하고, 혁명적인 전진에는 전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바이말」공화국의 전복을 지령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히틀러」 등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 8. 소련의 外交 政策②(No. 42)

1933년 「히틀러」의 등장으로, 독일 共産黨은 吊鍾을 울리게 되었다. 「스탈린」은 자기가 독일공산당에게 서구와의 和解 政策을 추구하던 獨逸社會民主黨을 支援하라는 指令을 내렸다면 西歐는 團結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유럽」에서의 평화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나치스」의 執權을 도우고 말았다.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적대하기 시작하자 소련은 國際聯盟에 加入하고

1935년 불란서와 軍事同盟을 맺게 되었다. 「스탈린」은 불란서 共產黨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파리」에서는 社會主義者가 政權을 잡고 공산당의 활약을 허용하고 있었다. 불란서 공산당은 불란서의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反軍事的 行動을 지도하고 있었다.

西方諸國이 독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련의 원조를 기대하게 되자 「스탈린」은(1939년 8월) 「히틀러」와 흥정을 하게 되었다. 「레닌」과 같이 「스탈린」도 資本主義 國家끼리 서로 맞싸우도록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과 「나치」와의 條約으로 2차 세계대전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日本은 1931년 이후부터 中國에서 領土占領을 확대하고 있었다. 소련은 일본의 이러한 進出方向을 東과 南으로 돌리도록 노력 하였다. 그렇게 되면 日本은 결국 美國과의 戰爭에 말려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차大戰 期間동안 소련의 目的은 領土防衛와 聯合國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연합군의 유럽상륙이 時期尙早로 失敗하고, 美·英軍이 패배할때, 그 틈을 타 全「유럽」大陸에서 공산당이 집권할 계기가 오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연합국은 終戰 最終週日에 가서 對日戰에 소련을 參戰시켜 아무 보상도 없이 주축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소련에 넘겨주고 말았다.

終戰後 소련은 「베를린」 封鎖作戰이 실패하였으나 「체코」 征服에 成功하고 中共의 대륙석권을 후원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을 침공하게 하였으나 이는 국제연합(실제로는 미국이지만)과의 戰爭으로 되어 休戰으로 끝났다.





## 第3章 共 産 黨

### 1. 世界 共產主義(No. 43)

「레닌」에 의한 今世紀의 世界 共產主義 運動은 다음 두 단계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소련만이 唯一한 共產支配 國家로서 存在하고 있던 2次大戰 以前의 歷史의 狀況에 해당하며, 또 다른 하나는, 소련 이외에 새로운 共產支配 國家가 出現하고, 전세계 共產주의 運動이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는 1945년 이후의 狀況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20世紀에 있어서 세계 共產주의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첫 부분은 「레닌」과 「스탈린」 하에서 형성된 共產주의의 단결을 취급하고, 둘째 부분은 共產주의의 단결을 분열시키는 것을 다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째, 「레닌」의 「제3인터내쇼날」의 창립과 그 指導理念 및 組織構造 둘째, 1943년 「제3인터내쇼날」의 해산시까지의 「스탈린」에 의한 共產주의 「인터내쇼날」의 형성 셋째, 2次大戰 이후 국제 共產주의 運動 評價要素로서의 「코민테른」이 갖는 歷史的인 役割 등을 취급한다.

1) 1919년 3월 「레닌」의 지도하에 창설된 「코민테른」은 『全世界 勞動者들의 黨인 진정한 革命政黨의 모든 勢力을 동원하여 共產주의 世界革命의 승리를 촉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코민테른」 創立大會에서 채택한 엄격한 「코민테른」 加入條件이 1920년 여름 제 2차 「코민테른」 總會에서 채택 되었고, 그 중에서 각국 共產당은 「코민테른」 총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執行委員會의 결정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초기의 革命可能性에 대한 기대가 실패로 끝나고, 共產 지배 국가로는 소련만이 남게 되자, 「코민테른」 政策에 대한 소련 共產지도자들의 고민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共產혁명의 수단이며 「코민테른」의 목적에 봉사한다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소련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對外政策 수단으로 「코민테른」을 활용하게 되었다.

1924년 1월 「레닌」이 사망하자 外國 共產黨들의 영향력 감소는 더욱 심해졌다. 같은 해, 제 5차 「코민테른」 총회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볼셰비키」 화를 구호로 채택 하였다. 소련에서 「레닌」 계승권 투쟁기간인 1924년 부터 1928년까지의 4년간 「코민테른」에서도 역시 「볼셰비키」派 自體內的 論爭場

이 되었다. 이 투쟁에서 「스탈린」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코민테른」에서도 非「스탈린」적인 요소는 제거되었다.

2) 「스탈린」治下에서 2차에 걸친 「코민테른」총회가 개최되었다. (1928년의 제6차 총회와 1935년의 마지막인 제7차 총회 였었다) 제6차 총회에서는 소련의 제 1차 經濟計劃의 시작과 더불어 강력한 “左派的” 경향이 채택되었다. 소위 “階級對階級”이라 불리우는 전술에 따라 社會民主黨이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되고, 이 적에 대한 무자비한 權力鬭爭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비타협의 결과로 독일 공산당은 독일 사회민주당과의 투쟁에 온갖 힘을 경주함으로써 사실상 「히틀러」의 집권을 돕게 된 것이다. 이 제6차 大會에서 채택한 戰術로 인해 다른 나라의 共産黨들도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무력하게 되어 버렸다.

독일에서의 「나치」의 승리는 전반적인 「코민테른」의 진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제 7차 「코민테른」 총회에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총내의 전술을 바꿔 “人民前線 戰術”을 채택하고, 社會民主黨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을 망라한 「팻시즘」과 「나치즘」에 대한 공동투쟁을 피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외국 공산주의자들을 경멸하고, 그의 국내정책도(1930년 후반기의 속칭으로) 소련에 정치적인 망명을 한 외국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전멸시키려 했다. 이 “인민전선 전술”은 외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거두었다. 더구나 외국 공산당들은 소련과 특히 「스탈린」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하고 있었다. (前「유고」공산지도자 「밀로반·질라스」는 2次 大戰 이전까지 「스탈린」에 대한 그의 열광적인 지지를 설명 하면서, 당시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들에게 “無謬”하고 “무후”한 存在였음을 기술 하고 있다)

「나치」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 하게 되자 「스탈린」은 다시 「코민테른」에 대하여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獨蘇和解政策을 변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임무를 부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1941년 독일의 「러시아」 침공으로 모든 「코민테른」 구성원들의 임무는 반「나치」 투쟁으로 다시 돌아 갔다. 드디어 1943년 5월 15일 서방연합국을 회유시키기 위한 그의 전술적인 外交政策의 일환으로 「코민테른」의 解散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3) 歷史的인 전망에서 보아 「코민테른」은 실패로 볼 수도 있고 성공으로 볼 수도 있다. 소련 이외의 나라에서는 혁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한 것이며, 반면 국제공산당을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있고 또 싸우기를 열망하는 많은 직업혁명가를 훈련시킨 점

에서는 성공한 것이다. 「스탈린」하에서 이룩된 공산주의 「인터내쇼날」의 그 기념비적인 통일성은 아래의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共產主義의 最後의 據占으로서의 유일한 소련의 存在와

둘째로, 소련 共產黨의 指導力에 대한 일반적인 承認

세째는, 「후르시초프」가 1956년 “個人崇拜”라고 비난한 「스탈린」을 둘러싼 神話등인 것이다.

1945년 이후, 다른 공산당 지배국가가 출현하게 되자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으나, 점차 분명해져 갔던 것이다. 이번 강의의 2部가 될 이 戰後의 변화는 「푸로그래프」58의 내용에서 다룰 것이다.

## 2. 共產主義者 標準型(No. 44)

共產主義者는 人爲的으로 形成되는 것이지 결코 先天的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共產主義의 同調者, 共產黨 新入黨員 그리고 一年職의 黨員들은, 實際 人間으로서의 見解와, 人格構成에 있어서, 각 공산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發達되고 단련된 “간부”당원보다 同僚平人에 더 가까운 것이다. 人間行動에서 完全에 가까운 理想型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完全한” 共產主義者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嚴格한 調節過程(Conditioned process)을 거친 核心的인 幹部黨員이 된 사람들은, 어느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대체로 共產主義 理想型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다.

幹部黨員의 基準은 이미 「코민테른」 이전에 벌써 「드미트로프」(Dmitrov)가 幹部黨員의 基準을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었다. 이 基準은 네가지 밖에 되지 않으나, 理解를 할 때는 공산주의식으로 理解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를 敎育할 때 사용되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勞動者의 大義名分에 대한 絶對的인 獻身과 戰時나 投獄時나 法廷에 섰을 때와 같은 敵의 面前에서의 試驗되는 黨에의 忠誠”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獻身의 本質은 自然性和 人間性에 대한 統制를 말한다. “世界를 變化시켜라”는 廣義의 제목에 包含되지 않는 存在 要素는 공산주의자에게는 不必要한 것들이며, 이는 다시 「드미트로프」의 말을 빌리면 “空虛한 추상과 쓸모없는 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공산주의자가 제일 強調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 식으로 이해하는 合理性인 것이다. 「헤겔」에 의하면, 『모든 現實的인 것은 合理的이고, 合理的인

것은 現實的이다』

2) 다음은 “革命理論의 通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는 敎理가 아니라 行動指針이다. 革命理論을 알지 못하고는 혁명을 實踐할 수 없다”. 共產主義 思想에서 가장 重要한 점은 소위 “理論과 實踐의 一致”인 것이다. 理論과 實踐은 併行하고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理論은 實踐을 指導하나 결코 實踐에서 分離되지 않는다. 理論이 實踐으로 化하는 것이 아니라, 實踐과 不可分하게 結合하여, 서로의 存在를 可能하게 하며, 서로를 決定하고, 理論의 抽象性이나 經驗의 實際性에게만 각각 그 獨立의인 確實性을 賦與할 수 없는 그러한 關係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마르크스」이론은 永生하며 살아있는 하나의 人格形式이 되는 것이다. 理論과 實踐의 一致는 共產主義者의 知的인 存在方式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革命理論의 通達이 革命 實踐에 不可避함을 알게 된다.

3) “獨自의으로 進路를 選擇할 수 있는 能力과, 決定을 내리고 그 내린 決定에 대한 責任을 지는 態度”이다. 여기서 그 뜻하는 意味는 單純한 것이지만, 특히 強調할 점은, 훌륭한 공산주의자는 多方面에 걸친 無限한 能力을 갖고 있다고 生覺하는 것이다. “좌파 공산주의자”에게 「레닌」이 가르치기를 공산주의자는 “現代社會의 모든 階級을 包含하는 모든 鬪爭의 複合的인 形態와 姿勢 그리고 方法 등의 廣範한 革命經驗에 通達되어야 한다”고 했다. 훌륭한 共產主義者란,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어떠한 任務도 받아들여”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敵對階級뿐 아니라, 「불세비키」路線에서 벗어난 融和不能인 反對派에 대한 鬪爭에서의 訓練과 「불세비키」式 強硬化”이다. 이는 세번째의 기준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理論과 實踐의 一致”는 共產主義者로 하여금 黨의 行動을 歷史的인 必然性和 同一視 하게 하며, 共產主義者는 「헤겔」의 『自由는 必然性에 대한 認識이다』라는 定義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黨의 自己正當性이나 抽象的인 純粹性 때문에 訓練을 強調하고 黨 路線으로 부더의 偏向을 容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로 武裝된 黨만이 世界革命을 위한 唯一한 科學的인 手段이라고 生覺하기 때문인 것이다. 黨은 物質的인 한 힘으로서(共產主義者에게는, 存在하는 것은 오직 움직이고 있는 物質 뿐이다) 生의 意味를 구현하는 歷史의 한 選擇된 溶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공산주의자는 서로 矛盾되는 冷笑와 理想을 結合시키므로써 그들에게 要求되는 모든 다른 矛盾을 可能하게 만드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는 그의 人生의 原則的인 意味인 歷史와 그 歷史가

選擇한 道具인 黨에의 信賴를 除外한 모든 思想에 對해서는 冷笑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存在하는 黨自體도 그의 冷笑에서 除外될 수는 없다. 實際로 存在하는 黨은 腐敗와 無能力과 不必要한 殘忍性으로 充滿되어 있음은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黨은 끊임없이 共產主義를 向해서 前進하는 歷史의 原動力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은 그의 無條件적인 忠誠을 要求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理想의인 共產主義者의 標準型에 맞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훌륭한 本能과 行動을 抑壓 破壞하는 自己改造을 要求하며, 個人의 完全한 從屬을 要求하는 것이다. 個人과 共產主義者로서 形成過程 間의 葛藤은 두가지의 結果를 가져 온다. 즉 非人間化를 強要하므로써 당에의 反抗과 離脫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와 두번째로는, 意志의 勝利로서 成功적인 共產主義者의 理想型이 되는 경우 등이다.

### 3. 黨의 管理와 訓練(No. 45)

共產主義者의 見解는, 모든 理論은 그에 따른 行動指針의 隨伴을 必要로 한다고 生覺하기 때문에, 共產主義者의 理想型을 設定하고 이 理想型에 따라 人間을 鑄造하기 위한 訓練制度를 樹立하였다. 훈련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黨 特有의 教育制度 :

(1) 「뉴욕」의 「제퍼슨·스쿨」, 「캘리포니아」 노동학교 혹은 勞動者 學校와 같이 당에서 公開發적으로 統制하는 學校 (2) 階級鬪爭, 黨, 現情勢 및 黨路線과 같은 基本的인 問題를 分析研究하는 6週과정의 新入黨員班 (3) 重要한 理論的이고 實用性있는 問題(中·蘇理念紛爭 같은 것)를 다루는 特別班 (4) 最下位級 單位集會에서의 “教育的인 資料”에서부터 國際大會를 包含하는 上級單位 集會에서의 “報告書”에 이르는 (이 報告書는 다시 教育에 活用된다) 黨 會sum이 주는 教育的인 面 (5) 地域, 地方, 國家 및 國際的인 單位の 常設 黨訓練學校 (教育期間은 各各 數週日에서 數年에 이른다)

#### 2) 黨 活動 :

『人生은 訓練이고, 訓練이 人生이다』라는 말은 理論과 實踐의 一致를 다른 方法으로 表現한 말이다. 黨은 어떤 주어진 任務를 完遂하는 것 이외에 그의 課題를 恒常 念頭에 두고 어떤 特定人的 發展을 위해 黨이 賦課했던 活動의 結果와 그 特定人的 發展을 繼續 評價한다. 即 將來가 觸望되는 사람은 좀 더 경험의 많은 公산주의자로부터 개인적인 注視를 받게 된다,

당 訓練學校의 入校는 “階級鬪爭에서의 休息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最高水準에서의 階級鬪爭의 繼續”으로 說明된다. 이 學校들은, 普通 工夫와는 아주 동떨어진 緊張으로 가득차 있다. 왜냐면 思想이 “正”일 때는 善을 위한 힘으로 看做되고, “誤”일 때는 惡을 위한 힘이 된다고 生覺하기 때문이다. 實際 行動에서도 똑같은 論理가 適用된다. 즉, 實際行動에서의 “過誤”는 즉시 “理論의인 缺點”때문이라고 指摘된다.

### 3) 個人生活 :

全體主義 社會의 典型인 黨은, 人生의 각 순간을 黨員 鑄造過程의 素材로서 生覺할 뿐이다. 精神의이고 개인적인 習性에 대해 監視, 分析, 批判을 하는 組織의인 節次를 마련하고 있다. 無心히 하는 말, 잘못된 表現, 家族과 親舊에 대한 態度 또는 당에 대한 忠誠에 배치되는 다른 무엇에 대한 忠誠 등에서 “「부르조아」적 影響”을 探查해 내는 것이다. 그러면 訓練方法은 어떠한가?

#### 1) 責任지는 態度를 가르친다.

“實在에 대한 科學性”을 理解하게 되면 統制를 理解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科學的인 法則”에 따라 統制하도록 指示된 行動에 따른 責任을 理解할 수 있게 된다. 「마르크스」의 古典에서도 모든 思想은 行動을 爲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 壓力 :

주로 다음의 4가지 形式으로, 甚한 繼續的인 壓力을 가한다.

(1) 課業을 주어 負擔을 지우며 또한 稱讚과 非難을 不規則하게 한다. 이는 “歷史의 要求事項”이 隨時로 變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稱讚이나 非難은 責任지는 姿勢를 強하게 하는데 極히 重要하다. 다시 말해서, 壓力이 가중되는 것이다.

(2) 黨路線의 支持鬪爭과 偏向에 대한 反對鬪爭

(3) 繼續的인 批判으로 “過誤”를 表面化시키고 그 原因을 徹底히 調査한다.

(4) “自我批判”으로 自身을 調査하여, 자기가 한 行動과 態도의 “眞實한 意圖”를 알아내고, 그 원인이 “다른 階級性”에 根據를 두고 있지 않나 조사한다. 이와 같은 強力한 手段을 使用하여 公산주의자는 “主觀性”(즉 당 이전에 다른 무엇을 前提하는 것)을 排除하고 “客觀性”(당에의 무조건 獻身)을 確保한다. 이와 같은 壓力手段으로, 精神의인 面뿐아니라, 全體의인 개성을 流動的인 狀態로 만들어 再鑄造가 可能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訓練의 結果에 따라 人間性은 어떻게 變化되는가?

1) 知性은 “그릇된” 價値觀들을 소위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마르크스」주의, 「레닌」主義觀으로 代替함으로써 바꾸어 진다.

2) 意志는 無缺하고 強忍한 것이다. 그 機能은 다시 調整되어, “黨의 指導力은 그 本質에 있어서 正當하다”는 本源의인 判斷의 代理人 노릇을 하게 한다. 공산주의자는, 集團의인 知能에서 보아, 補助數値에 不過한 個人的인 條件을 爲해 그의 強力한 意志力을 행사하는 것을 輕蔑한다.

3) 情緒는 若干의 問題를 提起한다. 그래서 情緒문제에서는 相當히 實用的인 態度를 取한다. 정서가 黨에 有害할 때는 無慈悲하게 抑壓되나, 일반적인 境遇는 당이 요구하는 方向으로 誘導 되고, 이 方向에서 個性을 強化시킨다. (이를 “昇華”되었다고 한다) 또 黨에 대하여 肯定的이지도, 否定的이지도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둔다. (예를 들어, 別문제가 안될 때와 性(sex)과 같은 것)

幹部黨員으로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점은 스스로 壓力을 자신에게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자기의 밖에 있는 “黨”이 아닌 자신의 뼈, 자신의 피로서의 “자기 내부의 黨”이 形成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榮光스러운 “진정한” 「불세비키」가 되는 것이며, 人格鑄造 과정이 뒤집히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過程에서 많은 사람이 脱落하게 된다. “나약자”의 除去가 目的의 하나가 되긴 하지만, 이 過程을 견디고 살아 남는자들 만이 鐵壁같은 黨을 形成할 수 있는 것이다.

#### 4. 外的 葛藤의 處理(No. 46)

「필립·셀즈닉」(Philip Selznick)이 쓴 〈組織上的 武器(Organization Weapon)〉는 黨員과 關聯된 內部問題가 아닌 社會와 關聯된 外部問題를 黨이 處理하는 方法을 가장 具體的으로 理解할 수 있게 쓴 좋은 單行本이다. 叙述的이라기 보다 분석적인 그의 접근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공산당은 “政黨”으로서만이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容納되는 規則과 限界內에서의 政治的인 鬭爭에만 局限하지 않는다.”

2) 공산당의 目的은, “그것이 어떤 程度의 것이든 現存秩序의 轉覆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法秩序內에서 다른 集團과 더불어 活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집단내부에 “侵透”하는 것이다. (小規模 組織에서 國家的 組織으로, 世界的 組織으로 확대시킨다)

3) 공산당의 歷史的인 義務는 공산당이 역사의 道具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권력을 掌握하는 것이다. (고로 「후르시초프」는 『未來는 우리의 것』, 『우리는 너희들을 매장할 것이다』라는 말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4) 이와 같은 무한한 權力追求가 각 공산당의 行動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方法은 無限한 權力追求의 展望과 法的인 節制를 度外視하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破壞的인 것이다.

5)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는, 모든 權力은 그 行動過程(단순한 狹意의 政治的인 行動만이 아님)에서 發生하고, 모든 制度에 內在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의 全體的인 目的은 모든 制度에 政治的인 意味를 賦與하는 全體社會의 改造에 있는 것이다.

6)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의 權力追求는 破壞的이다. 그 理由는 :

(1) 권력추구 활동은, 政治權力이 名目上 獲得된 地域에만 局限하지 않으며

(2) 전체적인 統制를 集中掌握하기까지 그 권력추구 활동은 끊임줄 모르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存在가 容納되는 社會에 到達하기까지 공산당이 取하는 態度는 그 감추어진 목적을 위한 造作의 형태(즉 侵透 및 轉覆)로 나타난다. “積極的”인 工作 외에, 반공산주의 세력을 不信시키고 또 공산당으로 하여금 그 사회의 權力 中心部에서 自由롭게 活動할 수 있게 하는 어떤 原理 같은 것을 지지케하는(言論의 自由 및 憲法과 같이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이를 利用하여 利得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消極的”인 造作도 있다.

그리고 공산당은 既成政黨들과는 달리 組織의 潛在能力을 最高度로 活用하여 繼續的인 權力爭取를 要求하는 戰鬥的인 정당인 것이다. 비록 권력쟁취가 불가능할 때라도 勞動組合, 青年組織 및 平和運動같은 制限된 權力獲得 手段이 恒常 計劃되고 있다. 可能的인 目標을 하나 하나 達成해 나아가는 方法은 訓練과 經驗을 쌓아주고, 最後의 權力爭取에로 이끌어 준다. 그렇기 때문에 “行動”이 重要하며, 공산주의자는 恒常 權力鬪爭 속에서 試驗되고 訓練되는 것이다.

그러면 共產主義者의 轉覆技術은 어떠한 것인가?

1) 直接侵透 :

다른 조직에서 活動하는 共產主義者는 그 組織의 構成員으로서가 아니라 공산諜者로서 活動하는 것이다. 侵透目標가 크든 작든 이 첩자들이 權力獲得을 위해 사용하는 方法은 :

(1) 공산주의 細胞化 또는 植民化로서, 기타 사람들의 團結力이 약할 때



두명 내지 세명으로서 權力目標을 爲해 協同한다.

(2) 組織內에서의 戰略的인 位置確保 (비록 단 한사람의 공산주의자일지라도 예를 들어 書記職 같은 걸 確保하게 한다.)

(3) 機會의 活用 (당원의 推薦, 昇進 및 “적”의 名譽毀損 등이다.)

(4) 黨政策이 迎合될 수 있는 限度내에서 遂行(예를들어, 정치적인 決意 같은 것).

(5) 특히 큰 組織體속에서는 小數의 공산주의자와 協同할 수 있는 “集團”의 형성.

善意的 會員들의 個人的이고 實利主義的이며 때로는 서로 對立되는 관계속에서, 어떤 주어진 目標을 향해 協동할 수 있는, 嚴格하게 짜여진 組織이나 制度 내부의 集團이 되는 것이 問題이다. 이와 같은 집단이 보여주는 効果는 妥協의 態度가 아닌 確定된 目標을 갖고 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國際協商에서 볼 수 있다.

조직을 형성하는 戰術 중 어떤 것은 市民組織에서부터 시작하여 國際會議에 까지 活用된다. 예를 들어 ① 議題에 대한 是非, ② 討議節次의 支配, ③ 旺盛한 精力을 가진 訓練된 공산주의자만이 投票時까지 견딜 수 있도록 장시간의 會議을 열어 反對派를 除外시킨다. (국제협상에서는 이 방법이 遲延作戰의 形態를 取한다)

2) 공산주의자의 戰線組織(Communist front Organization) : 侵透 및 轉覆의 權力掌握 方法과 비슷한 것으로 全戰線(Whole front Organization)方式이 있다. ① 細胞와 믿을 만한 同調者 集團이 發議하여 召集하고 임시 進行계획을 수립한다. ② 合法性을 保障하기 위한 發起者를 내 세운다. ③ 서류와 職인을 接觸할 수 있는 書記職은 黨員이 맡는다. ④ 大衆에 잘 알려진 有名한 사람이 名目上의 最高 指導者로 앉고, 信賴할 만한 有能한 執行部署가 실무를 담당한다. ⑤ 임시기구에서 마련한 節次와 計劃을 認準하는 組織的인 集會가 있고, 뒤따라 大衆에 呼訴하는 方法을 취한다.

이와 같은 方法은 어떤 組織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취하는 通常的인 方法이지만, 重要한 點은, 全體組織에 대한 당 통제를 維持하기 위하여 重要부서에 대해 강력한 당 통제를 실시 한다는 것이다.

3) 聯合戰線(United front) :

이는 서로 도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위하여 他集團과 協동하는 것이다. 모든 聯合戰線(국제적인 면에서는 동맹)은 이와 같은 이용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모든 同盟은 당면한 공동목표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까지는 相互 自己利益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權力인 것이다) “平和共存”이란 진술의 形式에 불과하다. “人民戰線 戰術”과 같은 방법으로 본질상 모순되는 여러 세력들 가운데서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 협동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에게는 “의미없는 일”이 아닌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는 개의하지 않으며, 단지 “階級鬭爭의 別個 形式”이라 부르고 있다.

오늘날 모든 大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침투와 戰線組織과 聯合戰線 등을 서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예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동남아, 「알제리아」, 인도, 南美, 「아프리카」 신생국 등이 그 좋은 예이다.

### 5. 共產主義의 呼訴力(No. 47)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영향에 쉽게 물들고, 마침내는 공산주의자로 진향하게 되는가?

1) 客觀的인 要因들(공산당의 造作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산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 風土를 조성하는 요인들)

(1) 사회적인 前提條件—기성관습, 생활태도 및 제도 등에 대한 소외감과 더불어 절망적인 이유에서든 희망적인 이유에서든 하여튼 변화를 바라는 마음 이는 他文明의 倫理觀이 타락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구 윤리관의 崩壞와 더불어 20세기에 와서 생긴 普偏的인 현상이다—

(2) 개인에게 影響을 미치는 偶然的인 요소들로서 個人이 살게 된 지역, 관계하는 업종 및 선택한 직업 등에서의 左傾的인 색채의 강도와, 그와 같은 사회적인 압력의 영향에 대처할만큼 관심을 갖고 추구 했는가와 여부, 단순한 “전격파업”과 같은 경우로 순수한 交友關係, 讀書內容, 정기간행물 및 선전책자 등의 영향등을 들 수 있다.

(3) 本質的인 要因은, 개인에 대해 偶然的인 것은 아니나 당의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客觀的”인 것이다. 즉 강력하게 뿌리박은 信仰心의 유무, 이미 굳어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태도, 성숙도 및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年壽의 作用 등이다. (기질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은 개인의 感染可能性을 결정하기 보다는 개인에 접근하는 방법의 결정에 더 影響을 준다. 즉 공산당은 모든 가능한 심리적인 유형을 다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2) 主觀的인 요인들(감염가능성 증대를 위한 당 자체의 役割)

(1) 宣傳·煽動—군중집회, 문학활동 및 대중운동 등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선전과 선동은 다르나 선전은 黨計劃을 위해 광범위하게 活用하지를 않

고 個人의 共產主義化를 위해 集中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2) 보통 共產주의전선 조직 또는 共產당이 활동할 수 있는 合法的인 조직(예를 들어, 노동조합, 平和集團, 소비자 집단, 시민조직 및 정당들)과 같은 것을 통해서 대중과 개인을 행동에 흡수시킨다.

3) 黨員 確保 技術 :

個人이 당의 “煽動”에 물들게 되고, 행동에 吸收되고, 또 행동에 熱意를 갖게 된 다음 당의 과제는 個人을 자기 개인의 位置로부터 시작하여 당의 위치를 認定할 때까지 하나 하나 논리적으로 說明해 주는 일이며, 당에 대한 개인의 情緒인 반응을 極大化시켜 개인의 思考에서 당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通常인 것이 되도록 하여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현재의 정신적 혼란을 일관된 사상으로 대치시키는 일인 것이다.

조직적이며 직접적인 接觸과, 접촉 후의 계속적인 점점 및 사후배려에 따라 그 결과가 成功的일 수 있다. 당원으로서의 실제 가입은 共產주의자로 “成熟”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이루어지며, 이 성숙도에 대한 판단은 必然的으로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르게 된다. 즉 開放期(공산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적인 시기)인가 아니면 閉鎖期(공산주의에 대해 적대적이고 분쇄를 기도하는 시기)인가에 따라 다르다. “最後瞬間에 가서의 거부”는 公산주의로의 전향에만 局限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致命的인 것이 된다.(당의 관점에서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 순간에 가서 失敗하면, 영원히 敵對意識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비웃음과, 비판하는 “同調者”상태의 정도밖에 되지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特別한 노력을 하게 된다. 즉 權威와 훌륭한 說得力을 가진 지도적인 당원이 직접 협조한다. 때로는 전향을 거부하면서도 이를 假裝하는 수가 있다. 이 때는 압력과 기교를 직접 혹은 교묘하게 併行하여 표면화 시킨다.

입당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쏟는 시간과 精力은 다음 두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 및 잠재적인 영향력과 또 간부당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인 것이다.(이를 판단 함에는 경험과 직관이 문제가 된다)

4) 요컨대, 당원이 最終인 입당을 하는 것은 共產主義자가 되고 싶어서 이지 어떤 特別한 論爭對象이나 運動때문은 아닌 것이다. 이때 그들은 이 決定이 아주 重大한 것임을 알고 또한 느낀다. 왜냐하면, 共產主義는 賤하고 些少한 動機에 對해서가 아니라(노골적인 權力에의 意圖는 제쳐두고) 人間性의 깊고 넓은 면에 對하여 呼訴하기 때문이다.

共産黨員의 確保過程은 個人으로서의 人間에 注力하고 있다. 그러나 그 以後의 鑄造過程에서는 그의 이 個人性을 破壞함으로서만이 理想的인 共産主義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6. 南美에서의 共産主義(No. 48)

1) 美國에 對한 南美의 戰略的인 重要性 :

(1) 美國은 年間 約 50億弗의 돈을 自信과 全世界 友邦國家들의 自由를 保護하고 維持하기 위해 支出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理由로 南美는 美國에게 가장 重要한 觀心의 對象이 되는 地域인 것이다.

① 地理的인 位置

② 「판타나모」기지와 「파나마」 운하의 戰略的인 重要性

③ 傳統的인 政策(「몬로」主義 및 美洲 内外 機構들)

④ 戰略物資 輸入源으로서의 重要性

2) 南美에서의 理念的인 위협과 그 本質 :

(1) 非 社會主義 世界에 대한 共産主義者의 의도를 보여주는 가장 重要한 說明은 “世界 共産主義 運動에서의 새로운 勝利에 대해”라는 1961年 1月 6日 前 首相 「후르시초프」가 한 演說인 것이다.

(2) 이 演說에서 「후르시초프」는 資本主義와 대의정치제도는 破壞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獨裁로 대체되고 말 것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歷史的인 不變의 法則을 再 反覆하고 있다.

(3) 그러나 世界 先進地域에 대해서는, 社會主義를 實現하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달성하기 위한 故意的인 戰爭手段의 使用은, 全面戰이든 制限戰 이든 이를 否認하고 있다.

그 理由는 :

① 勝利는 共存을 통해 獲得될 수 있기 때문에 全面戰은 不必要하다.

② 全面戰은 「프롤레타리아」와 그의 전위인 共産黨에게 너무 過重한 難 관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점.

③ 「레닌」이 全面戰만이 世界 社會主義의 勝利에 不可避한 手段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

④ 制限戰은 全面的인 核戰爭으로 擴大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만 한다는 점. (全面戰이나 制限戰의 計劃的인 活用을 否認할 때, 그 이런 理由에는 소련과 社會主義 世界가 戰爭 手法을 效果的으로 利用할 軍

事的인 能力이 不足했던 까닭이 있었다)

(4) 全面戰이나 制限戰의 故意的인 활용을 否認하면서도, 美國이나 自由友邦이 平和롭게 전복되지 않을 때는(1974~75년 쯤) 共産主義者들은 社會主義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받아들여도록 強要할 것이라고 「후루시초프」는 分明히 말하고 있다.

(5) “平和共存”(1961. 1. 16일 演說에서) : 『平和共存은 社會主義를 위해 鬪爭하는 進歩勢力의 發展을 도우며 또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共産黨과 또 다른 勞動階級의 進歩的인 組織活動을 促進하는 것이다. 平和共存 政策은 國際社會에서 帝國主義의 侵略的인 勢力에 對抗하는 無産階級의 強力한 經濟的, 政治的 및 理念的인 鬪爭의 한 形態인 것이다』

(6) 「후루시초프」는 「아프리카, 아세아 및 남미와 같은 後進地域을 “活動戰線(Afire-Front)”이라 부르고, 이 地域에서 “民衆烽起” 또는 “民族解放戰爭”이라 이름붙인 침투, 파괴, 반란 및 「게릴라」전쟁 등을 混合 活用함으로써 社會主義가 勝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 “民衆烽起” 및 “民族解放 戰爭”에 대한 見解 : 1961년 1월 16일, 「후루시초프」는 『이와 같은 戰爭은 認定할 수 있을뿐 아니라 不可避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戰爭을 認定하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人민들을 援助하고 또 支援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正當한 戰爭을 全面的으로 支持하며, 또 해방투쟁을 하는 人민의 代열에 서서 같이 進軍할 것이다.』라 함으로써 民중봉기 및 민족해방 전쟁을 강조했다.

### 3) 現實的인 中共과 소련의 威脅 概要 :

(1) 소련과 中共이 後援해 온 국제기구들은 장기간에 걸쳐 남미의 공산당·전선조직 및 叛亂集團들에게 諜者, 資金, 訓練 및 指導를 提供해 오고 있다.

(2) 오늘날 수천명의 南美人들이 「프라고」, 「모스크바」, 북경 및 「쿠바」에서 訓練을 받고 있다.

(3) 소련과 中공은 1959년 1월 「쿠바」의 「카스트로」 執權이후, “民衆烽起” 및 “民族解放 戰爭”을 사주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訓練組織 및 行動組織을 크게 강화시켰다.

(4) 南美에서의 全 共産黨員의 수는 최근 1963년까지 25만명에 달할 程度로 증가되었다.

(5) 全共産陣營의 放送시간(「모스크」, 북경, 「프라고」, 「부다페스트」, 「소피아」, 「부카레스트」, 「와르샤와」, 「빌니우스」, 「티라나」 및 동독 등)은 1962년 「카스트로」를 지원하는 113시간을 제외하고도 주 220시간에 달했다.

4) 「쿠바」의 赤色基地 :

(1) 소련은 「쿠바」에 MRBM과 IRBM 및 核 運搬이 가능한 IL-28폭격기를 배치하여 軍事力의 均衡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2) 前美國大統領 「케네디」는, 「쿠바」에서의 미국에 대한 소련의 核威脅을 용서할 수 없다는 結論을 내리고, 外交的인 節次 및 軍事력으로 이의 阻止에 성공하였다.

(3) 그러나 1962년 9월의 對決에서의 승리는 制限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現場視察를 끝내지 않고 봉쇄를 해제하였기 때문이다.

(4)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維持할 수가 있었으며, 「카스트로」 정부는 중공, 소련 및 東歐 衛星國들과 協助하여 “인민봉기”와 “민족해방 전쟁”을 남미에 輸出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남미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세련된 軍事力과 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쿠바」는 최소한 약 1,500명 정도의 南美人을 「인민봉기」와 “민족해방 전쟁”에 參與할 행동대로서 훈련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7. 美國의 共產黨(No. 49)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組織화된 前衛”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가르침으로 武裝하고, 또한 그것이 일상적인 계급투쟁을 指導한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행동지침으로 하고 있다.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을 指導하여, 자본주의를 革命的인 방법으로 轉覆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수립하여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第一階段로서의 사회주의 소련 공화국과 같은 形態를 미국에 세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黨은 자신이 그 一部를 이루고 있는 全世界 공산주의 운동의 성공에서 鼓舞을 받는다. 黨은 그가 運用하는 여러 형태의 戰線 및 中間組織 등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始 初:

미국 공산당(C.P.U.S.A)은 1919년 사회당으로부터의 大規模的인 除名과 脫黨의 結果로 형성되었다. 사회당 좌파는,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칼·마르크스」에 대한 「레닌」의 혁명적인 觀點에서의 해석에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레닌」主義 공산당의 樹立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기성 사회질서 내부에서 強力한 혁명적인 變革을 조직 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수립에 그 목표를 두게 되었다.

2) 構 成 :

당 조직의 초기 形成期에는 단지 소수의 土着分子들 뿐이었다. 당원의 대부분은 民族集團(「핀란드」인, 「러시아」인, 유대인, 독일인, 「헝가리」인, 남「슬라브」인, 「리투아니아」인 등 기타) 들이 聯合組織된 불평분자들로 구성 되어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集團들의 연합체는 事務局이 지도하고, 후에 「民族集團委員會」라 부른 「言語部」에서 통괄하고 있었다.

민족집단들은 自治制를 채택 하였으며,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출 하였다. (초기 형성기에서부터 「民主主義的인 中央集權主義」概念과 혼련의 개념에 입각한 중앙집권화된 지도력을 갖춘 一糸不亂한 당 조직체제를 갖게 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

종족적인 黨員構成에 변화가 생긴 것은 전례없는 국내 및 국제적인 불안 때문이었으며, 제 2世들의 세도를 가져왔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계속된 恐怖期間에 실업자 계열에서 많은 분자들이 입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1次 波動이며, 2次 波動은 구라파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擡頭됨에 따라 「화이트·칼라」 계열에서 일어났다. 중요 산업분야에서의 産業別 勞動組合主義(C.I.O)의 형성과 그 발전은 노동운동(1936~1948)에서 機會主義的인 분자들을 흡수하게 한 3次 波動이 일어나게 하였다.

3) 新型의 政黨 :

高度로 中央集權化된 黨은 1932년에 이르러 「불세비키」화에 그 정열을 쏟게 되었다. 전국의 基幹産業에 目標를 둔 産業 集中化政策을 전개하였다. 또한 有能하고 獻身的인 충성스런 당원들이 職業革命家로 발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른 합법적인 정당들과는 달리, 당구조에서 공장단위의 支部가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단위로 중요시되었다.

8. 美國에서의 共産黨(No. 50)

○ 地下 共産黨으로

1) 潛跡한 理由 :

본래의 성격상, 공산주의 운동은 “「부르조아」法體制”를 信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탄압이 있을 때는, 당이 그 의무를 이행하고 組織과 指導力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類似한 非合法的 機構를 創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秘密組織은 합법적인 공산당과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하며 이를 지하조직이라 부른다.

2) 地下組織의 形態 :

#### 94 共 産 黨

(6) 조직에서 支出한 費用과 黨資金은 한푼까지도 엄격하고 계속적인 統制를 해야 한다.

(7) 가장 初步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비합적인 활동과 음모는 당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8) 警察諜者는 그 身分을 밝혀, 이름, 사진 및 신체적인 特性을 당 신문에 실어 모두가 알게 한다.

(9) 企業이나 또는 特定 分野의 노동자편에 서서 활동을 지도함으로서 첩자를 발견 축출하게 한다.

(10) 첩포시 黨 指導者는 즉시 住居를 옮긴다.



## 第 4 章 共産主義 批判의 準據

### 1. 共産主義와 科學的 方法(No. 51)

공산주의가 과학에 土臺를 두고 있다는 觀念은 虛僞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허위성을 두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것이다. 즉 ① 중요한 공산주의 理念을 再檢討하여 이 理論들이 科學에 土臺를 두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妥當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 하였는지를 검토하며 ② 「마르크스」가 그의 經濟的인 思想에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根據와 그 妥當性を 엄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 1)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心概念 :

(1) 唯物論과 無神論 : 이와 같은 窮極的인 주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달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일반적인 觀點에서 보아 과학의 領域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레닌」도 神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누구든 자기나름의 이유를 가질 자유는 있지만, 단순히 唯物論의 입장을 취하고 종교는 有害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는 科學에 土臺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적으로 誤謬임을 입증하기는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2) 인간의 本質과 慾求 :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이며, 그가 要求하는 바는 노동자로서 疏外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이론은 과학적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理論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사용한 科學的인 方法이란 부적당한 것이다. 비록 이 思想이 刺戟적이기는 하지만 古典的인 思想에서 보나 心理學과 같은 現代的인 探究方法에서 볼 때 確認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많은 試驗을 거쳐야 할 하나의 假定으로 밖에 생각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가장 肯定的으로 받아 들였을 때이다.

(3) 歷史法則 : 「마르크스」의 역사법칙은 과학적인 調査로서만 그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마르크스」는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觀察과 調査를 하지 않았다. (그의 법칙은 기껏해서 興味있고 그럴듯할 뿐이

다.) 동시에 歷史란 捕捉하기 어려운 것이며,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歷史 法則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4) 資本主義 分析 : 여기서도 조사수단으로서는 實測科學이 타당하며, 그 내용은 아직도 探求 中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그의 豫言이 실패한 사실이나, 勞動價值論과 같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최근의 科學的인 연구에서 증명되지 못한 事實들로 보아 科學的으로 妥當하다고 할 수가 없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表現 中에서 「마르크스」식으로 자본주의를 非難하는 것이 가장 부자연스럽고, 또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5) 未來 革命 : 지금까지 두계급으로 된 사회가 출현하지도 않았으며, 산업 「프롤레타리아」가 「마르크스」식의 혁명을 기도한 일도 없다.

(6) 未來 : 서구사상에서의 倫理的인 가치기준을 혼합한 이 사상은 唯物論이나 無神論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주장과 같이 엄격한 과학적인 檢討와는 거리가 멀다. 倫理觀을 특수하게 混合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無神論과 唯物論이 궁극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허위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2) 「레닌」에 눈을 돌려 그의 사상의 根據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마르크스」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는 強韌한 마음과, 일반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는 인간형이었다. 그는 당시의 「러시아」 政治情勢를 예리하게 觀察分析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實用的인 의미에서 判斷컨대, 그의 공산당 理論(組織과 方法과 戰術 등)은 世界赤化의 福音이었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適用方法도 불충분한 것이다. 과학에 근거두고 있지 않은 공산당 이론은 과학에 근거를 둔 知的인 攻擊에는 상당히 무감각하고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自身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사회의 批判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呼訴하는 것은 항상 革命的이며 또 어떤점에서는 갈구하고 있는 「榮光스러운 未來」가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로부터 出現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점에서 다같이 불충분함을 면할 수 없다.

3) 공산주의 理論이 科學的인 調查方法에 立却하여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산주의의 經濟理論은 과학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反復된 實驗과 觀察을 통해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定義한 바도 없으며, 또 이와 같이 사용한

두명 내지 세명으로서 權力目標을 爲해 協同한다.

(2) 組織內에서의 戰略的인 位置確保 (비록 단 한사람의 공산주의자일지라도 예를 들어 書記職 같은 걸 確保하게 한다.)

(3) 機會의 活用 (당원의 推薦, 昇進 및 “적”의 名譽毀損 등이다.)

(4) 黨政策이 迎合될 수 있는 限度내에서 遂行(예를들어, 정치적인 決意 같은 것).

(5) 특히 큰 組織體속에서는 小數의 공산주의자와 協同할 수 있는 “集團”의 형성.

善意的 會員들의 個人的이고 實利主義的이며 때로는 서로 對立되는 관계속에서, 어떤 주어진 목표를 향해 협동할 수 있는, 嚴格하게 짜여진 組織이나 制度 내부의 集團이 되는 것이 問題이다. 이와 같은 집단이 보여주는 効果는 妥協의 態度가 아닌 確定된 目標을 갖고 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國際協商에서 볼 수 있다.

조직을 형성하는 戰術 중 어떤 것은 市民組織에서부터 시작하여 國際會議에 까지 活用된다. 예를 들어 ① 議題에 대한 是非, ② 討議節次의 支配, ③ 旺盛한 精力을 가진 訓練된 공산주의자만이 投票時까지 견딜 수 있도록 장시간의 會議을 열어 反對派를 除外시킨다. (국제협상에서는 이 방법이 遲延作戰의 形態를 取한다)

2) 공산주의자의 戰線組織(Communist front Organization) : 侵透 및 轉覆의 權力掌握 方法과 비슷한 것으로 全戰線(Whole front Organization)方式이 있다. ① 細胞와 믿을 만한 同調者 集團이 發議하여 召集하고 임시 進行情劃을 수립한다. ② 合法性을 保障하기 위한 發起者를 내 세운다. ③ 서류와 직원을 接觸할 수 있는 書記職은 黨員이 맡는다. ④ 大衆에 잘 알려진 有名한 사람이 名目上의 最高 指導者로 앉고, 信賴할 만한 有能한 執行部署가 실무를 담당한다. ⑤ 임시기구에서 마련한 節次와 計劃을 認準하는 組織的인 集會가 있고, 뒤따라 大衆에 呼訴하는 方法을 취한다.

이와 같은 方法은 어떤 組織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취하는 通常的인 方法이지만, 重要한 點은, 全體組織에 대한 당 통제를 維持하기 위하여 重要부서에 대해 강력한 당 통제를 실시 한다는 것이다.

3) 聯合戰線(United front) :

이는 서로 도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위하여 他集團과 협동하는 것이다. 모든 聯合戰線(국제적인 면에서는 동맹)은 이와 같은 이용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모든 同盟은 당면한 공동목표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까지는 相互 自己利益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權力인 것이다) “平和共存”이란 진술의 形式에 불과하다. “人民戰線 戰術”과 같은 방법으로 본질상 모순되는 여러 세력들 가운데서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 협동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에게는 “의미없는 일”이 아닌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는 개의하지 않으며, 단지 “階級鬪爭의 別個 形式”이라 부르고 있다.

오늘날 모든 大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침투와 戰線組織과 聯合戰線 등을 서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예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동남아, 「알제리아」, 인도, 南美, 「아프리카」 신생국 등이 그 좋은 예이다.

### 5. 共產主義의 呼訴力(No. 47)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영향에 쉽게 물들고, 마침내는 공산주의자로 진향하게 되는가?

1) 客觀的인 要因들(공산당의 造作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산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 風土를 조성하는 요인들)

(1) 사회적인 前提條件—기성관습, 생활태도 및 제도 등에 대한 소외감과 더불어 절망적인 이유에서든 희망적인 이유에서든 하여튼 변화를 바라는 마음 이는 他文明의 倫理觀이 타락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구 윤리관의 崩壞와 더불어 20세기에 와서 생긴 普遍的인 현상이다—

(2) 개인에게 影響을 미치는 偶然的인 요소들로서 個人이 살게 된 지역, 관계하는 업종 및 선택한 직업 등에서의 左傾的인 색채의 강도와, 그와 같은 사회적인 압력의 영향에 대처할만큼 관심을 갖고 추구 했는가의 여부, 단순한 “진격과업”과 같은 경우로 순수한 交友關係, 讀書內容, 정기간행물 및 선전책자 등의 영향등을 들 수 있다.

(3) 本質的인 要因은, 개인에 대해 偶然的인 것은 아니나 당의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客觀的”인 것이다. 즉 강력하게 뿌리박은 信仰心의 유무, 이미 굳어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태도, 성숙도 및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年壽의 作用 등이다. (기질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은 개인의 感染可能性을 결정하기 보다는 개인에 접근하는 방법의 결정에 더 影響을 준다. 즉 공산당은 모든 가능한 심리적인 유형을 다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2) 主觀的인 요인들(감염가능성 증대를 위한 당 자체의 役割)

(1) 宣傳·煽動—군중집회, 문학활동 및 대중운동 등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선전과 선동은 다르나 선전은 黨計劃을 위해 광범위하게 活用하지를 않

고 個人的 共産主義化를 위해 集中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2) 보통 공산주의전선 조직 또는 공산당이 활동할 수 있는 合法的인 조직(예를 들어, 노동조합, 平和集團, 소비자 집단, 시민조직 및 정당들)과 같은 것을 통해서 대중과 개인을 행동에 흡수시킨다.

### 3) 黨員 確保 技術 :

個人이 黨的의 “煽動”에 물들게 되고, 행동에 吸收되고, 또 행동에 熱意를 갖게 된 다음 黨的의 과제는 個人을 자기 個人的인 位置로부터 시작하여 黨的의 위치를 認定할 때까지 하나 하나 논리적으로 說明해 주는 일이며, 黨에 대한 個人的인 情緒인 반응을 極大化시켜 個人的인 思考에서 黨에 대한 正서적인 반응이 通常인 것이 되도록 하여 個人的인 마음속에 존재하는 현재의 正心적 혼란을 일관된 사상으로 대치시키는 일인 것이다.

조직적이며 직접적인 接觸과, 접촉 후의 계속적인 접촉 및 사후배려에 따라 그 결과가 成功의 일 수 있다. 黨원으로서의 실제 가입은 공산주의자로 “成熟”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이루어지며, 이 성숙도에 대한 판단은 必然的으로 당시의 政治적인 분위기에 따르게 된다. 즉 開放期(공산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적인 시기)인가 아니면 閉鎖期(공산주의에 대해 적대적이고 분쇄를 기도하는 시기)인가에 따라 다르다. “最後瞬間에 가서의 거부”는 공산주의로의 전향에만 局限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致命的인 것이 된다.(黨的의 觀點에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 순간에 가서 失敗하면, 영원히 敵對意識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비웃음과, 비판하는 “同調者”상태의 정도밖에 되지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特別한 노력을 하게 된다. 즉 權威와 훌륭한 說得力을 가진 지도적인 黨원이 직접 協助한다. 때로는 전향을 거부하면서도 이를 假裝하는 수가 있다. 이 때는 압력과 기교를 직접 혹은 교묘하게 併行하여 표면화시킨다.

입당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쏟는 시간과 精力은 다음 두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 및 잠재적인 영향력과 또 간부 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인 것이다.(이를 판단 함에는 경험과 직관이 문제가 된다)

4) 요컨대, 黨원이 最終인 입당을 하는 것은 共産主義者가 되고 싶어서 이지 어떤 特別한 論爭對象이나 運動때문은 아닌 것이다. 이때 그들은 이 決定이 아주 重大한 것임을 알고 또한 느낀다. 왜냐하면, 共産主義는 賤하고 些少한 動機에 對해서가 아니라(노골적인 權力에의 意圖는 제쳐두고) 人間性의 깊고 넓은 面에 對하여 呼訴하기 때문이다.

共産黨員의 確保過程은 個人으로서의 人間에 注力하고 있다. 그러나 그以後의 鑄造過程에서는 그의 이 個人性을 破壞함으로써만이 理想的인 共産主義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6. 南 美 에서 의 共 産 主 義 (No. 48)

1) 美國에 對한 南 美 의 戰 略 的 인 重 要 性 :

(1) 美國은 年間 約 50億弗의 돈을 自信과 全世界 友邦國家들의 自由를 保護하고 維持하기 위해 支出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理由로 南 美는 美國에게 가장 重要한 觀心의 對象이 되는 地域인 것이다.

① 地理的인 位置

② 「판타나모」기지와 「파나마」 운하의 戰略的인 重要性

③ 傳統的인 政策(「몬로」主義 및 美洲 内外 機構들)

④ 戰略物資 輸入源으로서의 重要性

2) 南 美 에서 의 理 念 的 인 위 협 과 그 本 質 :

(1) 非 社會主義 世界에 대한 共産主義者의 의도를 보여주는 가장 重要한 說明은 “世界 共産主義 運動에서 의 새로운 勝利에 대해”라는 1961年 1月 6日 前 首相 「후르시초프」가 한 演說일 것이다.

(2) 이 演說에서 「후르시초프」는 資本主義와 代의정치제도는 破壞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獨裁로 代換되고 말 것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歷史的인 不變의 法則을 再 反覆하고 있다.

(3) 그러나 世界 先進地域에 대해서는, 社會主義를 實現하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달성하기 위한 故意的인 戰爭手段의 使用은, 全面戰이든 制限戰 이든 이를 否認하고 있다,

그 理由는 :

① 勝利는 共存을 通해 獲得될 수 있기 때문에 全面戰은 不必要하다.

② 全面戰은 「프롤레타리아」와 그의 前위인 共産黨에게 너무 過重한 負擔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점.

③ 「레닌」이 全面戰만이 世界 社會主義의 勝利에 不可避한 手段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

④ 制限戰은 全面的인 核戰爭으로 擴大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만 한다는 점. (全面戰이나 制限戰의 計劃的인 活用을 否認할 때, 그 이면의 理由에는 소련과 社會主義 世界가 戰爭 手法을 効果的으로 利用할 軍

事的인 能力이 不足했던 까닭이 있었다)

(4) 全面戰이나 制限戰의 故意인 활용을 否認하면서도, 美國이나 自由友邦이 平和롭게 진복되지 않을 때는(1974~75년 쯤)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받아들여도록 強要할 것이라고 「후르시초프」는 分明히 말하고 있다.

(5) “平和共存”(1961. 1. 16일 演說에서) : 『平和共存은 社會主義를 위해 鬪爭하는 進歩勢力의 發展을 도우며 또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共產黨과 또 다른 勞動階級의 進歩的인 組織活動을 促進하는 것이다. 平和共存 政策은 國際社會에서 帝國主義의 侵略的인 勢力에 對抗하는 無產階級의 強力한 經濟的, 政治的 및 理念的인 鬪爭의 한 形態인 것이다』

(6) 「후르시초프」는 「아프리카」, 아세아 및 남미와 같은 後進地域을 “活動戰線(Afire-Front)”이라 부르고, 이 地域에서 “民衆烽起” 또는 “民族解放戰爭”이라 이름붙인 칠투, 파피, 반란 및 「게릴라」전쟁 등을 混合 活用함으로써 社會主義가 勝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 “民衆烽起” 및 “民族解放 戰爭”에 대한 見解 : 1961년 1월 16일, 「후르시초프」는 『이와 같은 戰爭은 認定할 수 있을뿐 아니라 不可避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戰爭을 認定하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人민들을 援助하고 또 支援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正當한 戰爭을 全面的으로 支持하며, 또 해방투쟁을 하는 人민의 代열에 서서 같이 進軍할 것이다.』라 함으로써 民중봉기 및 민족해방 전쟁을 강조했다.

### 3) 現實的인 中共과 소련의 威脅 概要 :

(1) 소련과 中共이 後援해 온 국제기구는 장기간에 걸쳐 남미의 공산당, 전선조직 및 叛亂集團들에게 諜者, 資金, 訓練 및 指導를 提供해 오고 있다.

(2) 오늘날 수천명의 南美人들이 「프라고」, 「모스크바」, 북경 및 「쿠바」에서 訓練을 받고 있다.

(3) 소련과 중공은 1959년 1월 「쿠바」의 「카스트로」 執權이후, “民衆烽起” 및 “民族解放 戰爭”을 사주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訓練組織 및 行動組織을 크게 강화시켰다.

(4) 南美에서의 全 共產黨員의 수는 최근 1963년까지 25만명에 달할 程度로 증가되었다.

(5) 全共產陣營의 放送시간(「모스크」, 북경, 「프라크」, 「부다페스트」, 「소피아」, 「부카레스트」, 「와르샤와」, 「빌니우스」, 「티라나」 및 동독 등)은 1962년 「카스트로」를 지원하는 113시간을 제외하고도 주 220시간에 달했다.

4) 「쿠바」의 赤色基地 :

(1) 소련은 「쿠바」에 MRBM과 IRBM 및 核 運搬이 가능한 IL-28폭격기를 배치하여 軍事力의 均衡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2) 前美國大統領 「케네디」는, 「쿠바」에서의 미국에 대한 소련의 核威脅을 용서할 수 없다는 結論을 내리고, 外交의인 節次 및 軍事력으로 이의 阻止에 성공하였다.

(3) 그러나 1962년 9월의 對決에서의 승리는 制限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現場觀察을 끝내지 않고 봉쇄를 해제하였기 때문이다.

(4)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쿠바」에 軍사기지를 維持할 수가 있었으며, 「카스트로」 정부는 중공, 소련 및 東歐 衛星國들과 協助하여 “인민봉기”와 “민족해방 전쟁”을 남미에 輸出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남미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세련된 軍事力과 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쿠바」는 최소한 약 1,500명 정도의 南美人을 「인민봉기」와 「민족해방 전쟁」에 참여할 행동대로서 훈련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7. 美國의 共產黨(No.49)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組織화된 前衛”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가르침으로 武裝하고, 또한 그것이 일상적인 계급투쟁을 指導한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행동지침으로 하고 있다.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을 指導하여, 자본주의를 革命的인 방법으로 轉覆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수립하여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第一階段으로서의 사회주의 소련 공화국과 같은 形態를 미국에 세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黨은 자신이 그 一部를 이루고 있는 全世界 공산주의 운동의 성공에서 鼓舞을 받는다. 黨은 그가 運用하는 여러 형태의 戰線 및 中間組織 등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始 初 :

미국 공산당(C.P.U.S.A)은 1919년 사회당으로부터의 大規模의인 除名과 脫黨의 結果로 형성되었다. 사회당 좌파는,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칼·마르크스」에 대한 「레닌」의 혁명적인 觀點에서의 해석에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레닌」主義 공산당의 樹立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기성 사회질서 내부에서 強力한 혁명적인 變革을 조직 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수립에 그 목표를 두게 되었다.



2) 構 成 :

당 조직의 초기 形成期에는 단지 소수의 土着分子들 뿐이었다. 당원의 대부분은 民族集團(「핀란드」인, 「러시아」인, 유대인, 독일인, 「헝가리」인, 남「슬라브」인, 「리투아니아」인 등 기타) 들이 聯合組織된 불평분자들로 구성 되어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集團들의 연합체는 事務局이 지도하고, 후에 「民族集團委員會」라 부른 「言語部」에서 통괄하고 있었다.

민족집단들은 自治制를 채택 하였으며,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출 하였다. (초기 형성기에서부터 「民主主義的인 中央集權主義」概念과 혼련의 개념에 입각한 중앙집권화된 지도력을 갖춘 一糸不亂한 당 조직체계를 갖게 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

종족적인 黨員構成에 변화가 생긴 것은 전례없는 국내 및 국제적인 불안 때문이었으며, 제 2世들의 쇄도를 가져왔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계속된 恐怖期間에 실업자 계열에서 많은 분자들이 입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1次 波動이며, 2次 波動은 구라파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擡頭됨에 따라 「화이트·칼라」 계열에서 일어났다. 중요 산업분야에서의 産業別 勞動組合主義(C.I.O)의 형성과 그 발전은 노동운동(1936~1948)에서 機會主義的인 분자들을 흡수하게 한 3次 波動이 일어나게 하였다.

3) 新型的의 政黨 :

高度로 中央集權化된 黨은 1932년에 이르러 「블세비키」화에 그 정열을 쏟게 되었다. 건국의 基幹産業에 目標를 둔 産業 集中化政策을 전개하였다. 또한 有能하고 獻身的인 충성스런 당원들이 職業革命家로 발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른 합법적인 정당들과는 달리, 당구조에서 공장단위의 支部가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단위로 중요시되었다.

8. 美國에서의 共産黨(No. 50)

○ 地下 共産黨으로

1) 潛跡한 理由 :

본래의 성격상, 공산주의 운동은 “「부르조아」法體制”를 信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탄압이 있을 때는, 당이 그 의무를 이행하고 組織과 指導力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類似한 非合法的 機構를 創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秘密組織은 합법적인 공산당과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하며 이를 지하조직이라 부른다.

2) 地下組織의 形態 :

미국 공산당 創設 當時 공산 지도자들은 정부의 탄압으로 地下로 잠적했으며, 이들은 “老人들”이라 불리워졌다. 처음 그들은 막후에서 “노동자의 黨”(Workers Party)을 지도 했고, 1925년부터는 “勞動者의 共産黨”(Workers Communist Party)을 지도했다. 1930년에 가서야 합법적인 “미국 공산당”과 더불어 표면에 나타났다.

정부의 반대로, 地下活動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 經驗에 의거, 미국 공산당도 1948년 그 당원의 10%를 地下組織에 包含시켰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에 따라 이 지하조직에 포함되는 당원의 資格要件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당에 대한 절대적인 獻身과 忠誠을 하는 者
- (3) 산업분야(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는 者
- (3) 能力, 創意性, 強韌性을 가진 者 등이다.

3) 3人制 組織 :

전국은 세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즉 東部, 中西部 그리고 太平洋沿岸이며, 이 세 지방은 다시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다시 지하당원까지 포함되는 全黨員이 조직되어 있었다 .

—뉴욕의 경우—

1 급	3명의 당원	3명이 1집단
2 급	9명의 당원	3명이 3집단
3 급	27명의 당원	3명이 9집단
4 급	81명의 당원	3명이 27집단
5 급	243명의 당원	3명이 81집단
6 급	729명의 당원	3명이 243집단
7 급	2,187명의 당원	3명이 729집단
계	3,279명	3명이 1,093집단

安全上의 이유 때문에 下位級の 당원이 상위급의 당원을 接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조직은 下向式으로만 운영되었다. 지하당원은 단지 6명의 당원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최하위급에서는 3명에 국한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원의 露出可能性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4) 橫的인 組織 :

高位級の 橫적조직에는 주로 아래 문제를 취급하는 유능한 당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① 資金 ② 印刷業務 ③ 油印物 투합처 ④ 지도자 은익처 ⑤ 전

달본부(전화사용) ⑥ 라디오 통신(아마추어) ⑦ 지도자들의 개인서류 ⑧ 신  
체적인 변형

미국 공산당은 故意로 그 당원수를 줄였다. 1950년 당 組織部長 「헨리·윈  
스톤」(Hentry, Winston)은 동년 6월 <데일리·워커誌>에서 말하기를 『당  
원으로 남아있도록 지시된 사람만이 당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고 했다.  
1948년 이후 당원명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5) 地下黨員 規則 :

- (1) 알아야 할 사항만 이야기 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
- (2) 革命家は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 (3) 알아야 할 사항만 問議한다.
- (4) 전화나 서신을 사용할 때 警戒한다.
- (5)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 (6) 四周警戒, 미행이나 監視를 하고 있지 않나 주의한다.
- (7) 자제를 취하지 말고, 陰謀家와 같은 행동으로 남의 이목을 끌지 않는  
다. 행동은 단순히 한다.
- (8) 輕박하고 無關心한 態度를 피한다.
- (9) 신분에 따라 소속된 環境에 적응한다.
- (10) 체포시에는 동료를 해치는 진술을 해서는 안되며, 이름, 주소 등 직  
접, 간접으로 黨과 組織과 당원 개인에게 有害한 사항은 하나라도 말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默秘權을 사용하며, 직접 대질시나 查察當局에 의  
하여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는 이를 頑強히 부인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비록 사소한 기본적인 규칙이지만,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축출될 것  
이다.

6) 組織을 위하여 警察의 查察을 避하는 법 :

- (1) 체포시의 모든 경우를 완전히 分析하고,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檢討  
비교한다.
- (2) 당로선의 訛傳 및 歪曲時에 경계를 강화한다.
- (3) 과도한 好奇心을 보이며, 비밀을 요하는 일을 自講하는 사람은 극도  
로 주의한다.
- (4) 알콜 중독, 公金 橫領, 사치 및 과도한 성(性)관계 등에 특별한 주의  
와 경계를 한다.
- (5) 舜間的이나마, 의심적은 사람이 하는 提案이나 공식적인 동의는 엄밀  
하게 분석해야 한다.

#### 94 共産黨

(6) 조직에서 支出한 費用과 黨資金은 한푼까지도 엄격하고 계속적인 統制를 해야 한다.

(7) 가장 初步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비합적인 활동과 음모는 당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8) 警察諜者는 그 身分을 밝혀, 이름, 사진 및 신체적인 特性을 당 신문에 실어 모두가 알게 한다.

(9) 企業이나 또는 特定 分野의 노동자편에 서서 활동을 지도함으로서 첩자를 발견 축출하게 한다.

(10) 체포시 黨 指導者는 즉시 住居를 옮긴다.

## 第 4 章 共產主義 批判의 準據

### 1. 共產主義와 科學的 方法(No. 51)

공산주의가 과학에 土臺를 두고 있다는 觀念은 虛僞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허위성을 두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것이다. 즉 ① 중요한 공산주의 理念을 再檢討하여 이 理論들이 科學에 土臺를 두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妥當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 하였는지를 검토하며 ② 「마르크스」가 그의 經濟的인 思想에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根據와 그 妥當性을 엄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 1)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心概念 :

(1) 唯物論과 無神論 : 이와 같은 窮極的인 주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달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일반적인 觀點에서 보아 과학의 領域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레닌」도 神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누구든 자기나름의 이유를 가진 자유는 있지만, 단순히 唯物論의 입장을 취하고 종교는 有害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는 科學에 土臺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적으로 誤謬임을 입증하기는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2) 인간의 本質과 慾求 :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이며, 그가 要求하는 바는 노동자로서 疏外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이론은 과학적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理論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사용한 科學的인 方法이란 부적당한 것이다. 비록 이 思想이 刺戟的이기는 하지만 古典的인 思想에서 보나 心理學과 같은 現代的인 探究方法에서 볼 때 確認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많은 試驗을 거쳐야 할 하나의 假定으로 밖에 생각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가장 肯定的으로 받아 들였을 때이다.

(3) 歷史法則 : 「마르크스」의 역사법칙은 과학적인 調査로서만 그 입증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마르크스」는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觀察과 調査를 하지 않았다. (그의 법칙은 기껏해서 興味있고 그럴듯할 뿐이

다.) 동시에 歷史란 捕捉하기 어려운 것이며,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歷史 法則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4) 資本主義 分析 : 여기서도 조사수단으로서는 實測科學이 타당하며, 그 내용은 아직도 探求 中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그의 豫言이 실패한 사실이나, 勞動價值論과 같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최근의 科學的인 연구에서 증명되지 못한 事實들로 보아 科學的으로 妥當하다고 할 수가 없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表現 中에서 「마르크스」식으로 자본주의를 非難하는 것이 가장 부자연스럽고, 또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5) 未來 革命 : 지금까지 두계급으로 된 사회가 출현하지도 않았으며, 산업 「프롤레타리아」가 「마르크스」식의 혁명을 기도한 일도 없다.

(6) 未來 : 서구사상에서의 倫理的인 가치기준을 혼합한 이 사상은 唯物論이나 無神論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주장과 같이 엄격한 과학적인 檢討와는 거리가 멀다. 倫理觀을 특수하게 混合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無神論과 唯物論이 궁극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허위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2) 「레닌」에 눈을 돌려 그의 사상의 根據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마르크스」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는 強靱한 마음과, 일반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는 인간형이었다. 그는 당시의 「러시아」 政治情勢를 예리하게 觀察分析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實用的인 의미에서 判斷컨데, 그의 공산당 理論(組織과 方法과 戰術 등)은 世界赤化의 福音이었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適用方法도 불충분한 것이다. 과학에 근거두고 있지 않은 공산당 이론은 과학에 근거를 둔 知的인 攻擊에는 상당히 무감각하고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自身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사회의 批判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呼訴하는 것은 항상 革命的이며 또 어떤점에서는 갈구하고 있는 “榮光스러운 未來”가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로부터 出現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점에서 다같이 불충분함을 면할 수 없다.

3) 공산주의 理論이 科學的인 調查方法에 立却하여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공산주의의 經濟理論은 과학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反復된 實驗과 觀察을 통해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定義한 바도 없으며, 또 이와 같이 사용한

개념의 결과를 數量的인 방법으로 실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實例는 勞動價値論과 剩餘價値論을 研究해 보면 곧 알게 된다.

(1) 勞動價値論을 科學的으로 說明하려면, 먼저 “勞動”에 대해서 慎重한 定義를 내리고, 다음 이와 같은 定義를 내린 노동의 價値를 充分히 설명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價格問題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勞動”을 生産에 所要된 精神的이고 肉體的인 努力으로 定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을 産業을 위한 肉體的 勞動力과 동일시 하고 있다. 後者は 革命的인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를 2大階級으로 分離시키지만, 정신적인 노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을 産業勞動力으로만 定義를 내린다면 價値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資本家, 監督者 및 經營者集團이 쏟는 勞動과 努力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으며, 사회에서 다수를 占하고 있는 一般職業人이나 政府官吏 그리고 농민들은 完全히 無視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勞動이란 概念을 사회의 과학적인 조사에 有用한 精確하고 반복된 實驗을 거친 분석수단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들이 발전시킨 개념이란 혁명적인 呼訴力을 가진 애매한 개념들인 것이다.

(2) 剩餘價値論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노동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補償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剩餘價値論을 革命理論에 活用할 때 重要한 점은 잉여가치의 크기 및 잉여가치의 獲得과 喪失程度를 階級全體에서 보아 測定·分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정분석을 「마르크스」도 그 이후의 공산주의자도 한 일이 없다. 잠깐 統計를 調査해 보면, 「잉여가치」는 대개가 투자에 대한 利子 및 配當金으로서 전생산의 10% 크기의 程度이다. 利子에 관한 욕망은 착취나 剩餘價値의 문제와 같은 單純한 것만이 아니며 많은 면에 관련된 문제로서 어떤 점에서는 빌린 돈에 대한 利子를 支拂해야 하느냐? 지불 안해도 되느냐와 같은 倫理的인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 2. 經濟秩序(No. 52)

여기에서는 ① 공산주의 經濟秩序의 중요한 특성을 검토하고 ② 이를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특성과 對比해 보며 ③ 이들 중 兩者擇一할 때 제기되는 原則的인 문제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산주의 경제이론은 社會主義 經濟社會에 대한 靑寫眞이라기 보다는 주로 자본주의 經濟秩序에 대한 批判으로 되어있다. 공산

주의는 具體化된 일도 없으며, 嚴密한 分析도 할 수 없는 아득히 먼 理想을 품고 있다. 그러나 共產주의자는 이 理想을 위하여 活動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와 같은 理想을 향하여 活動하기보다는 現在를 破壞하여 미래를 歷史의 다음장으로 現實化시키려 하고 있다. 보편적인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날의 共產주의 經濟政策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목적을 갖게 된다.

① 現在를 破壞한다. 이는 먼저 各國家를 共產주의 지배하에 끌어 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 「부르조아」와 다른 “反動的인” 姿勢와 制度를 박멸한다. ② 가능한 곳에선 항상 黨의 絶對的인 權力과 權威를 維持하여 黨의 特異한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③ 漸進的으로 新秩序의 特性을 具顯해 나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소련은 어떠한가? 소련은 歷史解釋 그대로 黨이 경제적인 目標을 설정해 주는 全體主義 秩序이며, 사회는 이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하게 組織化되어 있다.

다시 本論으로 돌아가서 資本主義 經濟理論은 完全히 成熟된 채 2백여 년이나 持續해 내려오면서 公共政策에 특히 많은 發展을 이룩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계속 評價되어야 할 問題로 남아있다) 이 자본주의 理論이 처음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1776년의 「아담·스미스」의 〈國富論〉에서 이다.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縮少하여 보면, 처음 두 부분은 價値判斷으로 되어있고, 세번째 부분은 經濟分析體系로 되어 있다. 첫 부분의 가치판단에서 〈國富論〉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生産의 唯一한 目標은 消費다.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함이 필요한 만큼 生産者의 利益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의 價値判斷은 『개인의 自決權 行使는 自然的이며 정당하고, 君主가 그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이용함은 道德的으로 부당하다』는 天賦의 自由權에 대한 18세기 價値體系의 확인으로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는 生産者가 스스로 決定해서 생산하게 될 때 소비자의 이익이 최대로 보장 될 것이라는 점을 經濟的인 分析體系論에서 강조하고 있다. 또 「스미스」는 처음으로 자연적인 狀態에서는 市場과 價格機構가 개인활동과 교묘하게 調和되어 균형된 經濟體制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論證하고 있다. 이와 같은 論據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基礎가 되어있다. 물론 세월이 감에 따라 이와 같은 논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처음의 두원칙 사이에도 若干의 문제가 있고, 이는 「스미스」 자신도 認識하고 있었다. 消費者에게 有益한 것이 生産者의 自發的인 活動에 有益한 것과 꼭 같을 수는 없다. 「스미스」는 회사간의 競爭이 이 潛在的인 葛藤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經濟政策에서의 變化와 論爭은 이와 같은 궁극적인 目標에 대한 약간의 差異點에서도 생긴다.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누구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自由는 회사에 속하는가? 經營者에게 속하는가? 아니면 일반인에게 속하는 것인가? 자유의 行使에는 適當한 敎育과 適當한 生活水準이 필요함을 점차 알게 되었다. 經濟적 不況과 社會的 不安은 完全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生産者의 自由에서 일반시민의 자유로 그 重要性이 점차 옮겨졌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生産者의 利益 보다는 消費者의 利益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役割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 自體가 變換한 것은 아니다. 이는 支出規模에서 보아 美國政府의 활동이 주로 國防, 敎育, 道路, 都市事業 등에 置重되고 있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으며, 「스미스」 자신도 이 分野는 正統적인 公公활동 분야로 인정했던 것이다. 시간과 더불어 資本主義 經濟制度는 점점 발전하여 세련되어 갔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分析할 때 이 점을 완전히 看過했으며, 이 점이 아마 「마르크스」의 예언이 빛나게 한 요인이 된지도 모른다.

다시 자본주의 經濟秩序와 공산주의 經濟秩序를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根本이 되는 두가지 價値判斷은 공산주의의 實際行爲와는 正反對가 됨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실제 행위는 분명히 數世紀에 걸친 인간의 熱望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중요한 목표는 좋은 生活水準과 經濟的인 安樂과 強制的인 억압으로부터의 脫皮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열망을 어떻게 度外視 할 수 있겠는가? 이번 敎育課程을 통해 이와 같은 인간의 열망을 成就하려고 하는 참된 노력을 공산주의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공산주의와 같은 敎理的인 원리의 굴레를 最後에 가서는 恒常 벗어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宗教的인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는 현재의 人間의 價値를 강조하며, 또 인간이 만든 敎理的인 美名下에 인간가치의 原理가 더럽혀 질 수 없다는 사실을 再認識시켜 준다.

미래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궁극에가서는 그들도 消費者의 이익과 경제의 自律性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差異點은 目的보다는 手段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方法에 根據를 提供해 주는 共產主義 理論은 方法論상으로 不適當하게 適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는 인간의 이와 같은 理想을 實現하는데는 어떤 經濟秩序가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공산주의가 소련을 支配한지

거의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소련인의 生活水準과 선택의 자유는 거의 向上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기간동안 미국민의 生活水準과 선택의 자유는 몇때나 增加되었다. 重工業과 軍需工業에 執着한 공산주의는 全體人民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고 싶어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經濟制度를 비교함에 있어서 共產主義와 社會主義를 嚴格하게 區別할 필요가 있다. 높은 生活水準과 참된 經濟的 自律性を 향한 목표로 인간을 組織化하고 指導할 수 있는 훌륭한 社會主義의 存在 可能性有無는 고사하고 공산주의는 이와 같은 의지의 사회주의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와 똑같은 目標을 가진 非共產主義의인 社會主義의 利點이 어떤 것이든 간에 서구의 思想家들이 공산주의자들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生覺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共產主義와 宗教(No. 53)

여기에서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① 宗教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背景을 좀 더 살펴보고 ② 無神論인 공산주의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발휘하고 있는 宗教의인 기능을 설명하고 ③ 基督敎的인 觀點에서 공산주의의 缺點을 분석하는 것이다.

宗教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見解는 그들의 獨創的인 것이 아니고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의 精神的인 霧圍氣의 産物이었던 것이다. 우리들 自身까지도 이러한 분위기의 影響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서 「마르크스」이전 또는 동년배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상가들의 宗教的인 態度를 볼 수가 있다.

「볼바크」(Bgm bholbach(1723~1789)): 最初의 現代的이고 戰鬪的이며 광범위한 影響力을 가진 無神論者의 한사람이다. 인도주의적인 觀點에서, 그는 무엇이 인간을 위해 善한 것이며, 또 이는 어떻게 達成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組織化된 宗教는 그의 見解로는 善에 妨害가 된다고 믿고, 종교에 대해 조직적이고 상당히 激烈한 공격을 가했다. 즉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스스로를 救濟할 수 있는 能力을 빼앗아 가며, 전체적인 壓迫을 加하게 되며 정부를 獨裁的으로 만들어 賢明한 立法을 방해한다』하였다. 이와 같은 主張을 중심으로 18세기에 豊盛했던 知的인 방법을 動員하여 古典的인 基督敎 理論들을 하나 하나 破壞하고, 똑같은 수단으로 神의 概念을 도외시하면서 우주를 唯物論的으로 설명하려 했다.

「헤겔」: 「헤겔」역시 인도주의적인 觀點에서 기성종교를 반대했다. 舊約

은 너무 權威主義的이며, 新約은 세계정신에 違背된다고 말했다.

「프르트」(1797~1857) : 종교의 腐敗에 경악을 나타내고, 과학에 土壤을 둔 새로운 道德律을 樹立하려고 했다.

「포이엘바하」(1804~1857) : 요란하게 人道主義를 주장하여 『神은 人間의 認識限界내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그의 가장 훌륭한 能力을 外的인 神의 思想에다 주입하므로써 자신을 소의시키고, 자신의 努力으로 完全에 도달할 수 있는 能力을 스스로 剝奪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겔스」(1830~1895) : 완숙된 無神論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自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무신론은 유물론과 人道主義 또는 두가지의 結果이며 아직도 서구에서 강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

다음, 두번째 主題로 넘어가서, 공산주의는 鬭爭的인 無神論 이지만 그의 追從者들에게는 종교의 役割을 한다. 공산주의가 발휘하는 종교로서의 기능은 이를 공산주의와 基督教 傳統이 包含하고 있는 공통요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① 인간이 歷史的인 運命의 원칙을 理解, 追從, 奉仕해야 한다는 사상은 神의 意志에 봉사해야 한다는 思想과 비슷하며 ②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다같이 黃金時代와 新紀元을 志向 한다는 點 ③ 惡으로서의 疎外理論은 基督教 傳統에서의 原罪의 役割을 하며 ④ 기독교나 공산주의는 다같이 그 原則에 있어서 自己 消滅을 요구한다. ⑤ 共產主義는 宗教에서와 같이 聖典과 傳統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理論과 主張이 나오고, 이의 해석은 형식적이며 모든 注意를 기울인다. ⑥ 공산주의는 자체의 중요성으로 보아 하나의 신앙이다. 例를들어, 그의 追從者들의 눈에는 오늘날 어떤 事實도 공산주의의 中心思想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類似性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우리가 完全히 다른 점은 종교가 있기 때문이다. 신의 存在에서 中間的인 態度란 있을 수 없다. 만약 공산주의가 神의 存在를 認定한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끝으로, 기독교적인 觀點에서 공산주의의 缺陷을 찾아 보면, ① 공산주의는 그 中心原理 自體가 잘못되었다. 공산주의가 인간을 分析 판단할 때 기초로 삼는 것은, 他人을 強要함을 목적으로 하는 選拔된 精隨분자를 標準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基準과 판단을 絶對的인 것으로 하게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神만이 絶對的일 수 있으며 다른 여타의 것은 偶像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神의 자리에 올려 놓고 있다. ② 공산주의는 惡의 本質을 잘못 判斷하고 있다. 악을 인간의 마음속에서 찾지도 않고 이에 대한

참회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공산주의는 악의 根源을 인간의 環境과 制度에 다 돌리고 있다. ③ 공산주의는 인간의 慾望을 잘못 分析하고 있다. 本質的으로 노동자인 인간이 「마르크스」식으로 말하여, 疎外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입증할 方法이 없다. 차라리 神에 의하여 인간이 結實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다. ④ 종교에서 보면 共產主義는 또한 그 행위 때문에 심한 批判을 받아야 한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현재의 活動은 인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倫理觀은 미래는 諸原理가 現在 실천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⑤ 공산주의는 자유로운 自律性을 追求하되 이를 인간을 위해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이다. 宗教에서는 自由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며 신을 위한 奉仕를 위해 存在한다. 진정한 자유란 인간이 신으로부터의 격리를 克服할 때 이루어 진다.

#### 4. 政治秩序(No. 54)

공산주의 批判에 있어서는 實際보다 이론에 더 置重함이 좋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이론에서 世界觀은 상당히 고정적인 位置를 점하고 있는 反面 실천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공산주의 實踐 중 그 일부를 먼저 批判해 보자.

공산당 : 당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큰 全體中의 一部에 불과하다. 그러나 共產黨은 그 一部로서의 役割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미래에 대한 어떤 特定한 見解를 주장하고, 모든 인민을 존재할 가치가 있는 階級과 없는 階級으로 分離하고, 先入觀에 따라 經驗을 拒否하며, 미래를 위해 現在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 (1) 人間가운데서가 아닌 인간 上位로서의 役割을 주장하며,
- (2) 인간에 대한 全體的인 權力을 요구하며,
- (3) 대중에 대한 誓約의 이행을 拒絶한다.

3) 공산정권도 하나의 政府로 볼 수 있다. (즉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權力을 행사하는 權威體制 같은 것으로 보아서) 비교해 보건대, 專制政治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公共權力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산정권은 大衆들이 품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理念的인 목적을 위해 權力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共產政權은 참된 政府가 아니라 理念的인 기업인 것이다. 공산정권이 通常의 政府와 다른 점은

- (1) 외부, 내부의 敵과 항상 鬭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

- (2)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모든 政治關係를 극도로 分極化시킨다는 점.
- (3) 개인을 이념적인 목적에 完全히 從屬시킨다는 점.
- (4) 사회를 극도로 原子化시키고 政權自體만이 유일한 權力의 심장부로서 創意力과 가치를 留保한다는 점 등이다.

4) 理論面에서, 공산주의자들이 分析하는 공공권력은 納得이 가질 않는다. 정치권력을 유일하게 生産手段의 소유자에게로만 귀속시키고 여타의 권력원(예를 들어, 宗教的인 위계제도, 勞動組合 및 政府官僚 등)은 무시한다. 그들은 또한 財産 所有者가 支配階級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存在는 이를 否認한다. 資本家와 地主의 打倒로 공산주의자는 抑壓勢力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評價할 기준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5) 歷史 전반에 걸쳐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歷史觀도 지지할 수가 없다.

- (1) 역사는 모두가 「데이터(Data)」가 아니며, 미래는 알 수가 없다.
- (2) 인간은 역사에 包含되고, 즉 개인적인 缺點에 따르게 되며,
- (3) 현재를 소급해서 보는 見解는 時空을 초월한 견해로서 人間의 해당사항이 아니며,
- (4) 공산주의는 한 역사적인 時點에만 절대성을 부여하고 다른 歷史는 이에 종속시키며,
- (5) 이와 같은 歷史觀은 공산주의의 비합리성의 根源이 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만이 전체인류의 運命을 左右할 열쇠를 쥐고있다고 믿는다.

### 5. 共產主義 一般的인 前提(No.55)

1) 공산주의는 여러가지 理由로 여러 사람들에게 迎合되고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永續性있게 呼訴力을 갖고 있는 점은, 공산주의가 인간들의 가장 基本的인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提共해 준다고 선전한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疎外概念(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搾取概念(인간이 인간을 부당하게 이용 하는것) 및 전혀 새로운 社會에 대한 希望(미래의 사회) 외에 인간에게 더 기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2) 소외라는 말은 인간이 日常的으로 經驗을 하고 있는 말이다.

- (1) 疎遠感과 孤獨에 대한 不滿은 전인류의 역사를 통해 흐르고 있다.
- (2) 人間은 소원감과 고독의 經驗 이외에도 解放과 團結의 經驗도 하고 있다.

(3) 「마르크스」는 해방과 단결의 경험에서 蓄積된 지식을 무시했으며, 疎外感에 대한 分析도 經濟關係에만 局限 시켰다.

(4) 공산주의자들은 現在의 社會는 소외된 狀態이며 이와 같은 소외는 현재의 社會가 破壞될 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實際로는 소련사회에서 이와 같은 소외가 더 深化되고 複雜化되고 있다.

3) 공산주의 理論에서 資本主義를 非難할 때 착취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

(1) 착취는 廣範圍한 현상이다. 착취는 家族關係, 政治關係, 異性關係, 親舊關係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依存하게 될 때 그 다른 인간을 이용하려는 힘이 存在하게 되며 또 종종 이 힘이 行使되기도 한다.

(3) 基督教 思想에는 “그리스도” 내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創造” 즉 은총을 통한 復活의 사상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個體의 復活에 전심한다. 人間이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이게 될 때, 부활된 존재를 향한 情熱이 그들로부터 전사회로 퍼져 나가게 된다.

(3) 「마르크스」는 現在社會의 破壞에서 復活을 期待한다. 그렇기 때문에 復活은 미래를 위해서만 可能하며 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4) 「마르크스」는 個人的인 生命의 부활을 은총이 아닌 다른 制度로부터 기대한다. 이와 같이 하여 惡의 근원을 不當하게 한정 시키고 영혼의 부패를 무시하는 것이다.

(5) 인간의 基本的인 문제에 대하여 공산주의는 不合理的하고 轉倒된 “解決策”을 제공하는 것이다.

◇ 정간위 심의필 31-5-106

## 공산주의 본질 비판

1973년 8월 31 인쇄

1973년 8월 31 발행

발행 국토 통일원(교육홍보실)

인쇄 서울신문사

<비매품>

